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진짜 이유

박 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흑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취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139:1-14)

차례



들어가면서 ☆ 4

하나님의 특정한 뜻을 구하지 말라. ☆ 12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

왜 소돔에 들어가 살지 않는가? ☆ 38

신자가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한 오해

비전을 크게 품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 63

신자가 품을 비전에 대한 오해

하나님께 주문을 외우지 말라. ☆ 88

신자가 가질 믿음에 대한 오해

평안은 위장된 축복일 뿐이다. ☆ 110

신자가 당할 시험에 대한 오해

큰 믿음으로 큰 용사가 된다는 것은? ☆ 130

신자가 해야 할 큰일에 대한 오해

믿음 위에 자기 실력도 쌓아라. ☆ 152

신자가 싸워야 할 전투에 대한 오해

필요한 것은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라. ☆ 174

신자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오해

가슴 대신에 오히려 머리로 믿으라. ☆ 195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오해

당신이 이미 창대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가? ☆ 219

신자가 겪는 고난에 대한 오해



들어가면서

목사 입장에서 새벽기도에 뜻밖의 신자가 나타나면 꼭 반갑지만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하려기보다는 암이나 사업부도 같이 중대하고 위급한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더 높기에 염려가 앞섭니다.

새벽기도는 한국 교회의 독특한 전통입니다. 신자들이 무릎 꿇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왕성해지기에 한국교회 부흥이 새벽기도에 힘입은바 큼니다. 그럼에도 쉽게 간과해버리는 부작용 내지 폐해가 있습니다. 그 여파가 심각할 수 있는데도 거의 인식 못하는, 인식해도 겉으로 쉽게 문제 삼지 못하는 잠복성 고질병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야 기도하는 것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백번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일 외에는 실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새벽기도가 신자들로 믿음을 그렇게만 적용시키게 만드는데 알게 모르게 일조해왔습니다. 새벽예배에 초대하면서 고난에서 놓임을 받을 수 있다는 명목을 가장 앞세웠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할머니들이 새벽마다 장독대에 물 떠놓고 손 비비며 가족들의 안녕을 간구하는 식의 믿음으로 각인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부정적 이미지 중의 하나는 광신자적인 행태일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 통성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빠른 박자의 찬송을 박수 치며 부르고, 교인끼리 몰려다니며 열성적으로 전도합니다. 교회 안에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소망하는 뜨거운 신앙이라는 긍정적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교회 밖에선 기독교 교인들만의 잔치로 밖에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열정적인 모습이 왜 나타납니까? 문제를 당장 해결 받으

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 밖의 위급한 환란에서 빨리 빠져나가려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행사를 성공적으로 빨리 수행하려 해도 물불 가리지 않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우울증 같은 내면의 상처를 고치는 것도 뜨겁게 찬양해야만 조속한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에 겪고 있는 문제와 고통에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한 것일 뿐 따로 큰 욕심을 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겪는 일을 해결하는 데만 믿음을 동원하다 보면 평생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너무나 초라한 신앙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닥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의 인생에는 죄가 불변의 상수(常數)가 되었기에, 신자라고 결코 예외가 아님, 고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평생을 두고 믿음으로 고난과만 싸우면 하나님 나라와 의는 언제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강단에서 주로 강조하는 내용도 무엇입니까? 믿음을 키우라, 성숙시켜라, 강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키가 자라는 아이처럼 믿음 자체가 실측(實測)이 가능한 객관적 실체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자기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얼마나 자랐는지 수시로 점검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해 믿음이 특정 시점에 신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신뢰, 소망, 경외심 등의 크기와 동의어인 셈입니다. 자신의 신앙적 정서와 그것이 현실에 반영되는 모습을 순간적으로 종(縱)으로 잘라 그 단편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불안하니까,

지금 성경을 안 보니까, 지금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 남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지금 봉사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나쁘다고 간주합니다. 그와 동시에 믿음이 나빠졌기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믿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경우는 당연히 믿음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믿음을 실측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급한 일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최대한 빨리, 많이 불러올 수 있는 실력이 바로 믿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기도를 열심히 해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면 믿음이 안 좋은 것입니다. 또 순전하고도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다고 배웠기에 응답이 잘 안 되면 자기 믿음에 불순물이 생겼거나 약해졌다고만 생각합니다.

믿음을 결과적 외형적으로만 살피면 분명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본질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믿는 믿음이 줄었다 늘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의심 내지 불신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 턱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믿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전혀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고 단순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때로 서로 간의 감정에 기복은 있을지언정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관계는 절대 수정, 가감, 번복, 포기되지 않습니다.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의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신자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신자에게 내주하시어 평생을 두고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신자가 가는 곳마다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죄악과 사단과 사망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분의 자녀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취소, 수정, 방해 받지 않습니다.

바뀌 말해 신자가 믿음이 나빠졌다고 여기는 내용의 대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relationship) 자체가 비뚤어진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둘 사이의 교류(fellowship)만 약해진 것입니다. 마치 부모 자식 관계는 절대 변함없지만 잠시 서로 교통하는 일에서 소원해질 수 있듯이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신자가 자신의 신앙 여정 가운데 순간적으로 찍히는 한 개의 발자국 믿음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발자국을 얼마나 선명하고도 깊숙하게 찍을 수 있을 지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전체 여정을 합쳐서 위에서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천국까지의 길 전체와 발자국들 모두 모은 그림은 전혀 그려내지 못합니다.

결국 한국 신자들의 세로로 가른 단편적 믿음은 세계 최고지만 가로로 연결한 일관된 믿음은 세계 최저일 수 있습니다. 종교적 행사를 “으샤!, 으샤!” 치르고, 정형화된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모여서 뜨겁게 찬양 기도하는 일은 아주 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키우고 싶었던 믿음의 실체는 오히려 아래위로 요동칩니다. 나중에는 교회에서 그런 행사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기까지 합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실제 삶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평생을 두고 주님과 함께 이름도 빛도 없이 걸어가야 하는 싸움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회용 인스턴트 믿음에만 집착합니다. 신자나 교회나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당장의 열심만 고취시키려 듭니다.

한마디로 믿음만능주의입니다. 현재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일 외에는 믿음을 동원하지 않으니까 필연적으로 믿음만능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오직 그런 관점으로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 안에서는 어떤 환난과 핍박은 물론 세상 죄악까지 얼마든지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순전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원하는 무슨 일이든 믿음으로 밀어 붙이면 얻어낼 수 있다는 믿음만능주의만 성행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믿음 만능주의는 경건한 일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을 어떻게 하든 빨리 의롭게 바꾸려고 뜨거운 믿음으로 교회생활에 열심을 다하라고 권합니다. 비록 도덕적 종교적으로 선한 일이라고 해도 여전히 당장 변화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 권면을 접한 신자로서는 믿음의 세기와 열성을 높이면 그런 변화가 쉽게 달성될 것이라고 기대 내지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제 때에 원했던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아무래도 믿음이 약한가봐! 아직 믿음이 더 자라야 하는가봐!”라고 한탄하게 됩니다. 차츰 그런 실망이 누적되면서 습관적 형식적 나태한 신앙으로 변질되어버립니다. 동기가 아무리 선해도 믿음만능주의로 파생되는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믿음만능주의는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일을 이뤄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믿음조차 소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는 수단이자 능력으로 오인합니다. 의도한 결과를,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열매라 해도, 이루지 못하면 무조건 믿음이 약하다고 치부하지 않습니까? 역으로 믿음

만 좋았다면 쉽게 이룰 수 있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중생(重生)과 죄 씻음의 역사로 이끄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는 한 인간이 본질적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구원 후 성화의 과정에도 성령의 인도와 간섭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만이 성도를 거룩하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만능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도 완전한 주권과 섭리보다는 인간의 노력에, 비록 그것이 믿음을 키우는(?) 것이라고 해도, 의지하려는 것입니다.

작금 강단을 오염시키는 기복주의, 성공변영신학, 긍정신학 등의 일관된 흐름이 무엇입니까? 교인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고통을 믿음을 동원해 해결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의도는 분명 신자의 유익을 도모하기에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믿음 그 자체를 고난을 해결해내는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뜨거운 믿음이 동원되어도 인간이 가진 믿음의 크기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면 그 일을 해결한 주체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입니다. 요컨대 믿음만능주의는 사실상 인본주의와 다름없습니다.

기독교 이단의 발현은 거의 모두 인본주의에 기인합니다. 믿음만능주의가 인본주의의 변형된 모습이라면 당연히 이단으로 흐를 소지가 생깁니다. 그런데도 인본적인 믿음만능주의가 수많은 강단에서 신자가 본받을 좋은 믿음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암처럼 아무 고통 없이 은연중에 번져 나가고 있으며 그 부작용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 밖의 온갖 부조리와 모순을 낳는 주범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성경적으로 올바른 자리

로 되돌아오기 위해선 믿음만능주의는 척결 내지 수정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껏 믿음만능주의로만 해석하다 보니 잘못 혹은 부족하게 가르쳐져 온 성경의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필자가 문서사역을 위해 운영하는 홈페이지“왜 오직 예수인가?”(www.whyjesusonly.com)의 “잘못 가르쳐진 성경” 사이트에 올린 글들의 일부입니다. 틈틈이 써서 올리다보니 특정 주제에 따라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에 관한 일반적 오해를 다뤘습니다.

구약성경부터 다루다 보니 더 중요한 신약의 예는 이 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아니 당연히, 신약의 사례들도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신약에선 믿음만능주의의 또 다른 유형인 복음만능주의를 주로 언급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니까 그냥 예수를 아주 쉽게 믿는 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복음만능주의가 불러오는 폐해도 만만찮은데 겉으로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앞장세우니까 아무도 선불리 탄축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일관된 요지는 믿음이 결코 특정한 하나님의 일과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종교적 실력처럼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너무나 부족한 이해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고도 풍요로운 내용을 함의(含意)합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은혜와 권능 속에 이미 들어온 것입니다. 신앙을 단순히 눈앞의 일들을 해결해내는 능력으로 간주하면 그 외의 너무나 많은 부분을 놓치

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글들이 기존의 믿음에 대한 인식을 보완해서 진정한 신본주의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마디로 믿음만능주의에서 오직 예수 십자가 중심주의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 LA 우거(寓居)에서

박신

하나님의 특정한 뜻을 구하지 말라.

-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은 안다.”

- 빌 하이벨스

“매순간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들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신성한 것이다.”

- 장 피에르 코사드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벰엘에 이르며 벰엘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帳幕)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하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라 서로 다투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고로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擇)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창13:5-13)

한 번의 선택이 십년을 좌우한다.

미국 중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한국교민이 가장 많은 대도시 로스앤젤레스로 이사 오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았다. 맛있는 자장면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그 중 하나였다. 이전에는 한국식 중국식당이 한 군데 있긴 했어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것보다 맛이 못할 정도였다. 거기다 LA에선 자장면을 먹든지 짬뽕을 먹든지 한국인이라면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까지 깨끗이 해결 받아 더 좋았다. 아예 자장면과 짬뽕을 반반씩 나눠 주는 식당이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지각이 생긴 이후로 죽을 때까지 순간순간 선택과 결단을 요구 받는다. 주일 아침에만도 무슨 옷을 입고 교회 갈까, 헌금은 얼마를 해야 하나 한창 망설이게 된다. 자장면과 짬뽕 중에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정도야 한 번에 반씩 둘 다 먹든지, 하루씩 번갈아 다른 것을 먹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몇 년 전 부동산 붐이 한참일 때 조금 무리해서 집을 장만했더라면, 그것도 이왕이면 오렌지카운티 쪽에 샀더라면 하고 두고두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 한 번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거나 평생을 두고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이 따라 주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느 쪽인지 확실하게 보여 달라고 간구한다. 불신자 시절에는 자기 기분과 판단대로만 하면 그만이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니까 믿고 난 후의 인생이 더 복잡해진 셈이다.

본문은 신자가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에 선택의 기준을 가르쳐

주는 말씀으로 자주 소개 되고 있다. 아브람과 조카 롯이 각기 소유가 많아지자 목자들끼리 우물과 초장을 두고 다투게 되어 헤어지기로 했다. 롯은 겉모습만 보고 물이 많은 죄악의 땅 소돔을 선택하여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다. 반면에 아브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외적 조건으로는 척박한 가나안 땅에 남기로 결단하였더니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신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선택해야 복을 받는다고 전통적으로 배워왔다. 그 진술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본문에 대한 완전한 해석은 아니다. 두 사람 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말대로 되었지만 신자로 믿음의 본질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부적절한 해석이자 가르침이다.

만약 그런 해석이 가능하려면 롯이 세상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욕심과 계획만 앞세운 죄인의 대표여야 했다. 반면에 아브람도 세상과 환경은 전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순종하는 의인의 대표여야 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판단할 근거를 양쪽에게 다 제공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롯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갈대아 땅에서 삼촌인 아브람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길 소원한 자였다. 부친이 죽고 없어서 할 수 없어 따라나섰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는 세속적으로 번창했던 갈대아에 남기보다 험난한 길을 택했던 자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에 그 형편을 살피러 온 하나님의 천사들을 정성껏 대접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를 “무법한 자의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벧전2:9)이라고 표현했다.

그에 비해 아브람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과연 있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치사하고도 비겁하게 마누라를 동생이라고 두 번씩이나 속인 자였다. 또 후손을 얻을 욕심으로 첩을 두었고 나중에 처첩끼리 다툰 때도 석연찮게 행동했다.

물론 롯이 삼촌보다 여호와를 믿는 믿음에선 약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물이 모자라 땅을 나눠야 하는 마당에 롯의 믿음이 그 선택의 절대적 기준이 될 필요는 없었다. 또 아브람이 선택한 의미와 그의 믿음도 흔히 우리가 이해하는 내용과는 달랐다.

롯은 선택을 잘못했는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당시 상황을 한 번 유추해보자. 삼촌 아브람이 땅을 선택하라고 말하자마자 조카 롯이 옳다구나 하고 덥석 비옥한 땅을 선택했을 리는 없다. 아마 몇 번 사양하다가 아브람이 재촉하자 마지못해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명절날 조카들에게 용돈이라도 한 푼 줄 양이면 여러 번 사양하게 마련이다. 그럼 어른이 주는 것이니까 고맙게 받으라고 권하고 그래도 머뭇거리면 야단치며 주지 않는가?

정작 중요한 문제는 롯이 과연 선택을 잘못 했는지 여부다. 그렇지 않다. 그는 판단은 정확했고 그의 선택은 옳았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이곳 LA에서 수입이 3천 불이었는데 Las Vegas에서 6천 불을 주겠다는 직장이 나선다면 신자는 가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죄악을 멀리하기를 원하시므로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인 Las Vegas 근처엔 얼씬도 말고 LA 에 남아 있어야 하는가?

신자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사회적 위치가 낮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무조건 황금을

돌 같이 여기고, 무슨 일에도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칭송을 받아야 하고, 종교적으로 항상 경건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현실적으로 풍부에 처하든 궁핍에 빠지든 간에, 심지어 때로는 죄를 범해도 그 심령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 있으면 된다.

역으로 한 번 따져 보자. 만약 본문과 반대로 롯이 의도적으로 척박한 땅을 골랐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우선 삼촌 아브람을 배려해서 양보했을 수 있다. 상식적이고도 객관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삼촌을 위해 양보하는 것은 분명 의로운 일이다. 그러나 인간 사회의 선이란 항상 상대적이다. 본인은 삼촌을 위해 희생한 의인이 될지 몰라도, 비록 조카가 양보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삼촌은 좋은 땅을 차지한 욕심쟁이가 되어버린다. 당나귀를 몰고 장터로 가다 사람들로부터 온갖 말을 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우화를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 선을 판단 근거로 삼지 않는 인간 사회의 선은 어차피 완전한 선이 되지 못한다.

롯이 척박한 땅을 고르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여 일부러 선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하지만 롯이 그 정도로 이해타산적인 믿음을 갖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도 복 받으려 기대하여 일부러 나쁜 것을 선택한 위에 복을 부어주실 리 없다. 만약 롯이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가나안을 택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최소한 손해를 감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그 손해만큼은 보전해주신다고 믿고 선택했을 수도 있다. 어느 경우가 되었던 결과적으로는 롯이 삼촌으로 척박한 땅을 가지게 했다.

지금 땅의 선택이 다른 사람과 아무 관련이 없는 롯 혼자만의

문제였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간절히 기도하여 외적으로 풍요한 길이든 궁핍한 길이든 하나님 응답을 받고 따르면 그만이다. 아니 자신의 합리적 분석대로 해도 된다. 그러나 지금처럼 삼촌과 연계 되어 부득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때는 지금껏 배워온 단순한 믿음의 공식이 쉽게 적용되지 않는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절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롯이 땅을 선택한 실제적인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양떼를 잘 키워서 번식시키려는 목적이었다. 그렇다면 물과 풀이 풍부한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에 그의 선택은 아주 합당했었다. 신자라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 똑딱 식으로 다 해결해 주지 않는다.

찬양과 기도에만 전무하고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은혜 받은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 온전한 영성이 아니다. 신앙은 현실의 온갖 자질구레하고 복잡한 일들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만 맛보는 아주 힘들고 끈질긴 싸움이다. 또 그런 지겨운 싸움을 언제 어디서든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자신의 의지적 노력과 정성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 궁극적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야 말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간절한 소망이 절대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세상에서 자질구레한 싸움을 잘하기 위해선 신자도 현실적인 기술, 지식, 신용, 예절, 법규, 관습 등에서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남보다 뛰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그렇게 쌓은 실력을 정당하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의미임, 사람들 앞에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롯이 범한 진짜 잘못

아브람은 갈 바 몰랐으나 하나님께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 떠남에 처음부터 동행했던 조카 롯은 그를 본받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무참히 실패한 인생으로 끝났다. 다시 말하지만 목자라면 물이 많은 땅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의 선택 자체는 합리적이었다. 그의 소돔 땅 선택이 차후 실패의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근본적인 잘못은 딴 데 있었다.

매번 감탄하지만 성경은 너무나 정밀한 기록이다. 조금만 세심히 본문을 살펴도 롯의 실패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요단 들이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말한다. 또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고 했다. 뭔가 집히는 내용이 없는가? 그의 마음이 소돔의 향락문화에 차츰 빼앗겼다는 뜻이지 않는가?

말하자면 그가 요단 들을 택할 때에 물이 많은 것만 보지 않았던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애굽 땅과 같아” 보여서 선택했다고 했다. 애굽 땅 같으려면 두 가지 가능성 밖에 없다. 나일 삼각주처럼 비옥해서 곡물 농사짓기에 아주 적합하든지, 아니면 당시 세계 최강 국가로서 화려하고 번창한 도회적 분위기여야 한다. 롯은 이 두 요소 중에서 후자도, 정확하게 말하면 더 중요하게 감안했던 것이다. 도시를 꿈꾸며 땅을 골랐던 것이다.

물론 롯이 땅을 고르는 본문의 현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지금 삼촌과 헤어지게 되는 계기는 순전히 목축에 필요한 초지와 물이 모자랐기 때문이었다. 롯이 곡물 농사에 적합한 땅인지 목축밖에 못하는 땅인지 분간 못할 리는 결코 없다. 그가 요단 들을 보면서 물이 없더라도 현대식 댐을

지어 농경지로 개간하겠다는 식의 초현대적 비전은 없었을 것 아닌가? 그리고 애굽 전체가 곡물농사에 적합했지 목축용 땅은 아니었다. 애굽에선 그래서 목축업을 아주 천한 직업으로 여겼다.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콥 가문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목축을 하겠다고 하자 바로가 멀리 고센 땅을 배정해준 까닭이다. 당시의 이런 전후사정을 고려해 볼 때 롯이 목축용 땅을 고르면서 애굽을 떠올리며 소돔 쪽을 선택했다는 것은 애굽의 화려한 도시문명도 함께 떠올렸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다.

또 목축을 전문으로 하려면 들판에 장막을 쳐야 했다. 그런데 성경은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고 증언하고 있다. 삼촌과 헤어지자마자 그는 평지 성읍에 머물렀던 것이다. 목축은 하인들에게 맡겼고 자신은 소도시에서 생활을 했다. 그러다 결국에는 장막을 걸고서 소돔이라는 대도시로 거주지를 옮긴 것이다.

분명 목축업을 더 크게 키우려는 의도로 헤어져 놓고 아예 업종을 바꿨거나 본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항상, 최소한 땅을 선택하는 이 시점부터 대도시 소돔에 마음이 가있었던 것이다. 최대한 양보해도 목축을 주업으로 하되 생활은 도시에서 하고 싶었던 것이다. 한 마디로 롯은 인생의 온전한 목적과 굳건한 믿음이 없이 세상 유혹에 쉽게 빠지는 타인이었다.

그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삼촌을 따라 나서긴 했지만 두고 온 갈대아 우르의 풍요와 안일과 향락에 대한 미련이 마음 한구석에 항상 남아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세속적 욕심을 아브라함 앞에선 내색을 못하고 있었던 것뿐이었다. 본문은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라고 시작한다. 즉 기근을 만나자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하는 바람에

다시 도회적 향기(?)를 실컷 마시게 되었고 마음이 갈대처럼 심하게 흔들렸던 것이다.

목자들 사이에 물과 초지로 다툼이 일어나 삼촌과 헤어지는 일은 이를테면 그에겐 울고 싶었는데 뺨을 때려준 격이었다. 속마음은 애굽 콩밭에 가있던 차에 물이 많은 데다 마침 애굽과 닮은 소돔이 가까우니 완전히 뽕 먹고 알 먹게 되었다고 내심 쾌재를 불렀을 지도 모른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없는 애굽과 소돔 땅은 사탄이 주관한다. 다른 말로 롯은 사탄의 꾀에 넘어간 것이다. 롯은 내심 소돔 땅이 좋으면서 겉으로는 목축에 적합한 땅을 선택의 구실로 삼게 만들었다. 사탄은 거의 매번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신자에게 외적 경건과 의로움으로 유혹한다. 그러나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추하고 더러운 죄악의 덫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다.

요한 사도가 지적한 대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요일2:16) 사탄은 신자로 이생의 자랑처럼 착각하게 만들면서 실상은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게 만든다. 일단 신자가 되면 죄라고 확실히 인식되는 일에는 그리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육신과 안목과 이생에 다 좋아 보이니까 속는 것이다. 아니 그런 거짓된 정욕이 신자의 속에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으니까 사탄이 그 약점을 건드리는 것이다.

문제는 사탄이 신자에게 그런 치사한 시험과 유혹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묵인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신자더러 영적 분별력을 온전히 갖추라는 뜻이다. 스스로 그런 시험을 이기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자신의 속에 펄펄 살아 있는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죽이

고 인생의 자랑만 추구하는 뿌리 깊은 습성을 없애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당신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힘을 다하여 순전하게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그 말씀 바로 앞에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2:15) 인간이 궁극적으로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과 세상(물론 그 배후에는 사단) 둘 뿐이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하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또 하나를 미워하면 다른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롯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을 리는 만무하다. 알기는 알았지만 그분을 순전히 사랑하여 믿고 따를 생각이 없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몸은 빠져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그는 목축을 잘 하려고 물이 많은 땅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애굽 땅 같은 요단 들이 좋았다. 말하자면 선택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별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의 본심이 하나님 대신에 세상 쪽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었기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님과 등을 진 상태로선 필연적으로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브람은 선택을 잘했는가?

아브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선택한 것인가? 이 또한 아니다. 흔히 생각하듯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남기로 선택한 것

이 아니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10절) 아브람이 선택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는 것은 좌우 어느 쪽이 되어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바꿔 말해 자기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하지 않았다. 만약 롯이 끝까지 삼촌에게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가나안을 고집했더라면 아브람은 소돔 땅에 갈 수밖에 없었고 또 갈 용의도 있었던 것이다.

그는 스스로 아무 선택을 하지 않은 대신에 선택권 자체를 롯에게 양보했다. 그 땅에 물이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고 어느 땅이든 기꺼이 가서 살겠다는 것이다. 척박하지만 죄가 적은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이 있고, 물이 많지만 죄 많은 소돔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요, 물론 그 반대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브람이 원래 성격이 겸손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적은 의인이라고 오해해선 안 된다. 지금 땅을 나누고 서로 헤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소유가 많은데 비해 좋은 초지와 우물이 부족해서다. 양 떼를 잘 키워 더 많이 증식시키거나 최소한 유지하겠다는 목적이지 않는가? 양 떼가 죽더라도 즉,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삼촌과 조카가 사이좋게 지내며 헤어지지 말자는 식은 아니었다. 아브람이 외적 여건을 전혀 보지 않고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선택했기에” 축복 받은 것이 아니다.

신자는 죄악의 땅을 멀리해선 안 된다. 도리어 죄악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변화시켜야 한다. 물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자라도 죄의 힘을 쉽게 이길 자는 드물다. 그러기에 자신의 능력만으로 변화시키려 들어선 안 된다. 신자 본인은 “죄악”은 어떤 모

양이라도 멀리해야 하는 것은 분명 옳다.(살전5:22) 대신에 신자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의지할 수 있기에 “죄악의 땅”에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죄악의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신자는 우선 기도로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여야 한다. 동시에 본인은 최소한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롯의 궁극적인 잘못도 소돔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소돔 땅에 들어가 의인답게 살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자기 삶으로 증거하지 못했던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롯이 처음부터 소돔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요단 온 들을 택했다. 차츰 시일이 흐르면서 소돔 땅으로 옮겨 갔다.(11,12절) 그리고 성경이 구태여 “소돔을 멸하시기 전”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땅을 선택할 당시는 소돔에 죄악이 완전히 관영하기 전이었을 수 있다.(10절) 그는 가나안과 소돔의 윤리적 상황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 안락과 풍요와 쾌락만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다보니 소돔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그 땅의 죄악과 타협하거나 눈감고 살았던 것이다.

신자는 얼마든지 Las Vegas에 가서 살아도 된다. 다시 말하지만 죄악의 땅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해야 한다. 또 LA라고 해서 죄악이 Las Vegas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다는 법은 없다. 불신자들이, 아니 신자를 포함한 인간들이 살고 있고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땅 어디에도 죄악은 들끓게 마련이다. 이 세상에선 가는 곳마다 다 죄악의 도성이지 하나님의 도성으로 따로 구별된 곳은 없다. 죄악의 도성 한 가운데에다 신자들이 책임지고 참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야 할 뿐이다. 자기의 가장 가까운 주위부터, 부부사이에 부

모자식 간에, 직장과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섬김의 공동체가 되도록 신자 스스로 본을 보이며 실천해야 한다.

아브람의 믿음

본문 기록상으로는 아브람이 하나님의 특정한 뜻을 그 자리에서 분별하고 선택하여 시행한 일은 없다. 반면에 이미 갖고 있는 자신만의 온전한 믿음으로 행한 일은 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전자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어떤 방식이든 미리 깨달아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후자는 하나님의 뜻이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만 온전히 믿고” 행하는 것이다. 전자는 하나님이 신자로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마련해 주어야 비로소 믿고 행하는 것이다. 반면에 후자는 전혀 그분의 뜻과 계획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붙들고 행하는 것이다.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올 때에 최종 목적지를 몰랐다. 갈 바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그는 언제든 하나님이 가라고만 하면 갈 준비가 되었던 자다. 가나안도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았다. 그런데도 왜 자꾸 우리는 가나안 땅을 선택해야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오해하는가? 혹시 우리의 관심이 그가 나중에 받았던 복에 쏠려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방도만 찾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가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우선적으로 양보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그 선택을 완전히 위임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광야도 옥토로 변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옥토도 광야로 변한다는 진리를 그는 철저하게 확신했다. 한마디로 그는 가나안

땅을 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하나님만 택했던 것이다.

다른 말로 그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어떻게 잘 분별할 수 있었는지는 정작 따져야 할 이슈가 아니라는 것이다. 갈 바를 전혀 몰라도 그분만 따를 수 있었던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답은 오직 하나다. 그가 이전에 겪었던 처절한 실패 때문이었다. 그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도착한 초기에는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러다 점차 광야의 장막 생활에 싫증나기 시작했고 마침 기근이 닥치자 물과 식량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갔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벧엘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벧엘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창12:7-10)

그런데 애굽에 가까이 가자 아름다운 아내 사래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염려가 들이닥쳤다. 그래서 사래와 공모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아내 대신 여동생이라고 속이기로 했다.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가는 위험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 예상한 대로 사래는 애굽 왕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아브람은 아내를 되찾고 오히려 많은 은금을 얻어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되었다.

그는 애굽에서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묻지 않은 채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치사한 선택을 했다. 말하

자면 아브람은 하나님을 전혀 따르지 않았는데도 놀랍게도 하나님 쪽에선 그 비겁한 아브람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던 것이다. 당신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떠난 적이 한 시도 없었다. 하나님은 또 그와 맺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기 위해 언약 수혜자인 그가 분명한 잘못을 범했음에도 벌주기는커녕 예상치도 않았던 복을 더 부어주셨다.

아브람은 당시의 또 다른 초강대국인 갈대아 우르에서 편안하고 화려한 도시 생활을 이미 즐겨봤던 자다. 비유컨대 인생의 황금시절을 온갖 재미를 만끽하며 서울에서 보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 세상 모든 재미를 다 버리고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 화전민이 되어 이곳저곳 유랑하라고 했다. 하나님으로선 이 땅은 잠시 지나갈 곳ियो 영원한 거처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굳건히 세우려는 뜻이었다. 그가 가나안 광야에서 장막을 치며 옮겨 다녀도 가는 곳마다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면 어떤 기근이 닥쳐도 반석에서 생수를 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라도 지켜 주시겠다는 뜻이었다. 대신에 그더러 모든 열방들에게 자기가 체험한 그 여호와와 복을 나눠주는 근원으로 살라고 명했다.

그러나 도시생활에 익숙했던 아브람 역시 광야 생활에 조금씩 싫증이 나기 시작했다. 체면 때문이라도 떠나온 우르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대신에 당시 갈대아와 맞먹는 애굽에 흥미가 슬슬 동했다. 성경은 기근이 오기도 전인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다”(9절)고 기록하고 있다. 남방은 지금 니게브 사막인데 그야말로 물이 없는 광야로 가나안 보다 훨씬 척박한 곳이다. 기근이 오기 전인데도 그런 곳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이 단계에 이미 그의 본심이 거의 애굽으로 향했다는 뜻이지 않겠는가?

앞에서 살펴본 롯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로서도 울고 싶던 차에 마침 누가 빵을 때려 준 격으로 기근이 닥쳤다. 하나님이 아브람의 믿음을 시험하려 기근을 보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애굽으로 지체 없이 넘어갔다. 성경은 “애굽에 우거(寓居)하려 하여”(창12:10) 넘어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잠시 기근 동안에만 피신하려 간 것이 아니다. 우거란 미국 영주권자들 처럼 그 땅에 시민권은 없지만 영속적으로 머물며 사는 것을 뜻한다. 여차하면 애굽에서 살겠다는 뜻이었다.

하나님으로 봐선 믿음의 최초 선조로 세운 자가 완전히 당신의 뜻을 배반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셈이었다. 그런데도 그를 다시 불들어 세웠다. 음부에 내려가도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당신께서 다시 그 품안으로 불러들이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반드시 당신의 지팡이로 안위하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게 해 주신다. 아브람은 애굽에서 그런 은혜를 자기와 아내의 생사(生死)가 걸린 극적 체험을 통해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이다.

물이 적고 척박한 곳에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애굽 땅 같이 당신을 모르는 죄악의 땅에서도 신자를 보호해 주신다. 물과 풀이 적은 가나안 땅이든, 풍부한 요단 들판이든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계심을 아브람은 확신했다. 그래서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고 담대하게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삼촌으로서 얼마든지 먼저 취해도 되는데 우선권을 조카에게, 사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 삼촌이 조카에게 먼저 양보하는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신자로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전적 의탁이 우선이자 전부였던 것이다.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니다.

신자들은 자꾸만 좌우의 향방을 묻고자 기도한다.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한다면 언제 어디에서 누구랑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따르겠다는 선한 자세와 각오를 앞세운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하나님이 좌로 보낼지 우로 보낼지 그 구체적 행선지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좌우 어느 쪽인지 특정 장소나 방식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어느 쪽이 성공 가능성이 많은가, 어느 쪽이 형통하겠는가를 묻는 것이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님이 물과 풀을 풍부하게 주실지만 알고 싶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마음이 쏠려 있다. 하나님 당신을 따르는 것은 뒷전이다. 아니 하나님 당신의 뜻에는 사실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점쟁이로 대우하는 셈이다.

물론 때로는 구체적인 방향에 관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때가 있다. 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이 되었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에 관심을 두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정작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은 다르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신자에게 은혜를 안 주실 리가 있는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하나님이 떠날 리도 없고 보호해 주지 않을 리도 없지 않는가 말이다. 그럼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인도하실지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의 초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 미리 순종할 각오와 헌신이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분의 뜻을 묻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순종하겠다는 것은 믿음의 내용에 천양지차이가

있다. 전자는 우로 가든 좌로 가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어느 쪽이든 인도만 해주시면 그에 맞게 준비하고 반응하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좌우의 선택이 문제가 되지 않고 성실하게 충성하는 일만 남았다.

반면에 후자의 초점은 여전히 좌우의 선택에 두고 있다. 자기가 선택하기 힘들니까 하나님더러 선택해 달라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나님 뜻을 먼저 보여 달라는 것은 마음에 안 들면 순종하는 자체를 재고해 볼 수도 있다는 주저함이 깔려 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더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으신다. 좌든 우든 무조건 따르겠다고 하는 자에게만, 그것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 좌우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보여줄 뿐이다.

아브람은 좌가 되던 우가 되던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인도하던 그 쪽으로 가겠다는 차원조차 넘어섰다. 그에게 방향은 이미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 좌우 어느 쪽이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자기도 그분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완전히 순종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자에게 방향이 어디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신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자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이다. 신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먼저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하게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신자란 택함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영원한 기뻐하심에 이미 들어간 자다.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보내는 대로 가면 되고, 시키는 대로 행하면 그만이다.

신자는 오직 자기의 전 존재에, 전 삶에, 전 인생에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과 의와 선으로 채워주어서 그분의 자녀답게 온전히

바뀌기만 소원하면 된다. 신자가 가는 길이 좌우가 될지 결정하는 이는 오직 그분이다. 하나님이 신자가 어느 길로 가서 어떤 일을 할지 책임져 준다면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뀌어 살기만 하면 되지 않는가?

올바른 믿음이란?

롯은 자기 나름대로 분명히 합당한 선택을 했다. 신자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없다면 객관적인 조건이 좋아 보이는 곳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선택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도 아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다시 말하건대 그는 일련의 끌림은 있었지만 처음부터 죄악의 땅을 택한 것이 아니라 물과 풀이 풍부한 요단 온 들을 택했다. 만약 그 들판에만 머물러 있었더라면 절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광야의 장막 생활이 점차 싫증났다. 그의 속내가 이미 거의 기울었던 대로 인간이 이룬 문명을 즐기려 제 발로 도시를 다시 찾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 서있기보다,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의 하나로 서있기 원했던 것이다. 그가 좌우를 선택한 것이 그의 운명을 가른 것이 아니다. 그의 사람됨이 그를 멸망으로 이끈 것이다.

아브람도 롯보다 정도는 약해도 도시생활의 미련을 못 버리긴 마찬가지였다. 애굽 피신에서 겪은 고난이 그로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롯과 땅을 나누는 일이 생겼다. 하나님은 신자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보다는 신자의 신자 됨, 그 중심을 먼저 보신다는 것을 그가 철저하게 깨달은 직후였다. 땅의 선택권을 롯 대신에 서슴없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연유다.

이젠 어느 땅에 가든 하나님만 함께라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었기에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 하겠다고 한 것이다.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좌하라는 음성을 들었다면 그도 끝까지 좌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가 어느 한 쪽을 고집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그런 일은 없었다는 반증이다.

대신에 현실적으로 어느 쪽이든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의 뜻이 꼭 한 쪽에만 있기에 잘 분별하여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다.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일차적 관심이 일과 주위 여건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거룩하게 바꾸는데 집중되어 있음을 알았던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신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를 문제 삼지 않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만 따지신다. 일은 당신의 몫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믿음은 현실 상황에선 본문의 아브람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의 구체적 뜻이라고 확실한 계시를 미리 받지 않는 한 상대에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든 먼저 선택하라고 담대히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의 신실하신 권능과 풍성하고 오묘한 은혜를 진실로 확신한다면 현실이 어떻게 변하든 담대하게 자유와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반면에 롯은 어떠했는가? 아직 그의 인생관을 바꿀만한 고난의 체험이 없었다. 아버지를 일찍 여원 아픔은 있었지만 그럴수록 삼촌 아브람을 아버지 대신에 따랐다. 지금껏 그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일대일의 개인적인 교제가 거의 없었다. 삼촌이 가자고 하면 가고 남아있자고 하면 남았다. 지금도 먼저 선택하라고 하니 선택한 것뿐이다. 몸은 비록 가나안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진짜 광야 같은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다. 삼촌 아

브람에게(인간), 들판의 물과 풀에(물질), 나아가 도시의 문명 혜택(주위 여건)에서만 자기 안전과 만족을 구했다.

아브람도 애굽으로 문명의 혜택을 찾아 나섰지만 인간이 자기를 지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지켜주심을 절감했다. 화려한 도시에나 황량한 광야에서나 동일한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했다. 하나님이 인생에 기근을 비롯하여 온갖 고난을 허락한 이유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는 것임을 깨달았다. 또 그런 소망을 키우기에는 광야에서의 나그네 생활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길

대부분의 신자들은 어디에 물과 풀이 풍부할지를 하나님에게 물어 답을 얻는 능력을 좋은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기독교에선 그런 신통력을 두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세상의 물이 많고 적음에 그저 불안해지는 자들에게나 신통력이 필요할 뿐이다.

믿음이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매순간 바로 곁에서 동행하고 있음을 언제 어디서든 한 치도 의심하지 않는 능력이다. 이미 성령이 와 계시기에 좌우 중에 어디로 가야할지 고민하지 않는 것이다.

신자들이 좌우 중에 어느 쪽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까 고민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어디로 가야 하나님보다 자기에게 유리할까 저울질 하는 짓이다. 하나님이 신자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세우지 못할 리는 전혀 없지 않는가?

많은 신자들이 믿음을 양자택일로 이해하는 잘못된 신앙을 인간관계에서조차 적용하고 있다. 자식, 배우자, 동료 성도임에도 조

금이라도 자기 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용서는 뒷전이고 당장에 비판 정죄한다. 자기는 아브람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고 상대는 롯처럼 죄악의 땅을 선택한 양 몰아붙이는 것이다.

신자는 그래선 안 된다. 진짜 아브람처럼 좌든 우든 하나님에게 맡겨야 한다. 자식이 잘못해도, 배우자가 마음에 거슬려도, 회사 직원이 실수하여 손해를 끼쳐도, 교회 성도가 죄를 지었어도, 좌우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에게 맡겨야 한다. 그래서 진짜 그들이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그 잘못을 바로 잡아 주고 만약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길 기도해야 한다. 본문 사건 뒤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는가?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찐대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縱)과 횡(橫)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창13:14-18)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남게 되자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수도 없이 많아지고 또 보이는 땅을 다 차지할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다시 다짐해주셨다. 다시 강조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가나안 땅을 선택했더니 그런 복을 주신 것이 아니다. 당신께서 이미 주셨던 언약을 재확인 한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어길 리는 없지 않는가? 거기다 신자가 종으로 가든 횡으로 행하든 하나님

이 동행하심을 전혀 의심치 않는데 그 땅을 차지 못하게 해주실 리도 없지 않는가?

신자가 하나님께 미리 구체적이고도 명료한 계시를 받아 그대로 잘 수행하여 승리하는 일은 평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이다. 매사에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신령한 신앙 위인은 없다. 하나님이 신자의 일을 그렇게 인도하시지도 않는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담대하게 서있으면 어떤 일에서나 당신께서 보호하여 승리케 해주시는 법이다. 신자는 좌로 가야할지 우로 가야할지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자신의 존재와 삶과 일생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가 많이 증거되도록 소원하고 그 소원대로 실천하면 된다.

요컨대 자기 전부와 맞바꾸어서라도 즉, 목숨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흑암의 세력들 위에 찬연히 드러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겠는가 말이다. 또 그런 사람에게 좌든 우든 무슨 상관이 있으며 또 종과 횡을 행할 때에 어떤 악한 세력이 감히 틈탈 수 있겠는가 말이다.

지금 아브라함 같은 신앙 위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가 그래야만 참 신자이다. 또 그럴 수 있는 것이 신자가 가진 가장 큰 특권이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지 않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는가? 물론 우리 모두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도 많지만 최소한 믿음의 본질이 그렇다고 정확하고도 명료하게 이해하여서 붙들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좌로 갈까 우로 갈까 몰라 우왕좌왕 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것은 불신자의 삶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로 좌든 우든 미리부

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따를 수 있는 것이 신자의 특권도 아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당신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권능과 은총 안에 자신의 일생이 완전히 붙잡혀 있음을 확신하기에, 좌로 가든 우로 가든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신자다. 도대체 이만큼 귀한 특권이 어디 있는가? 구태여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인생 성공의 비결이 또한 어디 있는가?

그런데도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는 생각은 접어두고 그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어디로 가야 할지 빨리 가르쳐 달라고 떼만 쓴다. 불신자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뜻이든지, 아직도 옛 습성을 전혀 버리지 못했다는 반증일 뿐이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떼만 쓰다가 오히려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마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좌든 우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 그런 헌신의 기도를 했으니 손발 다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좌든 우든 모든 상황을 자신이 잘 판단하여 선택한 후에 일단 그 길로 결행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데에 방해되지 않으며, 주님께 이미 받은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고, 스스로 하고 싶은 소원과 기쁨이 있는 일이면, 좌든 우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좌든 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구태여 둘 중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고 우기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지 않는가?

왜 소돔에 들어가 살지 않는가?

- 신자가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한 오해

“다른 사람에게 불빛을 비추는 사람은 그보다 더 환한 빛에
항상 둘러싸여 있다.”

- 제임스 베리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면 다른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 헨리 워드비처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오십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오십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오십 의인 중에 오 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오 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사십오 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사십 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사십 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 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삼십 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이십 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이십 인을 인하여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십 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십 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창18:16-33)

신자의 제사장적 역할

오래 전에 미국의 콜로라도 국립공원에 자동차로 여행을 간 적이 있다. 여름에도 만년설이 쌓여 있는 고산준령의 꼬불꼬불 경사길을 내려오는데 순간적으로 브레이크와 핸들이 말을 듣지 않아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다. 정말 몇 초만 지나면 죽음의 입구로 빨려 들어가려는 참이었다. 옆 자리에 있던 아내가 큰 소리로 “주여! 주여!”라고 계속 고함만 질러댔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는 다급한 기도였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계곡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사륜구동의 큰 트럭이 그 앞을 가로막고 서있었다. 길가 벼랑에 부딪히는 바람에 속도가 조금 줄어든 우리 차가 그 차 꼬무니를 들이박고 멈춰선 것이다. 없던 차가 기도했더니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꼬부랑길을 내려오느라 보이지 않던 차가 보이게 된 것이다.

하필 그런 차가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이었다. 나아가 만약에 그 차가 소형차였다면 우리 모두 황천길로 갔을 것이다. 또 혹시라도 그 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더라면 대신 떠밀려 내려가 희생당했을 수 있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19:5,6)는 언약을 맺었다. 예수 십자가 은혜로 새 이스라엘로 받아들여진 오늘날의 신자도 이 언약에 당연히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

신약 신자더러 이미 폐지된 성전 희생 제사를 지내야 하는 구약 제사장 역할까지 감당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폐지된 것은 어디까지나 율법의 외형적 제도와 관습이지 거기에 내포된 하나님의 뜻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십자가에서 바쳐진 주님의 영단번의 죽음이 성전제도를 복음으로 대체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 오셨다. 신자는 여전히 불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제사장적 역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보(仲保) 기도다. 죄인을 구원하는 중보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신자가 중보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중보자 예수의 은혜가 사단에 미혹된 불쌍한 영혼에게 베풀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직접 구원을 이루시는 이는 주님이지만 신자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쉽 없이 구원 받을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본문은 죄인의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예로 가르쳐져 왔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구원을 끈질기게 간청하여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훑어보면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직접 서술한 부분은 없다. 거기다 하나님이 그가 요구한 내용에 동의는 했지만 그대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도 말할 수 없다.

물론 기도가 꼭 무릎을 꿇는 등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잠시 지나가는 생각으로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의 훌륭한 기도다. 또 서두의 예처럼 긴급한 일을 당해 그 자리에서 “주여!”라고 고함만 질러도 기도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자기 소원을 여러 번 끈질기게 아뢰

었고 또 그가 소원했던 대로 롯은 구원을 받았다. 원칙적으로 중보기도의 모본이라는 가르침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었다. 기도란 주로 하나님이 찾기 전에 본인이 먼저 구체적인 소원을 갖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이지 않는가?

때로는 신자가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신자더러 기도하라고 강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도 성령의 내면적 인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자 스스로 기도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 지금은 여호와와 사자를 만나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듣고 난 뒤에 단순히 자기 생각을 말한 셈이다.

그가 처음 여호와와 사자에게 “가까이 나아가”(23절)는 모습을 설명하는 히브리 동사 ‘나가쉬’는 어떤 목적을 위해 접근하는 것을 뜻한다. 그의 마음에 롯의 가족을 구원해보겠다는 즉, 하나님께 간구하려는 의도는 분명히 있었다. 그럼에도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23절)는 그의 호소는 간구의 형태가 아니라 질문하는 형식이었다. 그 후 진행되어진 전후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벌린 논쟁에 더 가깝다. 그것도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아주 자신 있게 당당히 나섰다가 차츰 꼬리를 내리면서 하나님께 한 마디 대꾸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패한 토론이었다.

아브라함의 착각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도매금으로 같이 멸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고 따진 것이다. 이어지는 말에 그런 의도가 더 확실히 드러났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이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그로선 당장 조카 롯과 그 가족의 안위가 염려되어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었던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만약 롯의 구출이 가장 중요했다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간구했어야 했다. 예컨대 “소돔에도 롯과 같은 의인들이 있으니 잘 살펴봐서 공회를 베풀어 달라”는 내용으로 말했어야 했다. 하나님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창18:21)고 말씀하신 직후였지 않는가? 그럼 소돔 사람 중에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구제해줄 용의가 있음을 피력한 것이다.

어쩔 친척 관계인 롯의 구원을 곧바로 천명하기 쑥스러웠을 수 있다. 소돔 성중에 알고 지내는 친구들과 그 가족의 숫자까지 감안해서 의인 오십 명을 구해달라고 했을지 모른다. 어쨌든 롯 가족과 자신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염두에 두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에게 시종일관 주장한 것은 정작 의인의 구원이 아니었다. 정말 의인의 구원이 절실했다면 소돔은 멸하되 의인은 따로 구출해 내든지 도망갈 여유를 달라고 요구했어야 한다. 자세히 보면 의인 열 명이라도 있으면 “소돔을 멸하는 것”을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그리고 그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소돔에 투자한 것이 있든지 무슨 이해관계가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도 롯처럼 언젠가는 화려한 소돔에 들어가 살 작정을 했든지 말이다.)

어쨌든 하나님이 의인 열 명이라도 발견되면 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멸망시켰으니 소돔에는 의인이 롯 가족을 포함해도 열 명도 안 되었다는 뜻이다. 대신에 롯 가족만 그 멸망에서 빠져 나가게 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롯의 구원을 위해 중보 기도한 것이 사실이었다 해도, 그가 정작 간구한 기도의 제목인 “소돔 멸망의 중지”는 응답이 안 되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바는 전통적인 가르침과는 다르다는 뜻이다.

소돔의 멸망 계획을 들은 직후 아브라함에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부터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례하다시피 당신의 공의부터 걸고 넘어졌다. 소돔에도 의인이 많을 텐데 무조건 다 멸망시키면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바꿔 말해 무자비하고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냐고 따진 것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선뜻 그의 요구대로 의인 오십 명이 있으면 절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다른 말로 그의 생각과 짐작이 틀렸다는 뜻이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만큼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네 말 대로 정말로 의인이 오십 명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 계획을 즉시 중지시키겠다.” 그 순간 그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겠는가? “어이쿠! 내가 앞뒤 구별도 못하고 엉겁결에 잘못 생각했는가 보다.” 그리고는 소돔의 형편을 곰곰이 따져 들어갔더니 의인의 숫자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다.

그 다음부터 그의 태도는 180도로 뒤바뀌었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27절)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30절)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31절)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32절) 처음의 그 당당했

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갈수록 자신이 없어지면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꼬리를 내리는 형상이 되어버렸다.

간절한 기도란 갈수록 뜨거워져야 한다. 또 응답 받을 확신이 있는 기도일수록 더 그렇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서 전혀 그런 기색을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기도가 아니라 논쟁을 벌였다가 무참하게 진 것이다. 만약 기도라 쳐도 구걸 수준에 가까운 기도다. 구걸 치고도 이렇게 치사한 구걸이 없다. 비유컨대 거지가 만원만 달라고 했다가 없다고 하니깐 몇 번이나 오천, 천, 백, 십 원 씩으로 동냥 액수를 줄이다가 마지막에는 일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한 것과 같다.

아브라함은 크게 착각한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 소돔 성의 죄악에 대해서도 무지했다. 또 의인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도 몰랐다. 아직까지도 인간적 도덕적 의에 근거한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논쟁을 걸었다가 정말 본전도 못 찾은 셈이다. 그런데 그가 정작 몰랐던 더 중요한 사항은 따로 있었다.

아브라함의 잘못

하나님이 죄로 인해 한 공동체 전부를 멸망시키는 심판을 하기는 노아 홍수 이래 소돔이 처음이다. 바벨탑 사건의 경우는 인간이 죄악에 빠져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기보다는 한 곳에 모여 힘을 합쳐 제국을 건설해보자는 것이었다. 인간의 능력을 믿고 교만에 빠진 죄를 범한 것만은 확실하지만 나름대로 인간끼리 잘 살아보자는 뜻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지면에 흩으셨다. 또 언어가 하나로 통일 되어 있

는지라 인생을 높이는 일을 경영하기 쉽기 때문에 언어를 혼잡케 하셨던 것이다.(창11:4)

반면에 노아 때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창6:5)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할”(6절) 정도였다.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했다.”(창8:21)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전부 악했고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는 의인이라고는 찾아보려야 찾을 수 없었다. 지금 소돔의 경우도 의인 열 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을 당했다. 노아 때와 같이 어린이들조차 악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노아 때와 같을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노아의 때는 노악 가족은 의인이었다. 의인 열 명도 없었다면 롯 가족 중에 일부가, 아니면 전부가 하나님 보시이게 악인이었다는 뜻이다. 요컨대 소돔이 노아 때보다 더 악했다.

당시의 아브라함의 입장과 위치는 어떠했는가? 노아 홍수 이래로 지구상에서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유일한 인간이라 할 수 있다. 가나안이 술 취한 아비 노아에게 불경한 죄를 지었다. 그때 노아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창9:26)고 세 아들 중에 셈만 축복했다. 일차적으로 셈의 믿음을 칭찬한 뜻이지만, 셈의 먼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언이기도 하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아담, 아벨, 에녹, 노아, 셋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를 계승할 핵심인물로 선택되었다.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고 그 후손을 하늘의 못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를 통해 당신의 구원이 인류 전체에 퍼져나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자기가 깨우쳐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아니었다. 갈대아 우르에서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다. 그리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창12:10)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 그가 노아와 같이 자기 세대에서 유일한 의인으로 세상 앞에 서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다면 그도 당연히 노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인생을 살아야 했다.

그러나 그는 언약을 받은 직후부터 잘못을 범했다. 친척을 떠나야 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다. 나중에 서로 소유가 많아지고 각자의 종들이 우물과 초장을 두고 다투게 되어서야 헤어졌다. 지금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려 함에 그 롯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처리해야 할 골칫거리로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롯 개인의 구원 문제 때문에, 혹은 그 때문에 소돔의 심판을 연기해야 할지 고민했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롯 때문에 오히려 아브라함을 걱정하셨던 것이다.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창18:16-19)

소돔을 심판하려 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심판을 숨기지 않겠다고 했다. 하나님으로선 어차피 소돔에 의인이 열 명도 없어서 멸망시킬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단지 그에게 미리 알려준다고 해서 그 계획이 변경될 수 없고 그럴만

한 그거도 전혀 없다. 실제로 그와 논쟁(?)한 후에도 취소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이 왜 미리 알려주셨는가?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려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려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특별한 입장과 역할을 즉, 그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과 소명을 다시 상기시켜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아브라함으로선 앞에서 말한 대로 당장 조카 롯 가족을 포함하여 소돔에 있는 몇몇 아는 사람들이 걱정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에게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었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미리 찾아와서 그 계획을 통보해준 것은 그더러 당신에게 그들의 구원을 간구하라는 뜻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웠지 않는가? 그가 해야 할 중요 역할이 바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또 그 동안에 얼마나 그 일에게 열렸는지도 알게 해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었는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논쟁을 유발시킨 셈이다. 그더러 롯을 위해 진정으로 간구해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논쟁(기도?)을 계속하면서 깨달은 것은 소돔에는 의인이 자기 생각보다 훨씬 적고 어쩌면 열 명도 안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또 정작 중요한 깨달음은 그 다음이었다. “소돔이 저렇게 최악으로 관영하는 동안에 나는 무엇을 했는가? 복의 근원으로 세워진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인가?” 물론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회개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최소한 “조카 롯의 가족만은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었어야 하

지 않았는가?”라는 반성은 했을 것이다.

그가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친척인 롯을 두고 오지 못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명을 어긴 잘못이었다. 그러나 부모가 없는 조카가 삼촌을 따라 오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떼버릴 수는 없다.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가 한두 번 잘못된 것으로 당장 벌을 주시지 않는다. 잘못을 깨닫고 고치기를 바라며 기다려주신다. 필요하면 깨달아 회개하고, 나아가 스스로 고칠 마음과 여건까지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한마디로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버리라는 것이다. 그것들을 소유하거나 상종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자녀가 되어 세상 앞에 복의 근원이 되려면 하나님 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소망과 목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땅은 잠시 지나갈 광야이며 영원한 본향은 따로 있기에 나그네로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장막을 옮겨가며 살라는 것이다.

비록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롯을 떠나오지 못했지만 그 이후의 여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떤 분인지 조카에게 알게 해주었어야 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서 조카 또한 자기처럼 광야에서 장막을 치며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해야 했다. 조카와 의리를 상하지 않기 위해 서로 헤어졌지만 롯이 소돔 땅에까지 가서 사는 것은 말려야 했다. 소돔 땅에 가있더라도 자주 만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따르게끔 변화시켜야 했다. 어서 빨리 그 죄악의 땅에서 나오도록 권했어야 했다. 최대한 양보해서 소돔 땅에 있는 롯의 구원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했었어야 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대들다시피 했지만 차츰 줄여나가 마지막에는 10명까지 내려갔다. 열 명은 당시로선 한 가족의 숫자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소돔은 포기하고 롯 가족만이라도 구해보자는 뜻이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양보해준 것이 아니었다. 소돔에도 의인이 있다는 자기주장의 신빙성이 도무지 뒷받침되지 않자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먼저 양보한 것이다.

이 논쟁을 이어가는 과정 중에 그는 친구들은 둘 째 치고 조카 롯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자신이 한 일이 아무 것도 없다고 절감했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는 틀림없이 그간의 자신의 게으름과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 상황을 유추하며 성경을 다시 자세히 읽어 보라. 아브라함의 자신감은 갈수록 줄었고 하나님의 자비는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났지 않는가?

무엇보다 이 논쟁은 사실상 하나님 쪽에서 자청해서 시작되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소돔으로 가는 중도에 그에게 들리지 않고 바로 갔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었다. 결국 아브라함의 간구는 하나님이 시킨 것이었다.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당신께서 능동적으로 이루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 언약의 초점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는 데 있지 않았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려는 것이었다. 그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다른 사람들 앞에 당신의 빛을 전하려 한 것이다. 말하자면 아브라함더러 이제는 지금 것처럼 살지 말며 최소한 자기 주위의 가까운 사람 열 명에서 시작하여 오십명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의인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소돔에도 의인 50명이나 있다고 큰 소리쳤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너는 아직도 의인 열 명도 만들지 못했지 않느냐?”라고 깨우쳐

주신 것이다. 그가 받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로 다시 한 번 확실히 깨닫게 해서 복의 근원으로 굳게 세우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본문의 사건이 논쟁이라면 아브라함의 일방적 패배로 끝난 것이다. 지금껏 가르쳐온 대로 중보기도였다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지만 그의 마지막 간구가 의인 열 명이 있으면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멸망됐으니 말이다. 그 래도 조카 롯의 가정은 구했으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해석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롯이 의인이었어야 한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옆으 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옆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 셧더라.”(창19:20) 하나님이 롯의 구원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의인 이라 구해주었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 다만 아브라함이 뒤늦게나 마, 그것도 하나님의 강권 내지 선도적 유도에 따라 조카를 사랑 하는 마음을 아름답게 받으셨던 것이다. 롯의 구원은 그의 믿음이 나 상태와 아무 관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것이었 다. 또 그런 자비를 베풀기 위해 아브라함이라는 당신의 제사장 백성으로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도록 당신께서 다 계획 시 행한 것이다.

물론 베드로가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진술한(벧후 2:7) 만큼 롯에게 소돔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도덕성과 믿음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롯은 소돔 성에서 육신적 생명의 건짐을 받았을 뿐 영원한 구원을 얻을 만큼의 의인은 되지 못했다. 비록 천사를 구하려는 뜻이었지만 처녀로 정혼한 두 딸을 소돔 남성들이

강간토록 내주려 했다. 결국 취중에 의식은 없었지만 두 딸과 근친상간의 죄를 범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 모압과 암몬의 선조가 되었다. 마지막 순간에도 미련이 남아 소돔을 떠나기를 주저하자 천사들이 데리고 나갔다. 롯이 소돔에서 구원 받은 까닭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이고 또 단지 그의 육신만 구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정말로 롯을 의인이라고 여기고 자신의 간구대로 구해주셨다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면 소돔의 심판 후에는 롯을 찾아가 보았어야 했다. 아마 그는 하나님과 토론하던 마지막 순간에 가서 내심 롯의 구원마저 포기했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중에 롯과 그 가솔들을 의인이라고 판단하셨다면 충분히 열 명은 채울 수 있었을 것이다. 또 그러면 오던 길로 되돌아가든지 그 자리에서 소돔 멸망의 계획을 취소시켜야 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언급은 없고 소돔으로 “즉시 가시니”라고 한다. 이미 하나님은 소돔은 멸망시키되 아브라함 때문에 롯 가족만 구출해주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소돔에서 빠져나온 롯을 찾아가서 당신을 온전히 믿도록 가르칠 것까지 기대했을지 모른다.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했고 그 심판에서 구사일생한 롯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절호의 찬스였지 않겠는가? 그러나 성경에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갔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창18:33)고 기록하고 있다.

죄악이 관영한 남 왕국 유다를 심판하려 할 때에 하나님은 예

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렘5:1) 하나님은 예레미야 외에 의인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롯이라도 진정한 의인이었다면 소돔도 멸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지 않는가?

심지어 하나님은 의인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는 악한 성 니느웨를 구원하셨다. 어떻게 구원했는가? 땅 끝까지 도망간 당신의 백성 요나를 기어이 다시 불러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다. 의인은 죄인의 도성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보여야 한다. 만약 의인이 자발적으로 그리 하지 않으면 요나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시키신다.

노아와 아브라함은 당대에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긴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노아는 평생을 두고 조롱과 멸시를 당했지만 “오직 의를 전파”(벧후2:4)했다. 그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그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의 악행이 두렵고 자신을 향한 조롱과 멸시가 싫어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두 번이나 속였다. 조카가 “무법한 자의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고, 또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도록”(벧후2:7,8) 방치했다. 롯이 그 큰 심판을 보고는 얼마나 놀랐던지 성읍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산에 올라가 굴에서 살면서 아예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들판에서 장막 짓고 목축을 하다가 도회지 생활이 좋아 소돔으로 들어간 그였다. 도시를 선호했던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뉘우친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두려워 들판도 아닌 굴속으로 숨어들어가 버린 것이다. 그러나 롯의 인생은 땅을 치며 후회해도 이미 늦었고 그 마지막도 비참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에게 떼쓰듯이 롯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서 소돔에 갔어야 했다. 유황불이 떨어진 후에라도 찾아가서 생사 여부는 확인했어야 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무법한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의 의인을 찾고 있다. 이 세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 그분이 찾으시는 최후의 한 사람으로 서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주위에 그분을 증거하고 그 은혜를 나눠주어서 사람들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해주어야 한다. 말하자면 신자가 속한 공동체가 그 신자가 속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해야 한다. 신자는 자기 주위에 의인 열 명, 아니 최소한 단 한 명이라도 있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고 구원을 앞당길 책임이 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어떻게 한탄하셨는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나라.”(겔 22:30,31) 소돔 사건에 적용시키면 아브라함이나 롯이 그 땅에 가서 막아서지 못했기에 멸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신자들은 소돔 땅 같은 곳은 멀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자기 혼자 고상해져 천국도 혼자만 가겠다는 심보다. 하나님은 오히려 신자더러 소돔에 가라고 하신다. 소돔 같은 땅에 신자가 가서 막지 못하면 당연히 더 무너지게 마련이다.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이다. 한 명의 신자라도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는 방

도는 완전히 사라진다.

하나님이 요나더러 니스웨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막으라고 했을 때에 그는 “왜 내가 가야 합니까? 그놈들은 지옥 가도 쌀 놓들인 데요!”라고 원망했다. 그 말은 “빨리 니스웨를 멸망시켜 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박수치며 신나게 구경할게요.”라는 뜻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좌우를 분변치 못해 악한 니스웨 사람뿐 아니라 그 육축과 심지어 호박덩굴까지 아끼셨다.

신자들이 소돔 땅을 멀리하고 교회에만 모여서 성경공부, 기도회, 찬양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줄 것 같은가? 천만의 말씀이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숫군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 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겔3:18)이라고 했다. 소돔 땅은 심판 받겠지만 그곳에 찾아가 성벽을 막아서지 못한 엉터리 파숫군도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했다.

천국에서 할 질의 문답

신자는 세상 앞에 파숫군으로 부름 받은 자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모든 신자는 자기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단지 예수 잘 믿어 천국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도처에서 무너져 내리는 성벽을 막아서야 한다. 거창하게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다. 꼭 우상 숭배하는 미개지를 찾아가는 선교사가 될 필요가 없다. 가장 가까운 곳에도 무너지고 있는 성벽은 너무나 많다.

부부 사이에, 그것도 둘 다 신자인데도 서로 자존심 조금 상한 것 가지고 다투다가 빈번하게 헤어지지 않는가? 가정이라는 성의 벽이 무너진 것이다. 자녀에게 말로 상처 주어 열등감을 불러일으킨 적은 얼마나 많은가? 형제들 간에 돈 때문에 시기와 질투는 또 얼마나 심한가? 직장의 동료, 부하, 상사를 사랑으로 존경하고 섬기는가? 교회 안에서도 체면과 위신을 세우기 위해 낮 뜨거운 경쟁을 하며 추한 분쟁이 난무하지 않는가?

그 무엇보다도 아직 예수를 모르는 영혼을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라도 하는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이라도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어떤 모습이라도 쓰임 받기를 소원하고 실제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아니 나 자신의 내면과 심령에서부터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성벽은 없는가? 그사이로 죄가 스며들어 내 영혼이 소돔처럼 죄악이 관영하는 땅으로 변하지 않았는가? 성벽을 막아설 곳은 너무나도 많은데 제대로 막아서는 신자는 찾아보기 너무 힘들다. 신자들이 전부 어디에 가 있는가? 교회 안에서 종교 사업을 크게 벌려 자기 혼자 복 받으려고 정신을 못 차려 그렇다.

신자가 천국에 가면 틀림없이 본문과 내용은 똑같되 질문자와 답변자만 서로 바뀐 토론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신자에게 “네가 속한 성읍에서 네로 인해 의인 오십 명이라도 생겼는가?”라고 물을 것이다. 그럼 신자는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주여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오니 오십에서 오 인 부족함을 인하여 제 상급이 줄어들지는 않겠지요?” 그러다 자꾸 신자가 꿈무늬를 빼면서 열 명까지 내려갔지만 여전히 자신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천국에서마저 하나님과 신자의 만남이

그것으로 끝이 나고 각자 헤어져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론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이상 그럴 리는 없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은 틀림없다. 계시록에 보면 이십사 장로들이 천국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각 자가 가진 면류관을 그 보좌를 향해 던지는 모습이 있다.(계4:10) 그런데 혹시 면류관의 숫자가 이 땅에서 신자로 인해 바뀐 의인의 숫자만큼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신자는 오십 개나 던지는데 두서너 개 혹은 전혀 던질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지 않는 신자는 구원을 받되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어쩌면 정작 본인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에 성벽을 막아설 생각조차 못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실패로 끝나거나 낭비되는 법은 없으니까 말이다.

아브라함의 롯에 대한 인간적 애정은 틀림없이 상당했을 것이다. 본문의 경우 하나님께 간구하여 롯을 구해보려는 노력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위급한 경우가 닥쳐야 드리는 기도 하나만으로는 쉽게 그분의 역사가 열매 맺지 않는다. 그가 평소에 복의 근원으로 바로 서있을 때에만 롯을 구할 수 있다는 영적 진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로 깨닫게 해준 것이다. 이 문답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교훈이었다. 또 아브라함이 드린 간구의 실질적이고도 궁극적인 응답이, 정말로 그가 롯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면, 바로 그 깨우침이었다.

지금 혹시 당신과 연관이 있는 공동체를 심판하려는 계획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먼저 알려주려고 왔다고 가정해보자. 그 때에 당신이 하나님에게 보일 반응이 과연 어떠할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너무 두렵고 떨리며 도무지 할 말이 없어서 큰일 났다 싶을 것이다.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진의는 본문의 경우처럼

럼 심판보다는, 그렇다고 심판을 취소시킨다는 것이 아님. 당신더러 세상 앞에 진정한 의인으로 서있는 것임을 다시 깨우쳐 주려 오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위에 당신이 막아서지 않으면 무너져 내릴 성벽이 꼭 한 군데 이상은 있게 마련이다. 그냥 그런 곳을 찾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섬기면 된다. 그들의 성벽을 보수 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신자의 진짜 특권

신자가 믿음으로 정작 갖추어야 할 태도는 하나님께 끝까지 끈질기게 간구하여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일이 아니다. 기도란 그냥 응답될 때까지,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하면 된다. 기도는 신자의 믿음을 이어가는 호흡이다. 그저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 서두에 예를 든 대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대로 아뢰기만 하면 된다. 엄청난 고통이 닥쳐 죽기 직전이라고 여겨질 때에는 “주여! 주여!”라는 단 두 마디 고함만 질러도 된다. 신자란 기도하는 자요, 성전(교회)은 만민이 기도하는 전이다. 기도와 신자와는 따로 분리할 내용이 없고 덧붙일 가르침도 사실상 없다.

그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듯이 그 후손인 우리도 그와 동일한 신분과 특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언약을 하나님께선 너무나 신실하게 지키셨다. 정작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제대로 깨닫지도 실현하지도 않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 같이 그렇게 대우하

고 계신다.

그리고 절대 간과해선 안 될 사항이 하나 있다. 신자가 복을 받는 언약이 아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복을 주위에 나눠 주면 그 주위가 복을 받는다는 약속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창 12:3)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받는 대상은 땅의 모든 족속이다. 신자는 단지 그 복을 나눠주는 배달꾼이다.

그런데도 그저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는다고만 생각하면 나눠 주어야 할 복을 중간에서 가로채겠다는 짓이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신자가 횡령 내지 착복의 죄를 짓는 셈인데도 좋은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있고 심지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즉, 아브라함의 이 무참한 실패를 거울삼아 소돔으로 들어가 살지 않으면, 최소한 소돔 주민에게 경고의 나팔을 울리지 않으면, 신자로서의 빛과 맛을 완전히 잃을 뿐이다. 정작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야 할 복 즉, 주위에 나눠 주어야 할 복마저 못 받는다는 뜻이다.

나눠줄 복을 못 받는다고 해서 신자 자신이 받을 복은 그래도 계속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해선 안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사항이다. 복을 나눠주는 자의 신분과 위치에서 자신이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사실을 모른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취소는 없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치 불신자와 같은 입장에 서게 된다. 나눠주지 못하면 나눠 받는 자의 신분이 되기에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복이 당분간 중지 된다. 쉽게 말해 위로부터 받기만 하고 밑으로 나누지 않으

면 당연히 더 부어줄 여유가 없어질 것 아닌가? 또 그대로 고여 있다가 썩기 마련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눠 주지 않음은 자신만 차지하겠다는 뜻이다. 바로 그것이 신자의 죄와 정욕이다. 또 신자의 경우 직접적인 도덕적 타락보다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일시적으로 막는 장벽이 된다. 바꿔 말해 신자는 불신자와는 도덕적 성찰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죄를 짓지만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 반성은 불신자의 몫이다. 신자는 이웃에게 선을 자발적 능동적으로 베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은 것과 하나 틀림없는 말씀이다.

신자는 자신의 도덕적 죄와 물질적 탐욕만 제거하면 된다고 쉽게 판단해선 안 된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주위에 나눠주라는 언약 가운데로 완전히 들어오지 않으면 그분의 은혜는 절대로 충만하게는 채워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신자가 범하는 죄와 정욕의 본질은 그 언약 안에 완전히 들어서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기에게 머물게 하는 것이다. 신자가 되고 난 뒤에는 대놓고 도덕적 죄를 짓겠다고 하는 자는 사실상 거의 없다. 단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 자기만의 복을 더 받겠다고 설치하는 죄는 있을지언정 말이다.

믿음이란 자신이 영원토록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도 놓치지 않는 실력이다. 그래서 그 언약대로 헌신, 순종, 실천하는 삶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 무너진 성벽을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자만이 갖는

진정한 특권이자 지상 최고의 복이다. 하늘에서만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부터 미리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길이
기도 하다.

비전을 크게 품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 신자가 품을 비전에 대한 오해

“우리가 가진 오직 하나의 소명은 하나님 존재와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다.”

- 프란시스 쉐퍼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살아있는 기념물이 되기 위해 사는
것이다.”

- 오스왈드 챔버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끈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꾸즉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끈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창37:5-11)

모세의 비전(vision)

성경의 인물 중에 모세만큼 특이한 일생을 보낸 자도 드물다. 총 120년을 살면서 초반 40년은 자기 민족의 대적이자 이교도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 화려한 삶을 누렸다.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중반 40년은 졸지에 살인범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자기 민족과 키워준 나라 둘 다에서 버림받고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쓸쓸한 패배자로 지냈다. 종반 40년은 하나님과 맞대면 하여 그분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으며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인도자로 보람차고도 영광스럽게 보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은 비장하고 안타깝기만 하다. 평생 동안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자기 혼자만 들어 가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것도 광야에서 물을 달라고 계속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서 딱 한 번 화를 냈었던 일 때문에 말이다.(민 20:1-13)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와 종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신34:1,4,5)

그럼 그의 인생은 실패로 끝났는가? 그렇지 않다. 완전히 성공한 인생이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

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신 34:10)라고 성경은 그를 평가하고 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웅이자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유대인은 하나님 약속대로 메시아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신18:15, 18)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기에 예수님과 비견되는 영광을 누렸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출3:10)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커다란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자기 개인의 영달과 상관없이 그 소명을 결국 완수했다. 마지막 순간에도 약속의 땅을 직접 보면서 수일 내에 사랑하는 동족이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을 그려보며 넘치는 위로와 평온과 만족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신 여호와를 만나 구체적 소명을 받기 전부터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꿈을 키웠다. 우선 생모에 의해 양육되었기에(출2:7-10) 애굽 궁정에 있어도 언약 백성인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졌다. 애굽 왕 바로가 유대인 신생(新生) 남아(男兒)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음에도 기적적으로 살아난 경위와, 도리어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된 배경을 다 들었다.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소망 즉, 여호와 신앙도 생모에게서 물려 받았음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출”(출2:11,12) 수는 없지 않겠는가? 최소한 자기를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뇌했고 또 그런 위치를 이용해 동족을 도우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을 받기 전이라 인간적 의분과 수단과 능력으로 동족을 도우려 했던 것이 문제였을 뿐이다.

그 첫 시도는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살인범이 되어 처량하게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 동족으로부터도 동포의 고역과는 상관없이 궁정에서 호의호식하는 자로 간주되어 버림받았다. 공식적으로는 애굽의 수배현상범이 되었다. 그 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보낸 40년을 어떻게 보냈겠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여 바로의 궁정에 보내어 놓고도 첫 시작부터 아무 일도 못하게 막은 이유와 자기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자 몸부림치는 시기였을 것이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쯤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명확한 응답이 없어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허비되나보다 거의 포기하는 단계였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80 노인이 되기까지 마음 한 구석으로 동족에 대한 책임감을 떨쳐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그의 전 평생은 하나님께 꿈을 받아 그 꿈을 이루려고 완전히 바쳐졌다. 모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꾸며 실천한 자였다.

요셉의 꿈(Dream)

그런데 지금껏 교회에선 엉뚱하게도 요셉을 꿈을 꾸는 사람 즉,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을 이뤄낸 자의 대표로 가르쳐져 오고 있다. 요셉의 경우는 모세와는 전혀 달랐다. 그가 꾸 꿈은 문자 그대로 꿈(dream)이었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서의 꿈(vision)이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꿈에 대한 정의(定意)부터 정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장 보편적이고도 문자적인 의미로 사람이 자면서 자기도 모르게 꾸게 되는 꿈(dream)이 있다. 자는 동안 무의식의 상태에서 사고 활동을 계속한 것이 깨고 나서도 기억에 남은 것이다.

꿈의 두 번째 의미는 자기가 이루고 싶은 소망이다. 한국 월드컵 때에 “꿈은 이뤄진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큰 인기를 끌었다. 최초로 세계 16강에 진출하려는 전 국민의 염원을 한 마디로 나타낸 말이다. 자기 소망을 이뤄가고 또 이뤄진 모습을 혼자 연상하는 것이 마치 자면서 꿈꾸는 내용이나 모습과 비슷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 같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와 비슷하지만 신자들의 경우에 한해 하나님이 심어주는 꿈이 있다. 신자의 삶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일을 하면서 증거할 것인 지는 하나님이 주신 꿈에 따라야 한다. 불신자의 삶이 자기의 소원을 자기가 이루는 것이라면, 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분의 소원을 평생에 걸쳐 그분과 함께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말로는 이 셋 다 ‘꿈’이지만 혼동을 피하려면 각기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면서 꾸는 꿈은 문자 그대로 ‘꿈(dream)’,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자기 인생에서 이루고자 스스로 세운 계획은 ‘소망(hope)’, 하나님이 신자에게 심어준 소명은 ‘비전(vision)’이라고 구별해보자.

첫째 의미인 ‘꿈’에는 그 날 혹은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한 자신의 평소 생각과 감정 등이 반영된다. 그래서 “그 일을 내가 꿈에서까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구나!”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스스

로는 알 수 있다.

꿈은 자기 지정의를 의도적으로 통제 하지 않은 일종의 무의식 상태에서 꾸게 된다. 무의식 상태에선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신비한 현상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스토리가 뒤죽박죽으로 연결이 전혀 되지 않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환상(fantasy), 흔히 말하는 개꿈도 자주 꿀 수 있다.

반면에 줄거리가 명료하게 기억나면서 미래의 특별한 일에 대한 징조(sign) 내지 경고(warning)로 여겨지는 꿈도 있다. 가끔 꿈꾼 것과 동일한 사건이 현실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그런 특별한 꿈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미리 대비하여 조심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징조 내지 경고를 주는 꿈에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다. 꿈에 돼지나 용을 보고 복권을 샀더니 당첨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일을 결코 돕지 않는다. 불신자가 사탄이 주는 꿈을 꿀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통해 징조와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요셉이 꾸는 꿈이 바로 그런 류로 하나님이 장래 일어날 일을 미리 징조 내지 경고의 뜻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요셉은 스스로 큰 소망을 품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체적인 비전을 키운 것도 아니었다. 모든 장래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 소관 아래에 있기에 그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실 당신의 일을 꿈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요셉 본인으로선 그런 징조나 예표를 그저 단순한 꿈으로, 아니면 미래에 그런 비슷한 일이 어찌면 일어날 수도 있겠거니 정도로 여겼을 뿐이다. 그가 그 꿈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확신하고서 그 꿈을 성취하려고 노력한 적은, 아니 그럴 의도도 전혀 없었다.

만약 정말로 그가 형들을 다스리는 왕이 될 큰 꿈을 꾸었다면 아무리 어려서 철이 없어도 형들에게 선뜻 꿈 이야기를 해서 지레 미움을 사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록 전후 판단력이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이미 열일곱 살이나 되었다. 하도 신기한 꿈인지라 단순히 자랑 반 호기심 반으로 이야기 한 것뿐이었다.

그런데도 지금껏 마치 요셉이 하나님의 큰 비전을 품고 살면서 그것을 이뤄낸 믿음의 영웅으로, 그것도 세계최고 강국이자 이국 땅에서 노예 신분외국인이 총리대신까지 올라갔다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잘못 소개되어 왔다.

비전과 소망의 차이

하나님의 뜻은 당신 쪽에서 먼저 보여주지 않는 한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 비유컨대 아버지가 어떤 물건을 주먹 안에 움켜쥐고 있으면 한두 살짜리 아들은 아무리 젓 먹던 힘까지 동원해도 그 속을 들여다 볼 수 없다. 아빠가 스스로 손을 펴주어야 그 속에 동전 혹은 사탕이 들었는지 비로소 알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당신께서 먼저 인간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계시(啓示 revelation)다.

계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신자에게 전달된다. 기도, 성경 말씀, 환경, 성도들의 권면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거나 환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물론 꿈도 그 통로 중의 하나이며 특별히 요셉에게는 꿈을 계시의 수단으로 자주 쓰셨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는 것은 소망이다. 소망을 확정하면 그것을 이룰 방법과 일정도 스스로 정하여 자기 책임 하에 이루려 노력한다. 하나님이 한 신자에 대한 평생의 계획을 갖

고 계시다면 그것을 이뤄나가는 일정과 방법도 당연히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다. 자기가 소망한 적이 없는 그 꿈을 요셉이 스스로 이뤄나갈 수는 더더욱 없었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정작 본인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한 개인에게도 시기와 여건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가르쳐 주실 수 있다. 한 번에 음성으로 구체적으로 다 들려주는 법은,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식이지만, 거의 없다. 점진적으로 구체화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처음에는 막연하고도 우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가 차츰 특정한 한 쪽 방향으로 그 범위를 좁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라면 반드시 당신께서 구체화(具體化 visualize)시키는 작업을 하신다. 그 구체화된 하나님의 계획을 신자가 최종적으로 인식하고서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따르면 비로소 비전(vision)이 된다. 그 비전은 필연적으로 신자 개인의 평생의 소망으로 탈바꿈한다. 때로는 그 반대로 신자가 기왕에 갖고 있던 개인적 평생의 소망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면 일시적 혹은 점진적 계시를 통해 반드시 신자 본인의 확신과 헌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모세의 첫 80년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동족을 위해 자신이 맡을 어떤 역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탐구하는 시기였다. 드디어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은 그 가 맡을 소명을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었다. 그 일을 함께 이를 동역자(아론)와 수단(지팡이)까지 가르쳐 주었다. 그의 개인적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전환된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난 80년 동안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있어 왔지만 최종적으로 가시화 되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모세 개인의 소망이 일체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 쪽에서 신자에게 심어준 것이어야 한다. 소명을 받은 자도 앞으로 자기가 이루어야 할 그분의 일을 시각화(visualize)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이 심어준 비전이라면 궁극적으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당신께서 결실시킬 것이다. 모세도 마음에 비전으로 품고 있던 가나안 땅을 마지막 죽는 순간에 멀리서나마 직접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 평생의 비전이 달성된 것이다.

반면에 요셉에게는 모세처럼 개인적으로 씨름하며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분의 뜻을 묻고 따르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 말하자면 애굽 총리가 되어 애굽 백성과 동족을 기근에서 건져내고 자신의 형들로 자기를 둘러싸고 절하게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생각지도 않은 일을 실현하려고 준비하고 노력할 수는 없다. 한 마디로 그는 개인적인 소망만 갖고 있었고 또 그 소망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뤄지기만 기도했던 자였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실현해 나간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왜 그런지 자세히 따져 보자.

살인 모의를 부른 꿈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난 첫 아들이었다.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선 열한 번째이지만 사실은 첫째와 같은 아들이었다. 야곱은 장자에게나 입혀야 할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렇게 자란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만 믿고 형들의 잘못을 아비에게 고자질이나 하는 철없는 아우였

다.

옛날에는 십칠 세 쯤 되면 어른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다. 상식적으로도 형들의 잘못을 눈감아 주거나 아니면 함께 동참할 나이다. 아버지에게 고자질이나 할 정도였다면 얼마나 철부지였는지 짐작이 간다. 형들이 양을 칠 때에 저지른 과실이라고 해봐야 그리 큰 죄도 아니었을 텐데도 그랬다.(창37:2) 그러니 형들의 눈 밖에 난 지 오래였다. 그런 지경에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두 번이나 자랑했으니 얼마나 더 미웠겠는가? 요셉을 편애 하는 아버지 야곱마저 참다못해 꾸짖었다.(창37:10)

그 사건을 두고 성경은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창37:11)고 기록하고 있다. 형들이 시기한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인생과 신앙 연륜이 깊은 야곱으로선 예상롭지 않은 꿈을 두 번씩이나 꾸었기에 뭔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생각했던 것이다. 다른 아들들을 생각해 요셉을 야단은 쳤지만 안 그래도 그를 가장 사랑하는 참이라 내심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마저 했을지 모른다.

반면에 성경은 요셉의 반응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거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 밖에 없다. 너무 철부지인지라 그런 꿈을 꾸는 것과, 형들에게 떠벌인 것과, 나아가 아버지에게서 야단맞은 것, 모두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당장에는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 것도 아닌 양 잊어버렸다는 뜻이다. 아니면 어차피 처음부터 자기는 형들을 다스릴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너무나 지당한 꿈으로 치부했던지...

아무래도 후자일 가능성은 없다. 요셉의 꿈을 형들은 시기했고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지만 그는 별무반응이었다. 요셉을 제외한 모든 식구가 그 사건을 두고두고 기억했는데도 말이다. 만약 요셉

스스로 그 꿈을 자기 소망이나 비전으로 받아들였다면 성경이 그의 반응에 대해 침묵할 리는 없다. 최소한 어떤 단서라도 기록했어야 했다.

말하자면 요셉은 이때까지도 자기 인생에 대한 청운의 푸른 꿈조차 전혀 꾸지 않았다. 최대한 양보하여 만약 그에게 그 두 꿈이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을 미리 계시해주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해도 대놓고 자랑할 수준밖에 안되었다. 아니면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 그 당시에 이미 그 꿈대로 형들이 자기에게 꿈작 못하고 있다는 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든지 말이다.

그러다 드디어 요셉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야콥이 요셉더러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자꾸 자기들 과실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는 것이 싫어서 그랬는지 잘 찾아오지 못하게 평소가던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 양을 치고 있었다.(37:15-17) 그런데도 기어이 그곳까지 찾아오는 요셉을 보니 얼마나 더 미웠겠는가?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18,19절)

성경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근본 이유가 오직 그 꿈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엉터리 같은 꿈이나 꾸면서 매번 잘난 척하는 미운 동생을 이참에 아예 그런 꿈조차 꾸지 못하게 죽여 버리자고 모의했다.

나아가 양을 칠 나이가 훨씬 넘었는데도(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의 나이를 13살 정도로 추측하는 것과 비교해보라) 자기들을 감독만(?)하게 하는 아버지의 의도가 미심쩍었다. 채색 옷은 단순히 총애하는 표시를 넘어 장차 그에게 장자권을 물려줄 것이라는 야곱의 무언의 시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말하자면 미리부터 요셉의 장자 됨을 기정사실화해서 다른 아들들이 나중에 반발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동생들의 살인 모의를 들은 장자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고 대신에 구덩이에 던져 넣자고 설득했다. 장자였기에 속으로는 요셉을 가장 미워했을 수 있지만 그가 나서서 죽이자고 하면 다른 형제들에게 장자권 때문에 그랬다는 오해를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성경은 그 이유로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고 말하고 있다. 그로선 장자의 책임을 다한 모습을 아비에게 보여 신임을 회복하려 했던 것 같다. 르우벤은 아비의 첩이자 자신의 서모인 빌하와 통간하여 야곱의 눈밖에 완전히 벗어나 있던 참이었다.(창35:22)

넷째 아들 유다도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는 대신에 마침 지나가던 미디안 상고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기로 제안했다. 아버지 편애만 믿고 철없이 설치는 배 다른 동생이 밉기는 모든 형제들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같은 아비를 둔 형제를 직접 죽이려니 아무래도 내키지 않았던 것이다. 요컨대 이때까지도 요셉과 그 형제들과 야곱은 그 꿈을 단순히 장자권 다툼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했을 뿐이다.

요셉의 거듭남

이런 살인 모의를 옆에서 꿈쩍 없이 듣고만 있다가 결국에는 구

덩이에 던져 넣어진 요셉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처음에는 굉장히 당혹하고 의심했을 것이다. 도대체 형들이 하는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분간이 안 갔을 수 있다. 어쩌면 요셉을 멀찍이 떼어 놓고 형들끼리만 모의했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이 아무리 어렵도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과 절대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정도는 본능적으로 감을 잡고서 불안에 잠겼을 것이다.

차츰 불안의 강도가 심해지다가 구덩이에 던져 넣어졌을 때에 얼마나 참담하며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겠는가? 혼자서는 절대로 빠져 나올 수 없고 지나가는 사람조차 하나 없는 광야 한복판의 깊은 구덩이였다. 이제 꿈쩍 없이 굶어 죽게 생겼고 살아날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다는 정도는 아무리 철없던 그라도 충분히 깨달았을 것이다.

공포는 곧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곰곰 생각해봐도 현실적으로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받아들이려는 체념이 서서히 밀려들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그 동안 형들에게 저질렀던 일이 얼마나 그들의 분노를 사는 철부지 짓이자 잘못이었는지 비로소 뼈저리게 후회했을 것이다.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실 날 같은 소망을 안고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간구했을 것이다. 그렇게 진정으로 절박하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려보기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었을 것이다.

그 구덩이에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도 공포, 분노, 회개, 하나님에 대한 간구 등, 온갖 복잡다단한 감정과 상념이 교차하면서 절망의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 쳤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밧줄이 내려와 형들이 자기들을 끌어 올리는 것이 아닌가? 살려주려나 보다 당장 고마워하기보다는

위로 끌어올려져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닌지 더 큰 의심과 불안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결국 이방 족속에게 노예로 팔리게 되자 모르긴 몰라도 바지에 오줌이라도 살 만큼 그 동안의 극심했던 긴장이 풀렸을 것이다. 형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지는 않았겠지만 우선 목숨이라도 건졌다는 안도감에서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응답 되었음에 너무나 감사했을 것이다.

차츰 안정을 되찾아 제 정신이 들자 앞날이 크게 걱정되었을 것이다. 집안에서 막내로 험한 일은커녕 양치는 일도 하지 않고 아무 걱정 없이 지내다 갑자기 노예 신세로 전락했다. 그것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에서 말이다. 고향땅을 등지고 미디안 상고를 따라 남쪽으로 가면서 형들의 모습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눈물이 앞을 가렸을 것이다. 아버지 총애만 믿고 형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까불었던 지난 세월이 너무 후회되었지만 이미 었질러진 물이었다. 이제는 정말로 붙들 것이라곤 온 천하에 하나님 한분 말고는 없었다.

말하자면 바로 그 때에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졌던 것이다. 철부지 막내아들에서 험한 세상 풍파를 스스로 맞서 싸워야하는 한 사람의 온전한 성인으로 거듭났다. 주일 학교에서 배우는 착하면 상주고 죄지으면 벌주는 수준의 하나님은 사라졌다. 생사(生死)가 걸린 절대 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났다. 순전하고도 온전한 순종으로 자기 전부를 바쳐야 할 그야말로 살아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아버지 야곱이 베델에서 절망의 나락 가운데서 만났고 또 압복 강가에서 밤새 씨름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들 요셉도 비로소 직접 대면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지 않는가? 아버지 야곱은 자기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노예 같은 생활을 20년 넘게 했다. 그 아들 요셉은 장자권을 이미 차지한 양 형들을 우습게 알았다가 애굽으로 17살에 노예로 팔려가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되는 30살까지 13년의 노예 생활을 했다.

아버지의 잘못으로 아들이 벌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다. 다했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잘못을 범했다. 동일한 죄를 동일한 방법으로 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공의가 놀랍지 않는가 말이다. 야곱이 요셉을 총애한 것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첫아들일 뿐 아니라 이처럼 바로 자기를 가장 많이 빼앗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도덕적 하자가 있는 야곱을 당신의 장자로 택하여 그 인생을 거둬나가게 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선조로 삼으셨다. 이제 철부지 아들 요셉도 죽음을 뛰어넘는 당신의 권능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당신의 장자로 거둬나가게 하셨다. 애굽 총리가 되어 동족을 기근에서 구출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예표가 되게 하셨다. 신자는 요셉이 꿈을 이룬 사실을, 정작 스스로 이룬 것은 하나도 없으니 부러워할 것은 전혀 없다. 요셉을 통해 한 치의 오차 없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 앞에 더욱 겸손해져야 한다.

요셉의 개인적 소망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 있을 동안에 가졌던 개인적인 소망이 무엇이었겠는가? 한번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겨우 17

살에 이방 땅에서 천애고아가 되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 노예로 팔려갔다. 그럼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무엇을 소망하여 간구하겠는가? 당연히 고향 땅에 있는 부모에게로 무사히 돌아가는 일 아니겠는가? 또 그러기 위해선 이국땅에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안전하게 유지할 것인지가 가장 긴급한 과제가 되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생존과 귀향이라는 절실한 두 제 목만을 두고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물론 그의 믿음은 이제 상당히 성숙해진 상태였다. 미디안 상고의 낙타를 타고 애굽으로 향하면서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며 얼마나 많이 회개했겠는가?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이 밍진 해도 노예로 팔려 가느니 그들에게 구박을 받으며 함께 있는 것이 훨씬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절실히 깨달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인생에는 이런저런 예상 밖의 크나큰 곤경이 닥칠 수 있지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진리도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 그 힘든 고난을 잘 견뎌내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다. 애굽에서 총리가 되겠다고는 계획은커녕 꿈도 꾸지 않았다. 만약 고향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형들에게 저지른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그들이 자기에게 행한 잘못도 너그러이 용서하며 부모에게 정말로 효도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의롭게 살기로 결심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려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자기 인생이 그 꿈과는 정반대로 진행되어가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형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했고 기약 없이 타국에 노예로 팔려갔다. 당연히 그 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꿈이 뜻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그 궁금증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겠지만 그냥 평생토록 풀지 못할 숙제로 마음 한쪽 구석으로 밀어놓았을 것이다.

그는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면서 이렇게 신신당부했다.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 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창40:14,15) 자기에게겐 죄가 없으니 제발 옥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호소였다. 불행히도 관원은 그 부탁을 잊어버렸다. 요셉은 옥에서 나가기를 계속 간절히 기도했겠지만 아무 소식 없이 세월만 흘렀다. 실망이 점차 절망으로 바뀌어 갔을 것이다.

그러다 만 2년 후에 꿈꾸는 자 요셉조차 정말로 꿈도 꾸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그야말로 그저 굴러들어온 복이었다. 애굽 왕 바로가 거꾸 두 번 꾀 이상야릇한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것이다. 그때서야 술 관원장이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을 기억해내어 바로에게 천거하였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대신으로 발탁되는 행운(?)을 잡게 되었다. 비유컨대 어느 날 갑자기 슈퍼로토에 걸리는 대박이었다.

인간이 스스로 계획하여 노력한 일이 아니라면 그 배경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뜻이다. 만약 술 관원이 복직하자마자 요셉을 옥에서 꺼내어 고향으로 돌려보냈다면 애굽의 총리대신 요셉은 역사상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요셉이 더 낮아지

기를 원하셨다. 정말 완전히 깨어져 자신의 모든 욕심을 버리는 단계에까지 이르도록 기다리셨다. 그 때쯤의 요셉은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살든지 죽든지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따르겠다는 전적인 헌신의, 어쩌면 포기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임, 단계에 이르렀을 것이다. 조부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의 종국에 자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또 아비 야곱이 압복강 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평생 모든 모든 재물을 형 에서에게 주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소원했던, 바로 그런 자리에까지 낮아졌던 것이다.

모든 전후 상황을 살펴 보건대 요셉이 자신의 소망이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든 애굽의 총리가 되려는 꿈을 품고 그것을 이루려 노력한 적이라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도 왜 지금껏 요셉을 꿈꾸는 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뤄낸 자라고 가르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는 단지 고향에 돌아갈 개인적 소망만 갖고 있었고 하나님께 그 소망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한 것뿐이었다. 어렸을 때 꿈도 하나님 쪽에선 요셉에 대한 당신의 계획이었을지라도 막상 요셉에게는 그냥 꿈이었을 뿐이다. 그에게겐 나이가 근 40이 되도록 즉, 20년이 넘게 도무지 풀 수 없었던 수수께끼였을 뿐이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신 요셉의 인생

요셉의 아비 야곱도 아무 기약 없이 혈혈단신으로 고향을 등져야 했던 적이 있었다. 너무나 낙심해 있을 때 꿈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

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찌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창28:15)

꿈에서 깬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했다. 그는 비록 장자권을 차지했지
만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을지 걱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또 고향으로 되돌
아오게 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받았다. 이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
든지 자기만 온전한 믿음 위에 서있으면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라곤 없었다. 또 그런 믿음이 야곱으로
그 오랜 기간의 험한 고생을 견딜 수 있게 만들었다.

요셉이 꿈꾸었던 사건에서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버
지 야곱이 베델에서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듯이 그 아들도
어렸을 때에 꿈으로 그분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뿐이다. 야곱의 경
우는 하나님이 직접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해주었다. 그러나 요셉의
경우는 오직 그림으로만 보여준 계시였다. 그 그림이 너무 선명해
서 뜻은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지만 당시로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 후 현실은 꿈과 완전 반대로 진행되
었다.

인생에서 가장 우연하게 일어난 것 같은 사건일수록 사실은 하
나님의 섭리가 가장 많이 작용된 것이다. 우연의 요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노력이 적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애굽에서 정
말 기막힌 우연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대신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을 뿐이다.

총리가 된 요셉으로선 말은 일 때문에 당장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언젠가 잘만하면 돌아갈 수 있는 위치에는 올랐다. 틀림없이 바로에게 큰 공을 세운 후에 그 보상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구실로 삼을 참이었을 것이다. 여전히 멀리 가나안에 있는 부모형제를 오매불망 그리워했을 것이다.

요셉의 그 소망에 부응할 하나님의 놀랍고도 오묘하며 무엇보다 완벽한 섭리가 이미 아주 정교하게 마련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정말로 우연찮게 꿈에도 잊지 못하던 형들이 곡물을 사려고 자신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나타났다. 그의 심경이 어땠겠는가? 그야말로 필설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 미묘하지 않았겠는가? 반가움, 미움, 안타까움, 통쾌함, 복수심, 죄책감, 향수, 기쁨 등 온갖 감정들이 뒤섞였을 것이다. 그 때 비로소 어렸을 때의 그 꿈이 다시 떠오르면서 그 꿈대로 뭔가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처음으로 어렴풋이 깨달았을 것이다.

파란만장했던 자기 인생의 수수께끼에 대해 최종적으로 요셉이 얻은 해답은 아래의 성경구절에 다 녹아져 있다. 하나님이 자기 일생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셨고, 꿈으로 보여주셨고,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뤄내셨다는 것이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자기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에 한 도구로 쓰였을 뿐이었다. 그토록 원망을 퍼부었던 형들도 하나님이 마련한 각본에 출연한 훌륭한 조연배우들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창45:5,7,8)

하나님의 너무나 엄청난 계획과 세밀한 섭리의 틀 안에서 요셉은 형들에 대한 모든 지난 원망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형들이 가졌던 죄책감도 오묘한 하나님의 간섭으로 서로 용서하고 회개하며 씻을 수 있었다. 이제 그 형제들 사이에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만이 남게 되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깨끗케 된 마음과 견고해진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했다. 그들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우두머리로 삼기 위해서였다. 아비 야곱이 베델에서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꿈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때 함께 재확인된 그분의 언약이 지금 이들 열두 아들을 통해 이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참이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찌며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창28:13,14)

야곱에게 주신 이 언약을 요셉이 마지막으로 한 고백과 비교해 보라.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다”고 했다.(창45:8)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 목적은 자기들 가문을 땅의 티끌같이 만드셔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자기로 그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게 한 것, 그 꿈을 철없이 형들에게 자랑한 것, 그래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다 노예로 팔아버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그분께서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것이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한 자도 하나님이며, 심지어 그것을 자랑삼

아 발설케 해 온갖 곤경을 겪게 한 자도 하나님이였다. 요셉이 자신의 비전을 간직해 실현한 것이 아니다. 그는 단지 꿈을 잘 꾸는 아버지를 닮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뿐이다. 그 계시를 받은 이후에도 그 계시를 해석하여 그대로 따르려 한 적이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에 주인공을 발탁되어 그분의 연출대로 그 인생이 진행된 것뿐이다.

서두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큰 비전을 받아 그 비전을 이루려 평생을 두고 노력하다가 결국 이룬 자의 대표는 오히려 모세다. 요셉을 통해 배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이후로 그분의 원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해도 전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순전한 믿음이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며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한 번에 한걸음씩 그분을 따라 걸어갔던 삶의 실제적 모습이다. 큰 비전을 품고서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물리치고 기어이 큰일을 이뤄낸 모습이 아니다.

신자라면 밤에 무의식적으로 꾸는 꿈(dream)과, 개인적으로 자기 일생에 대해 세운 소망(hope)과,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일꾼으로 쓰려고 구체적으로 보여준 그분의 계획인 비전(vision)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꿈이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뜻을 계시해 줄 수 있고 경고의 사인을 보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해석은 정말로 신중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 자기를 향한 당신의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진정으로 소원하고 간구해야 한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시각화 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 전까지는 신자만의 소망의 단계에 머무를 수 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요셉처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절대적 순종의 자세로 기도하며 의롭게 살아야

만 한다. 그러면 신자가 처음에는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가도 하나님께서 차츰 당신의 계시를 보고 들려주어 깨닫게 해주시어 신자의 소망과 일치시켜 주신다. 실제 삶에서도 그 소망이 점점 더 구체화 되어서 결국에는 신자에게 확고한 비전으로 심기어진다. 그 후로는 신자가 전적으로 헌신만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과 섭리로 그 비전을 가시화 현실화시키기 시작한다.

자기 소원을 종교적 덧칠을 하여 크게 키운다고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니다. 또 비전이 아닌 개인적 소망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뤄주신다는 법도 없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과 방법대로 진행되어져 갈 뿐이다. 신자는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신실하심만을 믿고 무엇을 먹든 마시든 그분의 영광이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만 소원하면 된다.

그러면 종국에 가선 요셉이 인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로 이런 영광스런 자리에 이르게 하려고 그 모든 고난을 허락하셨군요. 이전에는 이해도 안 되고 오히려 불평과 불신만 생겼지만 정말 지나간 고난의 길이야말로 저에게 가장 유익했던 길이자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비전의 여정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그 비전을 위해서 저더러 죽으라면 얼마든지 기꺼이 죽겠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주문을 외우지 말라.

- 신자가 가질 믿음에 대한 오해

“당신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다면 당신을
제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 헨리 블랙카비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밖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 A. W. 토저

“사십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 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 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민 13:25-33)

보고와 평가의 차이

한 이상한 사장과 여비서가 있었다. 사장이 외출하고 돌아오자 비서가 “김일성인가 김정일인가 하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사장님더러 전화를 해달라고 했던가? 본인이 다시 전화 한다면가 했는데요.”라고 보고 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그런 엉터리 같은 보고를 듣고도 사장이 “응! 그래. 알았어.”라고 대답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하고 어떻게 알아먹었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이처럼 한국인들은 대체로 말이나 사고에 논리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데도 서로 말이 잘 통하는 것을 보면 신기할 정도다. 사장이 그 여비서를 야단치지 않은 이유는 그 때쯤에 누가 어떤 내용으로 전화했으리라는 것을 스스로 짐작해 판단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습성이 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적용된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둘째 치고 이야기처럼 기록된 객관적 사실조차 자기 짐작으로 얼렁뚱땅 판단하고 치운다. 대부분의 신자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애굽에서 사백 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구원해 내셨다.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은 젃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첫 관문 가데스바네야에 도달했다. 본문은 모세가 열 두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탐지케 한 결과를 보고 받는 장면이다.

그런데 본문과 그 후의 결과를 대부분의 신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열 명의 정탐꾼은 보고를 잘못하여 하나님의 벌을

받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대로 보고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열 명의 보고는 엉터리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가나안의 거민은 네피림 자손 같이 강했고 성읍은 견고했고 산지와 해변과 들판에 물샐 틈 없이 포진하고 있었다. 그들 성읍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약하고 거민은 작고 방어 상태가 형편없지 않았다. 있는 사실을 부풀려 과장하지 않았고,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서 보고하지도 않았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들의 보고에 대해 단 한 번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 32절에 열 명이 “그 탐지한 땅을 악평(惡評)하여 가로되”라고 기록된 것은 무슨 뜻인가? 말 그대로 보고가 아니라 평가다. 보고는 적군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평가는 적군과 아군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여비서의 예로 다시 비유하자면, “사장님이 안 계실 때에 김일성이라는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사장님 안 계신다고 말하자마자 용건을 묻기도 전에 끊어버렸습니다”라고 하면 아주 정확한 보고를 한 것이다. 그 후에 “그런데 그분의 말투를 보나, 용건을 묻기도 전에 끊은 것을 보니 성격이 아주 급해서 아마 곧 다시 전화할 것 같은데요.”라고 덧붙이면 평가다.

열 명의 정탐꾼도 32절에서 “악평하여 가로되”라고, 이미 보고했던 내용에 평가를 덧붙였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매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33절)는 분명 보고가 아닌 평가이지 않는가?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 분석했더니 자기들은 완전히 고양이 앞에 쥐 꼴이었다는 것이다. 도저히 게임이 안 되고 아예 해보나 마나 하는 싸움이라는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런 평가를 들은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자 위로 격려를 하려 했지만, “아니다. 저들은 약하고 숫자도 적다. 우리가 강하고 많다”라는 식으로 보고 자체를 수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민14:8-9 참조)라고 그 평가만 다르게 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지금껏 본문을 두고 보고와 평가를 정확히 구분해서 살펴보지 않았다. 열 명은 단순히 보고 자체를 아예 잘못된 자로 취급 받아 왔다. 마치 없던 일이 있거나 있는 일도 없는 양 허위로 조작했거나, 또 있긴 하되 과대 포장해 사실상 거짓 보고를 한 것처럼 간주했다.

그렇게 된 이유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믿음을 그들은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본받아 어떤 대적과 환난이 닥치더라도 겁을 먹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군하라”고 권면한다. 그래서 신자가 현실을 세상 지식과 정보로 분석하거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해결책을 도모하면 아주 비신앙적인 행태인 양 몰아붙인다.

말하자면 매사를 완전히 믿음 만능주의로 몰고 간다. 무엇이든 인간적 수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그분이 반드시 이루어준다고 믿어야 한다는 뜻이다. 환난이 닥쳐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면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간주한다. 신자는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당당해야 하며 항상 자신감과 미소를 잃지 않아야 된다.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대표가 바로 이 사건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이 가졌던 믿음이 두려움이 없는 믿음은 아니었다. 그들이 정말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열명이 악평할 때에 “그 놈들이 뭣이 장대하더냐? 허우대만 멀썩하게 컸지 완전히 허풍선이던데. 내가 볼 때는 그들이 메뚜기 같던데”라는 말을 한 마디라도 보탬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떤 상황을 정상적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그 보고는 항상 같다. 예컨대 사과가 상자에 열 개가 있다는 사실은 숫자를 세지 못하거나 사과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동일하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것이 맛있어 보이는지 혹은 잘 익었는지 평가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마찬가지로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한 사안에 대한 객관적 분석 - 보고는 같아야 한다. 보고가 달라지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성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 반면에 평가는 당연히 완전히 달라야 한다. 믿음이 정작 작용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평가이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현실을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또 그 본 것을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만 평가하고 결정한다. 반면에 신자는 현실을 보이는 대로 보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분석하는데까지는 동일하다. 그러나 그 분석한 바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거르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그들과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번 더 거른다고 해서 신령하고 초자연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객관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그 때까지 삶에서 실제로 터득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 경험에 비추어 다시 판단해 보는 것이다. 냉철한 이성적 분석과 판단이 요구되기는 마찬가지다. 무슨 일이든 무턱대고 밀어붙이는 맹목적 광신적 믿음이, 사실은 그런 믿음의 대부분이 신자

본인의 의지적인 신념에 불과하지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현실을 아예 도외시하고 현실적 대책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신자도 현실은 현실대로 더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한다. 세상의 실력을 최선을 다해 갖추어야 한다. 꼭 일등을 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라는 뜻이 아니다. 남들처럼 세속적 직업을 가지고 정말 성실히 일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 무엇보다 자기 분야에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단 모든 현실 상황과 사건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평가해야 하며 또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

열 명의 정탐꾼의 잘못은 보고를 잘못된 것이 아니라 평가를 잘못된 것이다. 불신자처럼 자기 지식과 경험만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한 것이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의 즉,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를 때의 습성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현실에서 보고 들리는 상황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번 더 평가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았던 것이다. 쉽게 말해 현실을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더,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큰지에 관한 인식이 부족했다. 혹시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당장 눈앞의 현실에 눈이 어두워 잊어버린 것이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객관적으로는 현실적 상황이 아주 어렵다는 것은 잘 알았다. 가나안 족속들은 견고한 성채와 온갖 무기를 갖춘 데다 기골도 장대하며 전쟁에 아주 경험이 많은 자였다. 반면에 자기들은 오는 도중에 치른 아말렉과의 전투를 빼고는 사백년간 전쟁 경험도 없고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어린이로부터

노약자까지 대오도 갖추지 않은 채 엉겁결에 도망쳐 나왔기에 거기 떼 같은 몰골이었다.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도무지 승산이라고는 없는 전투였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도 동료 열 명이 보고한 객관적 상황에 대해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그 객관적 상황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평가해봐야 하지 않느냐고 권유한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밀어 넣었겠는가? 상식적으로 따지면 도무지 승리할 수 없어 보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라. 얼마 전에 겪었던 출애굽도 사실은 이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이다.

세계 최강 애굽과 맞서서, 그것도 자기들은 전혀 앞에 나서지 않고 80이 넘는 노인 한 명이 지팡이만 든 채 한 번의 전투도 없이 10전 10승했다. 마지막에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자기들을 인도해 내셨고 애굽의 병거와 군대를 수장시켰다. 그 모든 승리를 오직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로 이루셨지 않는가?

지금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그 때보다 객관적 상황은 훨씬 더 유리하다. 전투 경험은 없어도 노예 생활을 하느라 육신은 강건하게 다져졌고 군대의 숫자도 하늘의 뭇별처럼 많다. 자기 민족만의 나라를 처음으로 세우고 싶은 열렬한 소망도 있다. 전쟁을 치르더라도 형편없이 지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큰 이적으로 가능케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그분이 수백 년 전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더 이상 망설일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히려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는 것이다. 물론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그들에 비해 메뚜기임에 분명하다. 그

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결코 메뚜기가 아니다. 그분이 그렇게 되도록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도 현실은 현실대로 정확하게 보고 객관적으로 분석했다. 그들이 동료들보다 믿음이 좋았던 점은 자기가 분석한 내용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것일까 다시 점검을 해본 것이다. 현실을 도외시키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충만해 있거나, 짐짓 그렇게 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여전히 현실은 아주 크게 보이고 나는 메뚜기처럼 보일지라도 언제, 어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배후에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아는 능력이 믿음이다.

그래서 그 분의 뜻 안에서 콩알 만해졌던 간을 다시 정상 크기로 되돌리는 실력이다. 어쨌든 여전히 콩알 같은 간을 갖고도 반석이신 하나님의 등 뒤에 숨을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옳을 것이다. 언제 어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야 하므로 간이 여전히 콩알만 할 때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신자는 다윗처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시13:1)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다. 밤새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염려 걱정으로 골수가 마를 수 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하고 또 현실은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든다. 기도하는 중에도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며 자신은 한 없이 작아 보일 수 있다.

세상과 죄악과 사단이 결코 우리 믿음으로 쉽게 이길 수 있을 만큼 왜소하고 무력하지 않다. 신자의 능력보다 훨씬 강하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절대 앞보거나 무시해선 안 된다.

그러나 대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더욱 하나님께 더 굳세게 의탁할 수밖에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이 바로 믿음이다.

힘들다고 밤새도록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달라고 울부짖기만 해선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시간과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이르도록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 하셨는지 자신의 이성을 모두 동원해서 회상해야 한다. 신자는 하나님과 자신 둘만 아는 홍해의 기적과 열 가지 재앙에서 구원 받은 체험들이 있어야 한다. 이전에도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협력하여 선으로 이끄신 것을 기억해 내어야 한다. 하나님 그분과 자기와의 인격적, 개인적, 체험적 추억을 더듬어 들어가 그분의 은혜와 권능이 어떠한가를 구체적이고도 확실하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현실은 분명히 크고, 나보다 훨씬 크지만, 그것과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나게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어이 발견해 내는 것이 기도다. 또 그렇게 그분을 발견해낸 것 자체가,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이전에, 바로 기도의 응답이다. 그럼에도 신자들이 기도할 때에 왜 자꾸 “믿습니다”가 아니라 한껏 목청을 돋우어 “민~습니다. 민~습니다.”만 연발하는가? 얼마나 다급하면 그렇게 할까 이해는 되지만 솔직히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니까,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 것 아닐까? 하나님마저 자꾸 작아져 보이니까 하나님더러 “커져라 똑딱! 제발 커져라 똑딱! 어서 빨리 커져라 똑딱!”하고 주문을 외우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표출된 것이다.

여리고성 함락의 비밀

악평한 열 명의 정탐꾼과 그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새로 태어난 세대들만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수 있었다. 그들이 마주친 첫 번째 관문은 여리고성이었다.

여리고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방식의 승리를 주셨는가? 성을 둘러싸고 침묵의 행진을 하루 한 바퀴씩 6일간 총 6바퀴,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하루에 돈 후에 내지른 고함 한마디가 그들이 행한 전투의 전부였다. 그러자 전차 두 대가 교차해 지나갈 수 있었다는 그 견고한 성벽이, 어떤 수를 써도 무너지려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철옹성이 일순간에 폭삭 무너져 내렸다.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함락 시켜 주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가나안 정복의 첫 번 전투를 그렇게 기발한 방법으로 승리하게 해 주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전투였다. 만약 40년 전이라면 지역은 다르지만 가데스바네야에서 행했을 첫 전투에 해당된다. 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네피림의 후손 같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아 보였을지라도 만약 그들이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 하나님을 발견이라도 했더라면, 아니 하나님 쪽으로 고개라도 한번 돌렸더라면,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자기들을 기뻐한다는 사실이라도 알았더라면, 아니 그 모두가 아니더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겠다는 소망이라도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가데스바네야에서도 여리고보다 비슷하거나 더 큰 기적적인 방법으로 차

지하게 해주었을 것 아닌가?

이 사실이 이해가 되는가? 여리고성의 이상했던 전투 방식이 이해되는지 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조금이라도 이해되는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인간의 짐작, 기대, 분석, 예상, 측량의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다는 진리를 알 수 있는가? 그분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여리고 성 전투에서 정작 배워야 할 더 중요한 사항이 따로 더 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와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는 상천 하지에 하나님이시니라.”(수2:8-11)

가데스바네야에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메뚜기 신드롬(Grasshopper Syndrome)에 걸려 스스로 너무 작게 여기며 간이 콩알만 해져 벌벌 떨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변했는가? 가나안 족속이 오히려 전투가 벌어지기도 전에 간이 콩알만 해져 기절초풍 할 지경이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미리 저들을 주물러 물렁물렁한 반죽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말이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남쪽 끝에서부터 하나하나 진격해 들

어가지 않고 인천 상륙 작전처럼 허리를 잘라 들어가는 전략을 구사했다. 상하의 적들의 연결 상태를 먼저 끊어 보급과 협력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다. 물론 그 전략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다시 자기 백성들이 겁먹을까 배려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남쪽부터 쳐들어가면 이전 가데스에서의 나쁜 추억이 되살아나 다시 메뚜기 신드롬에 걸릴까 일부러 둘러가게 한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밟는 첫 발자국을 초자연적 간섭으로 요단강의 급류를 물러가게 한 후 맨 땅을 디디게 했다. 홍해의 기적을 상기시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깨닫게 해서 담력을 고취시켜 준 것이다.

그래도 혹시 끝까지 두려움을 떨치지 못할까봐 아예 정탐꾼으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이 사시나무 떨 듯이 떨고 있다는 것을 직접 두 귀로 똑똑히 듣게 했다. 그 동안에 아낙 자손들이 갑자기 난쟁이가 된 것도 아니요, 여리고 성에 곰팡이가 생겨 당장 무너져 내릴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부딪혀야 할 외적인 상황은 예전 가데스바네야나 지금 여리고나 하나 변함이 없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홍해 물을 마르게 한 일을 듣고 떨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40년 전에도 듣고 떨었다는 뜻이 된다. 그 때는 가데스가 홍해에 가장 가깝고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라 훨씬 더 떨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그 일로 인해 떨고 있다면 무슨 뜻이 되는가? 40년간 줄곧 떨고 있었다는 것이다. 가나안 족속은 아무리 성읍이 견고하고 거민이 장대했어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언제,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쳐들어올까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왜 떨 수밖에 없었는가? 가나안 족속이야말로 자기 눈

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지금으로 치면 뱅글라데시 같은 소국에 불과하며 400년간 종살이 한 이스라엘이, 미국과 같이 세계 최강국을 상대로 10전 10승하는 모습과 마지막에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 애굽 군대가 전부 수장되는 것을 목도 했는데 어떻게 안 떨 수 있는가?

그들이야말로 그저 점술사를 찾거나 우상에다 대고 자나 깨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비나이다! 비나이다!”만 연발하는 족속들이지 않는가?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 함께 하기는커녕 알지도 못한다. 아무리 성읍이 견고하고 군대가 강해도 최강국 애굽을 무참하게 이긴 민족에 대해선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의 한 천한 기생도 인정했듯이 그들 앞서 행하며 모든 장애를 제거하고 대적들을 무력화(無力化) 시키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있었다. 그 분 앞에는 그 어떤 것들도 당신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결코 방해가 될 수 없었다. 40년 전의 가데스나, 40년 후의 여리고나 그분에게는 정말 식은 죽 먹기(a piece of cake)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치면 가데스바네아 때가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더 많이 갖추어져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도 보고는 올 바로 했는데 평가를 잘못하는 바람에 너무나 수치스런 실패를 겪었다. 그 사건 이후 40년간 무엇을 하며 지냈는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광야에서 유리하는 신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메뚜기 신드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저 자고 깨면 불평불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다. 하나님은 그런 완악한 백성들을 그래도 불쌍히 여겨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의 생수를 마시게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40년이 지난 지금도 정작 두려워한 쪽은 오히려

려 가나안 족속들이지 않는가? 오래 전의 홍해 기적 때의 두려움이 왜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지 그 이유를 아는가? 비유컨대 미국 네바다에 있는 죽음의 사막(Death Valley) 같은 곳에서 40년간을 그 많은 백성들이 전혀 목마르거나 굶지도 않고 멀쩡하게 살아났기 때문이다.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지 않았다.(신8:4) 그것도 사막의 기후와 지리에 전혀 생소했던 한 비령뱅이 민족이 말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던 것이다. 자기들로선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다.

거기다 시혼과 옥을 전멸시켰다고 하니 가나안 족속으로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요, 죄악에 대해 진노하는 하나님이라 가축까지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도 아마 그들은 소문에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이 시혼과 옥처럼 전멸을 당할 차례라고 여겼기에 극심한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아간의 범죄로 패한 아이성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연전연승했다. 여리고 성 전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말도 안 되며 생전 처음 보는 기발한 방법으로 자기들 성 주위를 돌고 있으니 성 주민들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겠는가? 가뜩이나 미리부터 겁에 질려 있었으니 완전히 얼어서 한 번의 응전은커녕 한마디 대꾸도 못했지 않는가?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기 이전에 가나안 땅 전체에 이전에 애굽에 보내었던 죽음의 사자를 다시 보내어 그들 모두를 두려움으로 초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두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은 크시다. 엄청나게 크시다. 지금까지의 설명도 사실은

그분에 대한 백만 분의 일, 아니 수조 분의 일을 묘사한 것도 아닐 만큼 크시다. 그 말은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그 크심에 걸맞게 자기 인생을 반응시키는 신자를 하나님이 아주 크게 해 주신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요14:12)라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확히 말해 신자를 오직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똑 같은 시간, 장소, 사건, 환경에서도 열 명의 정탐꾼들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신 천국의 보화와 이 땅의 열매를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하는 자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것을 풍성하게 차지하여 누리는 자들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는, 자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가? 인격적으로 품성이 악한 것인가? 도덕적으로 선행을 적게 한 것인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덜 내었는가? 기도와 말씀에 등한히 했기 때문인가? 그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찼찼하신 분이 아니다. 그런 결점들로 인해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거나 혹은 벌을 주시지 않나 우려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더욱 애처롭게 여긴다.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볼 줄 아는 자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진정으로 잘 알아 그분에게 자신의 전 존재와 삶의 모든 부분과 일생 전부를 완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자다. 하나님의 크심이 자기의 인생을 통해 크게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아니 갈급해 하는 자다. 당연히 그 반대도 성립한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거나 아예 그 크기를 측량할 줄 모르

면 그 인생도 작아진다.

하나님은 신자가 죄악과 사단과 죽음 앞에 당당하게 서기를 원하신다. 아니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로 바꾸어 놓았다. 신자란 자신이 그렇게 바뀐 것을 확신하고 그대로 사는 자다. 비록 신자가 가진 것이 너무 적고 현실적 모습은 여전히 형편없는 반면에 세상은 엄청 크게 보일지라도 그렇다. 신자가 커진 것이 아니라 신자의 속에 있는 예수님이 크기 때문이다. 자기와 일대일로 생명을 맞바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 내주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온전한 신자를 대면하면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그 빛을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불신자가 참 신자를 보면 저들이 먼저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되어 있다는 말이다. 알기 쉽게 말해 재벌 회장이든 대통령이든 그들 속에 예수가 없다면 참 신자를 보고 자기들이 오히려 매뚜기처럼 여겨져 먼저 움츠려 들게 된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재판정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아그립바 왕에게 무엇이라고 했는가? “당신 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행26:29) “예수 없는 왕보다 예수 있는 죄수가 더 크니까 왕이여 당신도 이 거룩한 자리로 내려오시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권고했던 것이다. 신자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의와 거룩과 생명으로 세상의 썩어 없어질 더러운 것들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 아이 성에서처럼 성도가 죄로 더럽히지만 앎의 승리는 항상 신자의 것,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것이다.

신자가 기껏 세상 사람보다 죄를 조금 덜 짓고, 욕심을 조금 덜 내고, 쥐꼬리만 한 선행을 해 놓고, 교회에서 조금 기도하고 말씀

보았다고, 아주 신령하고 거룩해진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십자가 안에서 예수를 주로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그 신분, 위치, 은혜, 권능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메뚜기 신드롬이 단순히 자신에 대한 심리적, 도덕적, 종교적 열등감이 아니다.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과 결부시키지 않아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너무나 큰 어리석음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먼저 행하셔서 완전히 떡 반죽이 되도록 주물려 놓았는데도 그저 겉을 먹고는 하나님을 향해 “어서 빨리 커져라, 제발 커져라”라는 주문 밖에 외울 줄 모르는 종교질환의 증상이다.

가나안 족속들이 40 년간이나 이스라엘을 향해 떨고 있었듯이, 지금도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불신자들이 사실은 먼저 떨면서 신자를 주목하고 있다. 신자가 정말로 죄악과 사단과 사망 앞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그들은 보고 싶어 한다. 그들도 신자가 속한 가정, 직장, 사회, 교회, 민족, 국가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해 생명력이 넘치기를 갈망한다. 그래서 자기들도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은연중에 소원하고 있다. 그런데 신자가 도리어 현실은 크게 자신은 작게 보이니까 하나님도 작으리라 짐작하고 겁쟁이처럼 행동하고 있다. 불신자들이 보기에 신자가 기껏 그 정도니 신자가 믿는 하나님도 거들떠보지 않을 수밖에....

메뚜기 신드롬을 극복할 수 있는 길

예수 믿는다는 것, 절대로 시시한 것 아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실 만큼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죄악에 빠지더라

도 그 분이 크시기에 그분과 함께 하는 우리 또한 큰 자일 수밖에 없다. 그 엄연한 사실을 세상 앞에 드러내보여야 한다. 신자에게 바로 이런 확신과 실천이 없다면 지금껏 이해하고 있는 그 믿음은 아무리 키워도 메뚜기 신드롬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어지간한 신자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육신에 중병이 들고, 가게는 장사가 안 되어 당장 임대료 걱정이 앞서고, 아들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마약을 하고 가출해 지금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기도한다고 염려 걱정이 사라지겠는가?

그렇다고 의지를 동원해서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야지 또는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낮추어 보는 이 열등감을 극복해야지 단단히 결심하여 노력한다고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염려 걱정을 없앨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믿음이 순식간에 강해지는가? 그래서 자기보다 상대가 메뚜기처럼 보이기 시작하든가? 잠시 잠간은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모두 지금껏 경험했듯이 곧 다시 염려에 사로잡히고 주눅이 들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엄밀히 말해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한 하나님만 완전히 바라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수도원에 가서 세상만사를 다 끊고 평생을 정진해도 안 된다. 죽기 직전에 다른 것은 더 이상 바라볼 수 없게 되면 가능할지 모른다.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천국에 가서야 가능해지는 일이다.

비록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범사에 기뻐해야 하는 것은 모든 신자가 도달해야 할 신앙 목표다. 그럼에도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신자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보고) 않기 때문이다. 또 영터리로 파악한 것조차 오직 현

재의 자기 믿음 수준으로만 판단하기(평가) 때문이다.

솔직히 우리 믿음의 실상이 하나님만 완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수준인데 자꾸 그 믿음으로 현실을 평가하려 드니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더 있는가? 바꾸어 말해 자기 어림짐작으로 범사를 분석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두에 예를 든 사장과 비서의 얼렁뚱땅 넘어가는 대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신자가 정말로 노력해야 할 일은 의지적으로 자기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도외시하고 손을 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을 일부러 무시한다고 무시 되는 법은 절대 없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여 나름대로 분석하되 그 분석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필터를 통해 다시 여과 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특별히 현실이 커 보이고 자기는 매뚜기 같아 보일 때에 정말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그 여과 작업을 더 충실하게 해야 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들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8:31,32,38,39)

신자에게 사망이나 깊음이나 높음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있다. 실제로 현실은 커고 자신은 작다. 그러나 영원토록 신자와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비록 신자가

죽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사랑은 신자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

가데스바네야에서 가나안 족속은 실제로 장대했고 이스라엘은 메뚜기 같았다. 그럼에도 갈렙과 여호수아가 철저히 확신한 것은 자기들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고 저들은 밖에 있다는 사실 하나 뿐이었다. 다른 말로 자기들은 죽더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 죽으면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진정한 실체다.

또 그것이 신자가 메뚜기 신드롬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재삼재사 말하건대 의지로 믿음을 키워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은 벌써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서야 한다. 하나님의 독생자와 맞바꾼 생명, 위치, 신분, 소속이라는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적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께 바칠 수 있어야 한다. 정말로 주께서 죽으라고 하면 죽으리라는 고백이 절로 나와야 한다. 이미 영원하신 주님 품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길 외에 메뚜기 신드롬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시중에 유행하는 믿음 만능주의로는 턱도 없다. 믿음만능주의는 자신의 수시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믿음 자체가 수단이다. 온전한 믿음은 주님의 사랑과 권능 외에, 정확하게는 주님 외에는 세상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평안은 위장된 축복일 뿐이다.

- 신자가 당할 시험에 대한 오해

“신앙을 무력화하는 요인은 핍박이나 위협보다는 오히려
문화와의 타협에 있다.”

- 토니 캠폴로

“오 하나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 어거스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蕃盛)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신8:1-3)

도덕과 종교

신자를 포함하여 이외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도덕과 거의 동일시하고 있다.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사는 것을 종교 생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삼는다.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신앙(信仰)을 가진다는 뜻이며, 또 신앙이란 반드시 믿고 따를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 대상은 두말 할 것 없이 절대자, 신(神)이다. 따라서 종교의 본질은 믿고(信) 경배해야(仰) 할 대상인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다.

반면에 도덕의 본질은 인간 사회에서 인간끼리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잘 살게 하는 것이다. 인간 공동체를 유지하고 변성시키기 위해 그 구성원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이다. 요컨대 공동체의 질서를 일정한 한도를 넘어서 무너뜨리는 행위를 죄라고 규정지은 것이 도덕이다.

만약 인간끼리의 상호 작용과 활동이 없다면 도덕은 아무 의미가 없다.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면 살인, 간음, 폭력, 도둑의 죄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일 년 내내 벌거벗고 지낸다고 풍기문란으로 비방할 이유도 없다. 도덕은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세우는 행동 규율이라면, 종교는 한 개인이 절대자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의 문제다.

신기하게도 모든 인간이 최소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한계가 있음을, 그것도 다른 사람과 아무 관계없이 혼자 있더라도 넘어서지 않을 행동과 사고의 범주가 있음을 본성적, 선형적(先驗的)으로 깨달을 수 있다. 그런 능력을 한마디로 양심이라고 한다. 인간 사회의 도덕은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들을 개인과 사회

에 적용 가능한 규범으로 편집 정리한 것이다.

흔히 도덕은 사회가 복잡하게 변하고 문명이 발달한데다 인간의 보편적 지성이 깨인 후에 교육과 훈련으로 생긴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교육에 의해 세대에 따라 전수되기 이전에 최초로 그 도덕률을 제정한 이는 분명히 교육이 아니라 본성적 성찰에 따랐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래서 현존하고 있는 어떤 미개 민족이라도 교육과는 무관하게 고유의 도덕률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 보편적인 윤리적 자각이 왜, 어떻게, 유독 인간에게만 들게 되었는가? 이를 규명하려면 인간 존재의 근원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처음 도덕률을 원시적 형태로나마 제정한 이는 삶의 실존적 체험을 통해 본성적으로 각성한 것이다. 그럼 인간은 본래부터 도덕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 외에는 해답이 없다.

바꿔 말해 도덕의 기원을 종교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도덕이 종교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그래서 모든 종교의 가장 중요한 실천 강령도 필연적으로 도덕적 규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쉽게 말해 종교가 먼저 생겼고 도덕은 그 필연적 부산물로 생긴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도덕은 올바른 종교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이 된다. 종교란 근본적으로 신과의 관계인데 문제는 참된 신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참되고 올바른 도덕도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종교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그렇지 않은 모든 종교의 도덕률은 아무리 경건하고 심오하고 의로워 보여도 인간 스스로 고안해낸 것일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도덕이 종교에서 시발되었고 신앙은 신과의 관계라면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하고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도덕적으로 살기 이전에 바로 그 신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

이다. 착하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신앙 이전에 모든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도덕 중에도 참 하나님이 계시한 절대적 도덕이 있으니 그것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다 인간 사회의 질서만 유지하려면 기존의 인간이 고안한 도덕으로도 충분하다. 종교를 통해 따로 더 깨우칠 필요가 없다. 결론적으로 신앙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차원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광야를 방황하게 된 배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 년간 방황하는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았다. 성경은 그 사건을 두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떡은 물질이고, 여호와와 말씀은 윤리적 계명이라고 단순히 해석하고 치운다. 예의 종교와 도덕을 혼동하는 습관이 성경 해석에 마저 적용된 것이다. 신자라면 물질을 멀리 하고 대신에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 관점에만 초점을 맞춘 해석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 하에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의 입구인 가데스바네야에 도착했다. 이제 곧 그 땅으로 진군해 들어가면 세계 최초로 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신정(神政) 국가가 탄생할 참이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열 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족속과 자신들을 비교하여 도무지 승산이 없는 전투라고 평가했다. 이스라엘은 잔뜩 겁을 먹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뒤로 한 채 당신이 명한 전투를 포기해 버렸다.

마땅히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 하나님이 벌을 내린 원칙도 너무나 엄격하고 공정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민14:27,28)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즉, 이스라엘이 당신께 불평한 내용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벌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불평했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민14:2,3)

애굽 땅에 돌아가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죽었지 가나안 족속의 칼에 죽을 수는 없다고 불평했다. 하나님으로선 열 가지 이적과 홍해를 갈라 구원해낸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다. 대신에 그들이 불평한 그대로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게만 들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이십 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민14:29,30) 하나님의 징벌은 너무나 엄격하고 공정하지 않은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또 다른 원망을 했었다. 우리 처자(妻子)가 가나안 족속에게 사로잡히게 되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이 불평을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자면 이스라엘의 처자들로 가나안의 포로가 되도록 만들거나 애굽 땅으로

돌려보내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로 처리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민14:31,32) 아이들은 하나님에게 불평하지 않았고 또 그 상황에 대해 아무 책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너무나 공정하신 하나님은 불신앙에 대해선 불신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벌을 내린다. 알기 쉽게 말해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고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이 최고라고 큰 소리 치는 자들은 진짜로 돈을 벌게 해준다. 돈을 벌어 형통하는 것이 어떻게 벌인가 싶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믿는 것 자체가 바로 벌이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세상에서 어떤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오로지 돈만 모으려 든다. 자연히 온갖 죄악이 따를 뿐 아니라 참 평강과 자유 대신에 오히려 초조, 불안, 염려, 시기, 분노, 저주 등이 파생된다. 하나님은 그들의 상실한 마음과 더럽고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어 그에 따르는 추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인간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만큼 더 무서운 벌은 없다.

인간이 제 멋대로 배교하는 것을 방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과 계획은 절대로 변경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다. 악인이 아무리 하나님의 간섭 없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필경에는 망하거나 최소한 본인의 내면의 영혼이 썩어 들어가게 만드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가 기계적으로 혹은 우연히 일어나는 법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다. 우주 만물에게 일어나는 세상만사는 오직 당신에게서 기원하여, 당신께서 직접 다스리고, 당신께서 열

매 맺는다. 그분의 뜻과 계획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완벽하게 실현되며 궁극적으로는 오직 당신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는데 간과해선 안 될 또 다른 절대적인 원칙이 하나 있다. 불신자와 당신의 백성에 대한 징계의 원칙이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불신자에게는 벌을 더 세게 내리고 신자는 사정을 봐준다는 뜻이 아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오히려 불신자에게 현실적으로 아무 벌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두신다. 단지 그들과 아무 관계가 없을 뿐이다. 불신자들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조종을 받으며 계속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 흑암 가운데 허우적거리게 만드신다. 정말 어떤 궁극적 소망도 없다. 현실적으로는 아무 벌이 없는 것 같아도 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벌이다.

신자에게 내리는 벌은 불신자의 것과는 정반대의 방식이어야 한다. 불신자에게 아무관계를 맺지 않고 그들 원하는 대로 버려두었다. 신자에게 당연히 그 관계를 유지한 채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벌을 내려야 한다. 나아가 그 관계를 더욱 잘 유지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징벌이 더 엄정해질 수밖에 없다.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히12:5,6)

남의 아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함

부로 야단칠 수 없다. 그러나 자기 아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야단쳐야 한다. 또 사랑하는데도 더 엄하게 야단치는 이유는 아들이 그 잘못을 고쳐서 더 성숙해지기 원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가데스바네야에서 불신앙과 배교의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무 벌을 주지 않았다. 광야에서 죽게 해달라는 대로 그들의 욕심과 상실한 마음에 따르도록 40여년을 버려두었다. 당신의 백성인데도 마치 불신자의 경우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같이 보인다.

현실적 환난이 끝이 없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은 것처럼 신자에게 여겨질지라도 당신의 백성에게는 당신 쪽에서 그렇게 하는 법은 결코 없다. 절대로 무심하게 방치하지 않는다. 그분의 의롭고 강한 손이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고 있다. 고난을 겪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총은 변함없이 베풀어진다. 신자가 육신적으로 아주 힘들어 하므로 오히려 더 큰 권능으로 함께 해 주신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곳이다. 사막인지라 낮에는 한여름의 무더위만큼 폭폭 찌고 밤에는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 광야 생활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무려 40년간이나 생존했지 않는가?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붙들고 있지 않았다면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다.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이 광야를 방황했다면 틀림없이 금방 다 죽었을 것이다. 가데스바네야의 죄로 벌을 받은 자는 “이십 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였다. 그럼 가나안 입경직전 40년을 생존했다면 최장 60살 까지 살아남았다는 의미다. 당시로선 그것도 광야에선 굉장히 장수한 셈이다.

모든 인간이 가장 소원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힘들게 노력하지 않고도 먹고 마실 것이 해결되는 것이다. 놀고먹을 수만 있다면 한이 없을 것 같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뚜렷하게 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땅을 갈아 씨를 뿌린 적도 없다. 양이나 가축을 생업으로 키운 것도 아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 기둥이 장막 위에 머물지 떠날지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대로 따른 것뿐이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민9:17,21,22)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았어도 그들이 먹고 마실 것을 다 챙겨주셨다.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단순히 행선지를 가르쳐주는 인도자 역할만 한 것이 아니었다. 낮의 뜨거운 햇볕과 밤의 차가운 기온을 막아주는 보호막을 겸했다.

이스라엘이 방황했던 광야는 생존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열악한 환경이었다.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해도 먹을 것을 생산해 낼 수 없는 곳이었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먹을 것과 거주할 곳과 냉난방 시설은 갖추어 주었다. 그것도 무려 40 년간을 말이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련해 주었으므로 이스라엘에게는 광야가 그리 힘든 곳이 아니었다. 사실상 완전히 놀고먹은 셈이다.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수5:12) 가나안 땅에 입경해서 그곳의 첫 수확을 얻을 때까지 만나를 먹을 수 있었기에 전혀 굶지 않았다는 뜻이지 않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사십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를지도 아니하였던 것이다.(신8:4)

나아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수많은 금은보화를 챙겨왔는데도(출 12:35,36) 이방 족속이나 광야에 출몰하는 그 혼한 도적 떼로부터 습격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아마 이방족속들이 거의 통행하지 않는 깊숙한 광야로 인도했기에 그들이 공격할 마음을 아예 먹지 못했을 수 있다. 또 가나안 족속들이 애굽의 열 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익히 알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아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수2:9-11) 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으로선 천만다행이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 년간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모든 외적 조건은 어느 모로 따져도 환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너무나 큰 은혜였다. 그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에 의해서였다. 요컨대 하나님이 그들을 벌을 주었다기보다는 겉으로 감춰져 있었긴 해도 큰 축복을 베풀었다.

이상한 시험

그렇게 하신 이유를 본문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떡으로만 살지 않고 당신의 말씀을 잘 키는지” 시험하려고 모든 조건을 그에 합당하게 만드셨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신자를 나쁘고 힘든 상황에 몰아넣어서 죄를 안 짓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는지 테스트 해보는 방식이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광야의 시험에선 이스라엘에게 실제적 어려움이 별로 없었다. 그들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대로 순순히 따랐다. 한 번도 어진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광야 사건은 시험으로 성립될 조건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나님의 시험이 신자가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방식으로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분의 경륜과 섭리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도리어 아주 편한 상황에서 시험이 이뤄질 때가 더 많다. 솔직히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 닥치면 자신의 믿음의 성숙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 여부와 상관없이 신자라면 일단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게 된다. 지은 죄도 회개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문제는 오히려 아무 문제없이 편할 때다. 정확히 말해 고달픈 상황이나 편한 상황이나 하나님의 시험은 다 있지만 각기 그 성격을 달리 한다. 먼저 힘든 상황의 시험은 사흘 굶어서 남의 집 담장 넘지 않을 자 없다는 속담처럼 그런 힘든 형편에서도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인지 주로 윤리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신자는 힘이 들면 어쩔든 하나님은 찾을 테니까 말이다. 반면에 편안하고 풍족한 상황에선 인간은 구태여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 대신에 하나님은 아무 부족한 것이 없어도 당신을 제대로 찾고 경배하는지 신자의 진짜 영적 실상을 보길 원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는”(신 8:3) 시험의 내용이 조금 더 명료해졌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떡’은 물질이 풍부한 것이며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선하게 사

는 것이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한다. 물질을 추구하느라 하나님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한 적이라곤 없지 않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살인, 강도, 간음, 거짓말한 적도 거의 없다. 이미 금은보화를 풍부하게 갖고 있었다. 또 하나님의 내리신 신령한 음료와 음식으로 먹고 마실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물론 싯딤에서 모압 여자와 음행한 죄악으로 하나님께 염병의 별을 받아 이만 사천 명이 죽은 적은 있다. 그러나 광야 생활 40년의 전 기간에 걸쳐 이스라엘 전체로 보아선 도덕적 죄악보다는 종교적인 배교를 더 저질렀다. 그들이 수시로 범한 죄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 끝없이 불평한 것이었다. 틈만 나면 하나님에 대해 원망을 터뜨렸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곳으로 몰아넣는가? 왜 아무 맛도 없는 만나만 먹게 하는가? 고기는 왜 안 주는가? 조금만 주려도, 조금만 허기저도 모세를 못살게 닦달했다.

언뜻 보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죄를 범한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마다 만나, 메추라기, 생수로 즉시 해결해 주었다. 그럼에도 그들의 불평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다른 말로 당장에 먹고 마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환경과 여건이 자기들 기분에 도저히 안 찬다는 것이다. 너무나 심심하고 재미가 없다는 것이다. 뭔가 신나고 흥겨운 쾌락을 주어야 할 것 아닌가라는 뜻이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광야를 방황하는 중에 말이다.

따라서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성경의 문자적 계명으로만 해석해선 많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했다. 하나님이 신자로 몸담게 하시는 모든 환경

과 맞닥트리게 만드는 사건과 인간관계 등등 그 모두를 일컫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 분명하면 그곳이 광야이든, 애굽의 노예 살이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든, 그에 순복하고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뜻이다.

같은 맥락에서 ‘떡’도 단순히 물질의 풍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반대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인도에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꾸려 나가려는 태도다. 무엇이든 자기 뜻과 기분대로만 하려는 뿌리 깊은 죄성이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도 자기가 원하는 때와 방식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는 너무나도 완악한 고집이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로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는 엄정한 징벌을 내리셨지만 세상 어느 민족도 받지 못한, 아니 전혀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셨다. 어쩌면 그런 방황 중에도 그들이 다시 가데스바네야로 진군하겠다고 회개하고 일어섰다면 더 빨리 가나안으로 입경시켰을지 모른다. 하나님으로선 이스라엘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도 최소한 만나를 주신 당신의 뜻만은 알아주기를 원하였다. 당신 백성들을 향한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항상 그들의 영적성장이다. 또 그러기 위해선 신자의 회개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너무나 간단한 영적 진리조차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환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징계의 배경에는 신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열정보다 사실은 그분이 더 큰 열정을 갖고 신자의 회개를 더욱 간절히 기다리신다.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도 집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먼발치에서부터 먼저 알아보았다. 날마다 문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다.

바꿔 말해 신자가 징계로 받은 고난을 인내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 신자의 배교와 불신앙을 인내하시는 것이 더 힘들고 안타깝다는 것이다. 신자는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보다 고난의 종결에만 관심을 쏟지만, 하나님은 신자에게 고난을 더 보태어 주더라도 신자의 성숙을 원하신다.

만나 시험의 본질은 과연 이스라엘이 먹고 마실 것에 부족함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지 보겠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신자가 도저히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이 당신 대신에 재물부터 추구해야만 할 정도의, 예컨대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 같은 처지의 극심한 궁핍으로는 좀처럼 몰아넣지 않으신다. 자칫하다간 하나님이 신자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형편을 조성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고난의 시험을 주더라도 신자가 구원받으려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만 알아 보려하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고난이 닥치면 신자라면, 심지어 이방인도 자연히 기도하기 마련이라 신앙 소지 여부를 떠보는 시험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 대신에 그분은 신자를 어떤 곳,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더라도 과연 당신께 진정으로 순복하고 제대로 경배할 것인지를 가장 알고 싶어 하신다. 쉬운 예로 신자들이 흔히 “지금 제코가 석자이니까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그 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경배 하겠습니다”라고 핑계 되는 것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궁핍하여 재물이 없을 때 보다는 반대로 넘쳐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하나님에 대한 인류 최초의 배교도 하나 부족함이 없는 낙원에서였지 않는가?

광야의 만나 시험은 가데스바네야에서 범한 죄의 결과다. 그 때

이스라엘이 물질을 밝히느라 윤리적 종교적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지 않는가? 만약 그들이 정말로 물질적 탐욕을 가졌다면 오히려 가나안으로 쳐들어갔어야 했다. 전쟁은 해보나마나 질 것이므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광야에서 죽기를 원했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 넣을 것 같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차라리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역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힘들게만 안 하면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먹고 마실 것에 부족한 것이 없으면 정말로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말한 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고도 공정하게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대로 해주었다. 과연 그렇게 하는지 시험 해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먹고 마실 것에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못했다. 이것이 광야 40년의 이스라엘의 영적 결산서였다.

인간은 자기가 큰 소리 친 대로도 행동하지 못한다. 반면에 하나님은 인간이 하려고 하는 대로 다 해주면서도 당신이 뜻하신 일은 이루신다. 모든 세대의 모든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의 원칙은 항상 동일하다. 풍요하든 궁핍하든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진정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지 보길 원하신다. 아담에게 선악과 금령을 지키면 당신의 품 안에서 잘 살 것이요, 어기면 정녕 죽으리라고 시험하신 바로 그 대로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면 문제없는 환경이 더 적합한 법이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최초의 시험이 낙원에서 있었듯이 말이다.

신앙생활의 본질

인간은 주위 여건과 상관없이, 심지어 아무리 편해도, 아니 편하면 편할수록, 무조건 자기 뜻대로만 하고 싶어 하는 존재다. 세상만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신자가 된다는 의미의 본질은 바로 그 근본적인 생각을 거꾸로 바꾸는 것이다. 주위 여건이 어떠한든 자기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전에 갖고 있던 그 생각이 어지간해선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죄로 인해 인간의 출생과 동시에 누구나 가지는 본성 자체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가장 고치기 힘든 습성이 바로 이 자기중심주의다. 하나님으로선 신자가 가장 먼저 그리고 중점적으로 그 점을 고치길 원하신다. 그래서 겉으로는 현실적 환난이든 평안이든, 또 그 숨은 뜻이 징벌이든 은혜이든 간에, 하나님이 신자에게 직간접으로 베푸시는 모든 섭리와 은혜는 오직 이 옛 본성을 깨트리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요컨대 하나님이 신자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도덕 생활이 아니라 진실 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선하고 의로우신 절대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경배하라는 것이다. 아무리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는 불평불만이 자기도 모르게 따라 나오는 상황이라도 그분의 보호와 인도에는 그 분만의 너무나 선하고 의로운 뜻이 있음을 확신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서 완전하시고 공평하시다. 신자로 처하게 하는 모든 여건에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실현하는 데 한 치의 부족함도 없으시다. 인간의 죄악을 다루는 모습에서도 신자와 불신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실 만큼 엄정하시다. 오히려 신자들을 더 엄격하게 다루신다.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이 신자의 진정하고도 유일한 하나님이자 아버지가 되

며, 신자 또한 당신의 진정하고도 유일한 사랑하는 백성이자 자녀가 되는 것뿐이다.

또 그런 뜻이 당신의 모든 섭리와 사역에 완벽하고도 세밀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의 칼에 죽는 것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보다 더 무서워하자 비록 징벌하긴 하셨지만 정말로 이방 족속의 칼에는 죽게 하지 않았다. 또 극한적인 광야로 내몰았지만 냉난방과 먹고 마실 것은 마련해 주셨다. 당신의 자녀들이 도덕적으로 선행하기 이전에 당신의 품 안에서 순복하며 사는 것을 먼저 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신자더러 단순히 “물질로 인해” 죄에 빠질지, 아니면 죄를 이겨낼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그럼 물질을 완전히 포기한 무소유가 신앙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버릴 수 있다. 그보다는 언제 어디서나, 즉 풍요한 가운데도 하나님과 신자 자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신다.

인간이 물질에 넘어가지 않아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보장은 결코 없다. 아니 그 자체가 온전한 선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반면에 바울처럼 부요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택할 때라야 오히려 물질의 죄를 포함 모든 윤리적 죄에서 더 당당하고 자유해질 수 있다. 요컨대 신자의 거룩도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신자는 물질을 멀리하고 도덕적 종교적으로 선행하고 거룩해지려는 데만 신앙생활의 초점을 맞추어선 안 된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지금껏 자기 방식으로만 살려 했던 습성부터 완전히 버려야 한다. 물론 썩어질 옛 습성 중에 가장 크고 견고한 것은 돈을 사랑하는 버릇이긴 하다. 그러나 그 버릇도 따

지고 보면 자기중심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기가 형통하고 안 일해지려면 현실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돈이 가장 강력한 수단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신앙이란 그래서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간에 오직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진정성과 실천성의 합체다. 예컨대 비록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으로도 살아도 진심으로 감사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 기분에 맞지 않다고 불평, 의심, 심지어 배교할 것인지가 진정한 신자 됨을 가름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종교적 열심을 강요하신다는 뜻이 아니다. 주변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도 신자니까 억지로 감사하라고는 결코 요구하지 않으신다. 지금 현재 자기에겐 허락하신 환경과 그 일어나는 일 모두가 하나님이 마련해주셨기에 반드시 자기에겐 유익하며 나아가 그 유익한 점들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씩 발견하여 누리라는 것이다. 그럼 진정한 감사가 저절로 생긴다는 것이다. 삶의 모든 세밀한 면면 모두가 하늘에서 내려주신 신령한 만나임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다.

당신은 과연 광야 시험을 거치고 이미 가나안 땅에 입경해 있는 신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광야에서 하염없이 그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언제 어떻게 움직일 지에만 관심을 갖는 신자인가? 다른 말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마저 귀찮고 싫은가? 아니면 하나님 그분이 너무나 좋기에 귀찮고 싫은 일들 가운데서도 그분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가?

큰 믿음으로 큰 용사가 된다는 것은?

- 신자가 해야 할 큰일에 대한 오해

“그들은 대낮에도 태양을 보지 못한다.”

- 존 칼빈

‘인간에 대한 공포심으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뿐이다.’

- 존 위더스푼

“여호와와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사 가락사대 너는 이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삿6:11-13)

믿음과 담력

들어가는 말에서 밝힌 대로 한국 교회의 장점이자 단점은 잘 믿으면 못 이룰 일이 없다는 식으로 신자 쪽에서 키워내는 믿음을 너무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아무리 따져 보아도 그런 믿음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 보인다.

우선 장점은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의뢰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면 분명 믿음은 자란다. 역으로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라도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온갖 방안을 강구해 실행하게 된다.

단점은 믿음을 자신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장래 계획을 더 크게 성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 전략 시킬 가능성이 많다.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조금만 영적 침체가 와도 무조건 믿음이 모자랐기 때문이라고 간주한다. 성도간의 권면이나 목회 상담의 결론은 매번 믿음이 약해졌으니 기도하고 말씀보아 열심히 믿음을 키우라는 것으로 끝맺는다. 한 마디로 믿음이 만병통치약이자 자칫 주님이 해야 할 역할마저 다 하는 꼴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막상 믿음을 키우려 들어도 사실상 그 믿음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 강해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로 나무아미타불이 된다. 그런데도 믿음을 의지적 결단력과 지구력의 합체로만 생각한다. 어떤 처지와 사건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담력이 믿음의 대체어가 되었다.

그리고 그 대표적 예로 기드온을 든다. 그는 담력의 화신이자 믿음의 큰 용사로 가르쳐져 왔다. 그렇게 꼽는 이유는 겨우 삼백

명의 정예부대로 13만 5천의 대군을 상대하여 위대한 승리를 달성했다는 사실 하나에 두고 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는 대표적인 소심증 환자였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믿음과도 거리가 멀었다.

믿음만능주의가 성경해석에도 잘못 적용된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인간의 담력, 용기, 의지로 해석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런 요소들은 어디까지나 믿음이 도출해낸 결과적 모습일 뿐이지 믿음 자체는 아니다. 예배, 기도, 찬양도 믿음으로 행한 결과적 모습이지 그것 자체가 믿음이 아닌 것과 같다. 믿음이 좋은 자는 예배, 기도, 찬양에 능할 수 있지만 그런 종교 행위에 능하다고 해서 꼭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는가?

담력, 용기, 의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인 예배, 기도, 찬양과는 달리 인간의 내면에서 그것도 믿음과 거의 동시에 이뤄지는 눈에 안 보이는 작용 내지 활동이다. 자연히 믿음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이 담력과 용기의 사람으로 변할 수는 있어도 담력과 용기가 있다고 다 믿음의 사람은 아니다. 요컨대 신자가 지키고 가꿔야 할 것은 순전한 믿음 그 자체이지 용기와 담력과 의지가 아니라는 뜻이다.

하나님에게 사사로 세움을 받은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기드온의 모든 행적은 그가 큰 담력을 가진 위대한 용사였다는 전통적인 가르침이 틀렸다는 사실만 증명한다. 성경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따져 보자.

여호와의 사자에게 거짓말(?)한 기드온.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려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삿6:11) 당시나 지금이

나 타작은 원래 사방이 탁 트인 들판에서 하는 법이다. 겨와 알곡을 잘 분리할 수 있도록 통풍이 잘되어야 한다. 타작용 기계나 황소 같은 가축을 사용하려면 넓어야 한다. 그런데도 그는 작은 옥탕 크기로 땅을 움푹 파서 만든 포도주 틀 즉, 사방이 막혀 외부에선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타작했다.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라는 표현 그대로 들킬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바로 그 때 여호와와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12절)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14절)는 사명을 주었다. 겁에 질린 자를 큰 용사라고 부른 셈이다. 그도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15절)라고 소심하게 사양부터 했다.

사자가 다시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므로 두려워 말라고 했다. 그는 곧바로 또 당신이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17절)라고 요구했다. 그가 바친 예물을 반석 위에 두자 사자의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와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21절)하게 되었다.

그러자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와 사자인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와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22절)라고 크게 염려했다.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를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면서 바로 죽일 리는 없지 않는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23절)고 재차 그를 다독그릴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와중에도 그는 한 걸 같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여호와와 사자가 자꾸 두려워말라고 안돈시킨 것 자체가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비록 하나님의 명을 따른 것이지만 기드온은 아비와 성읍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의 단을 찍어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리는 엄청난 일을 감행했다. 언뜻 보기에는 아주 담대한 행동 같지만 그렇지 않다.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6:27)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은 소심한 기드온의 담력을 키우고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일을 명했다. 그의 아비의 집에 바알의 단이 있었다. 또 종 열 명을 데리고 가서 그 일을 행했다. 그렇다면 그의 집은 그가 여호와 사자에게 말한 것 같이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한 집이 아니라 오히려 유력한 가문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또 아비의 가족을 염려해 밤중에 행했다고 한다. 형제들이 많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었고 종 열 명을 이런 비상한 일에 동원시킬 수 있는 정도라면 형제들 중에서 상당한 위치였을 수 있다. 그가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라”고 말한 것 또한 그리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여호와와 사자에게 단순히 겸손하게 사양한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거짓 핑계를 댔거나 엄살을 떤 셈이다. 그만큼 그는 사사로 세움 받는 일에 큰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다.

하나님으로선 기드온이 본격적으로 사사의 역할을 담당하기 전에 그가 미디안에 대해 갖고 있는 공포심을 덜어 줄 필요가 있었다. 문제는 미디안에 대한 공포가 단순히 군사력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 고대 사람들은 오히려 대적의 신들을 함께 또는 더욱 두려워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이유도 다산과 풍요의 가나안 신들이 현실적 문제에선 여호와보다 더 형통케 해주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이다. 또 미디안이 무력으로

로 자기들을 제압할 수 있는 배경에는 그들 신의 힘이 여호와보다 더 크게 작동되었다고 간주한 탓이다.

그를 이제 미디안과 싸우러 갈 용사로 세우려면 그들의 신에 대한 공포심부터 먼저 제거시켜야 했다. 백주 대낮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도끼로 찍어 내려도 아무도 그 자리에서 벌을 받거나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기드온에게 확인시키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밤중에 도적고양이처럼, 그것도 평소에 만만하게 부리던 자기 종들을 시켜 살짝 해치운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가 온전히 성취되지 못했다. 기드온이 어쨌든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만 확인한 셈이다. 대신에 성읍사람들은 지난 밤중에 일어난 사태를 보고 놀라고 두려워 기드온을 끌어내어 죽이려 몰려들었다. 바로 이 때에 아비 요아스의 믿음(?)이 더 돋보였다. 왜 그의 집에 바알 신상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래의 성경기록대로 하자면 분명 상당한 수준의 믿음을 보였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 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경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찐대 그 단을 훼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삿6:11)

너희가 바알이 가만있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기드온을 죽여 제물로 삼으려 하는데 정말 바알이 진노하였고 또 그럴 능력이 있다면 당장에 바알이 기드온을 직접 죽일 것이고 또 그래야 하지 않느냐고 응수했다. 요아스로선 그 상과 단이 훼파되었음에도 아무 재앙이 생기지 않기에 바알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

달은 것이다. 아니면 그럴 능력이 정말 있는지 잠시 두고 보자고 말한 셈이다.

하나님은 기드온 스스로 온전한 믿음 위에 서서 담력을 키우길 바랐다. 군사로 나갈 이스라엘 백성 전부에게도 우상은 어떤 능력도 갖고 있지 않기에 그것을 믿는 미디안 족속도 두려워할 것 하나 없음을 깨우쳐 주려 하셨다. 원래 의도하셨던 그 목적의 반(半)만, 그것도 아비의 도움으로 이뤄진 셈이다. 기드온의 담력은 아직 보잘 것 없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이 찢혀 불에 태워져도 아무 피해가 없음을 시간이 지나면서 기드온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장수에 그 부하

우상은 나무로 만든 조각상에 불과하다. 찢어져 불살라졌지만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았음은 너무나 당연했다. 기드온도 밤중에 조심스레 그 일을 결행할 때는 두려웠겠지만 차츰 그 신들이 아무 힘이 없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럼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큰 용사로 변모되었는가? 아니다. 여전히 그런 낌새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는 미디안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각 부족에게 통지를 하여 저항군을 결성했다. 그러나 그 직후 또 다시 이 전쟁에 승리할지 여부를 알려주는 표징을 하나님에게 두 번씩이나 구했다. 처음에는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이슬이 양털만 젖게 하고 사방 마당은 마르게 해 달라고 했다. 그 다음에는 정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사방 마당이 젖게 해달라고 했다.

넓은 타작마당을 두고서 엉뚱하게 비좁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추수하던 그였다. 하나님의 징표를 구하기 위해선 가능한 가장 넓

은 곳을 골랐다. 협소한 포도주 틀에서 그런 표징이 나타나봐야 자칫 우연의 일치로 여겨질 수 있다. 크게 위로도 되지 않을 것이다. 어쩍하든 더 확실하고 더 신비한 모습의 표징을 그것도 두 번씩이나 구할 만큼 그는 그 전쟁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 표징들은 요즘 식으로 비유하자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의 위에만 먹구름이 끼어 비가 내리고 나머지는 맑은하늘이 되게 하거나, 정반대로 차 위만 파란 하늘이 되고 나머지는 폭풍우가 몰아치게 해달라는 셈이었다. 표징을 구하되 너무나 세밀하게 구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아이디어조차 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도 우상들을 자기가 직접 찍어 불태웠어도 아무 흉사가 생기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에 말이다. 그 이전에도 단에서 불이 나와 자기가 바친 제물을 태웠고, 또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았음을 이미 체험했던 그가 말이다.

물론 그가 심히 두려워 하긴 했어도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없어지거나 크게 줄지는 않았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상을 제거했다. 미디안 대적이 쳐들어오자 동쪽의 앞장에 서기로 헌신하여 군대 소집의 절차까지 마쳤다. 그러나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자 다시 의기소침해진 것이다. 예의 소심증이 되살아난 것이다.

한 뭉치 밖에 안 되는 양털을 드넓은 타작마당에 놓고 하나님의 표징을 구한 것은 미디안의 대군 앞에 선 자신들의 미약한 모습을 상징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런 미약한 이스라엘을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두 번이나 나름대로 테스트 해보려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무려 다섯 번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한 후에야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러 나간 셈이다. 구약의 기록

에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을 가시적인 표징으로 이렇게 많이 보여준 전례는 없다. 그만큼 기드온이 최고 겁쟁이었다는 반증이다.

어쨌든 모레 산 앞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마침내 마주 섰다. 그런데 그 모인 숫자가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았다. 미디안은 13만5천 명(8:10)인데 반해 이스라엘은 겨우 3만2천(7:3)명이었다. 최소 4:1의 중과부적이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명령을 내렸다. 아주 열세인 이스라엘더러 오히려 군대 숫자가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고 했다. 두려워서 떠는 자부터 먼저 그렇게 하라고 했다. 네 배나 큰 대적의 진용을 보고서 그 위용에 질리지 않을 자 어디 있겠는가? 시작하기 전부터 해보나마나 한 싸움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거의 포기할 단계까지 이르렀지 않겠는가? 무려 2/3가 넘는 사람이 되돌아 간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만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 싸우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오히려 두려워서 당신을 온전히 믿지 못할 자는 지금 당장 돌아가라고 했다. 아무리 당신의 백성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미리부터 겁에 질린 군사들을 데리고 당신의 권능을 발휘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하나님에게 비록 겁쟁이긴 해도 기드온 한 명만 데리고도, 아니 그가 없어도 미디안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있다. 그럼에도 너를 쫓는 백성이 많다는 말씀은 기드온에게 인간적 상식과 이해 범위를 넘어서고 믿음과도 반(反)하는 명령임은 분명했다. 결국 겨우 만 명만 남았다. 갑자기 4:1에서 13.5:1이 되었다. 가뜩이나 비교도 안 되었던 군사력의 격차가 이전에 비해 세

배나 더 벌어졌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아직도 군사가 많다고 말씀하셨다. 이상하지 않는가? 인간 상식으로는 너무 적은 데도 하나님은 왜 기드온에게 자꾸 군사가 많다는 말씀을 반복하셨을까?

내심으로는 돌아간 자들처럼 떨고 있었을 기드온을 하나님은 이렇게 재촉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려 하신 것이다. “양털 표징 사건을 기억해보라. 그 넓은 타작마당에서 오직 양털만 젖게 했고 반대로 마르게도 하지 않더냐? 나의 그런 권능을 진정으로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많다고 하면 많은 것이지 않느냐? 아무리 적군의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인 내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진짜 믿을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정예군으로 선발한 마지막 기준은 더 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군사를 물가로 데려가 물을 손으로 움켜쥘로 핏는 자만 남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돌려보내라고 했다. 전자는 사방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을 마시는 세심한 성격의 소유자를 뜻한다. 후자는 그런 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우선 갈증부터 채우는 다혈질적인 사람을 의미했다.

지금 13:1의 전투를 벌이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물불을 전혀 가리지 않고 용맹스럽게 싸우는 자를 뽑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앞뒤 사정을 꼼꼼히 다 따져보는 자들을 싸우라고 내보면 어떻게 되겠는가? 원래 세심한 성격의 사람은 자기 계산으로 합리적 결론이 서지 않으면 좀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법이다. 누가 봐도 아예 승부가 갈린 전투라면 더더욱 싸울 엄두도 내지 않을 것이다. 물을 손으로 움켜쥐고 혀로 핏는 이들은 어쩌면 처음에 두려우면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 크게 두려웠지만 남들 눈치가 보여 선뜻 돌아가지도 못한 정말로 최고 소심한 자들이었을 가능

성이 많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겁쟁이 대장 기드온 밑에 최고 겁쟁이 군사들로만, 그것도 겨우 3백 명만 채운 셈이다. 예나 지금이나 추종자들은 지도자를 닮기 마련이다. 지도자도 자기와 닮은 부하라야 비교적 쉽게 잘 통솔할 수 있다. 서로의 성격과 사정을 잘 이해하고 말이 통하기 때문이다. 이 또한 하나님이 겁쟁이 기드온을 안돈시킬 목적으로 군사를 뽑은 것이다. 만약 우락부락하고 용맹이 넘치는 부하 즉, 전후좌우를 살피지도 않고 물부터 마시는 자들을 선발했다면 기드온이 통솔하기도 힘들고 스스로 주눅이 들어 기강이 안 설 것까지 하나님은 배려한 것이다.

겁쟁이들의 야간 전투

한 마디로 기드온의 미디안 전투 사건은 큰 용사들의 위대한 영웅담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소심한 대장과 똑 같이 소심한 부하들이 모여서 세계 전쟁사에 유례없는 특이한 방식으로 싸운 아주 이상한 전투였다. 그럼에도 승리의 전적은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대승이었다. 겨우 삼백 명이 13만 5천명을 상대로 이겼으니 일당백(一當百)이 아니라 일당 450으로 싸워 이겼다. 일당백도 원자탄 같은 가공할 무기가 있다면 모를까 공장 소설이나 나올 법하지 실제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로 그렇다. 이 전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사령관을 뽑고 군사를 선발하여 당신의 방식으로만 전투한 것이다. 원자탄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원자탄 투하 이상의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겨 주었다. 그런데 그 전투의 도구는 가공할 최신 무기가 아니라 너무나 원시적이었다. 하늘에서 레이저 광선 같은 번개나 원자탄 같은 우레를 퍼부어 이기게 한 것이 아니었다. “삼백 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향아리를 들리고 향아리 안에
는 횃불을 감춘”(삿7:16) 것이 무장의 전부였다.

하나님은 기드온더러 본격적 전투에 앞서 우선 적진을 탐지해
보라고 했다.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락을 데
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7:10,11) 하나님
은 두려워하는 그에게 또 다시 용기와 담력을 일깨워주려 했던
것이다. 그가 적진에서 들은 말은 하나님이 예비 해놓으신 승리의
징조였다. 기드온이 군대 숫자가 너무 미약해서 내심 승리의 더
확실한 표징을 보기 원한다는 것까지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
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엮
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
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
라.”(삿7:13,14)

천하의 겁쟁이 기드온을 위하여 하나님은 너무나 세심하게 배
려해 주셨다. 그분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사랑에는 결코 한도
가 없다. 그 완전한 사랑 앞에 인간의 의지, 담력, 용기는커녕 믿
음조차 개입될 자리는 없다. 말하자면 인간이 갖춘 조건으로 그분
의 사랑을 더 늘리거나 줄일 여지는 전혀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
의 신자를 향한 사랑은 항상 당신만큼 크고 전혀 가감이 없기 때
문이다.

미디안 군사가 꿈을 꾸게 한 것, 또 그 꿈을 정확히 해몽하게 한 것, 기드온을 하필이면 바로 그 시간 그 장막 곁으로 인도하여 그 말을 듣게 한 것 등을 보라. 전투를 앞두고 두려움에 떠는 그를 안돈시키고 담대하게 만들려고 도리어 하나님이 더 눈물겨운(?) 노력을 했지 않는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처음 소명을 주실 때부터 따지면 당신께서 주신 징조는 친구약 통 털어 최고 기록이다. 다 기억도 못할 정도다.

기드온 스스로 그런 이상야릇한 무장을 할 리가 없다. 틀림없이 하나님께 직접 명을 받았거나 성령의 깨우침으로 지혜를 얻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의 오합지졸(?)들은 단지 나팔을 불고 빈 항아리를 깨면서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치기만 했다. 한밤중에 갑작스런 큰 함성과 밝은 불빛에 혼비백산한 미디안 대군이 칼날로 아군끼리 서로 죽이는 참극이 벌어졌다. 기드온은 가만히 앉아서 손쉬운 승리를 즐기만 했다.

나팔, 횃불, 항아리, 고함 모두가 일차적으로는 적군에게 대군이 쳐들어 온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술이었다. 밝은 불빛은 잠결에 갑자기 일어난 사람들에게는 큰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반면에 어둠 속에서 의도적으로 불을 밝힌 공격자로선 상대의 움직임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 또 나팔 불고 고함을 지르며 횃불을 흔들면 상대를 두려움에 빠트리는데 대신에 자기들은 알게 모르게 힘을 얻어 용기백배하게 된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심어준 전략도 일관되게 겁쟁이들임을 감안한 것이었다. 한밤중에 도적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접근하게 했지 않는가? 밤중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을 때에 그와 그 종들이 취한 모습 그대로 답습하게 했다. 하나님은 겁쟁이는 겁쟁이인 상태 그대로 두되 당신만의 특이한 방식으로 당신의 목적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달성했던 것이다.

군대를 처음 조직할 때에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궁(自矜)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 이니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 전쟁은 끝이 났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은 당신께서 반드시 당신의 방식과 때에 이루시고야 만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헛되이 되돌아갈 리는 절대로 없다.

만약 4대1의 전투라면 담력과 용기로 톨톨 뭉쳐서 비장한 각오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또 10대1의 전투도 전투력과 정신력이 월등한 쪽에서 기습작전을 감행하면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450대1의 전투는 경우가 전혀 다르다. 인간이 정신력과 무기와 전략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도무지 승리할 재간은 없다. 원자탄도 없는 고대에 그것도 정식 칼과 창이 아닌 이상한 도구로는 더더욱 그렇다. 한국동란 때에 월등한 무기를 갖고도 원시적 무장을 한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결국 연합군이 패퇴했지 않는가?

하나님이 소심한 자만 선택한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원래 소심한 자는 자기 자랑도 잘 하지 못하는 법이다. 기드온으로선 비록 자신이 진두지휘하여 엄청난 승리를 일궈냈지만 시종일관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전투가 이뤄졌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을 것이다. 가뜩이나 소심하니까 자기 자랑할 엄두는 아예 내지 못했을 것 아닌가? 하나님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어도 자궁하는 자가 한 명도 나오지 못하도록 아예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셨던 것이다.

왜 큰 용사인가?

성경을 앞뒤로 아무리 훑어봐도 기드온은 믿음의 큰 용사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왜 성경은 그를 두고 큰 용사라고 말하는가?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직접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다. 참으로 흥미롭지 않는가? 얼마든지 다른 담대한 자에게, 꼭 기드온이어야만 했어도 다른 때에, 소명을 심어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필 가장 소심한 자를 골라, 그것도 치사하고 부끄러운 상황에 나타나선 “큰 용사여”라고 부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자야! 할례를 모르는 이방 족속을 왜 그리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지 않느냐? 설령 추수한 것을 빼앗기더라도 내가 너를 굶겨 죽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다. “여호와를 믿는 자라면 이렇게 숨어 지낼 것이 아니라 세상과 대적 앞에 더 당당해져야 하지 않느냐?”라고 따진 셈이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에게 질문부터 쏟아 부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삿6:13)

이는 모든 세대의 모든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의심과 불만이였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이런 고난이 계속 생깁니까? 의인을 더 고생 시키고 악인은 더 형통케 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의 공의가 굽어지는 바람에 악이 횡행하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계신 까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 죄악을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면 직접 일일이 심판하지 않으신다. 악인은 그 상실한 마음에 버려두신다. 대신에 당신의 백성이 세상과 죄악과 사단 앞에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는 방식으로 당신의 공의를 바로 세우길 원하신다. 신자는 가만히 앉아만 있는데 당신이 다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는 것 자체가 불의와 대적할 용기와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하나님이 동행하면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 그분께서 승리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 이미 보장되어 있는 승리는 거들떠보지 않고 현실적 어려움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떠맡기려 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큰 용사라서 소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당신께서 큰 용사로 삼아주겠다는 뜻이었다. 도저히 신자라고 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하고 소심한 그에게 믿음의 훈련부터 제대로 시켜서 당신의 일을 맡기려 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소심한 성격조차 다 감안하시어 그 기질에 맞는 전투 방식으로 이끄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 달라고 요구할 것까지 다 아시고 일일이 응해주셨던 것이다.

다시 말하건대 군사를 3만2천 명에서 3백 명까지 줄인 이유는 이스라엘로 자궁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 기드온이 진작 믿음이 강하고 큰 용사였다면 미디안에게 승리한 후에는 자기도 모르게 자궁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장 연약한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여 당신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려 계획한 것이다.

기드온의 경우에서 여실히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범사를 주관하시는 가장 큰 원칙은 당신의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심지어 당신의 신실한 종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의 위엄

만 높이려는 독선이 아니다. 그러는 것이 신자에게 오히려 더 유익이며 경건해지게 만드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한 말을 보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포도주 틀에 숨은 겹쟁이를 두고 큰 용사라고 말할 리는 없다. 오직 한 가지 이유 즉, 기드온의 능력과 자질과 처한 형편과는 전혀 무관하게 당신께서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라는 것이다.

사자가 이어서 한 말에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너는 이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신자더러 네 힘을 의지하라고 말할 리는 없다. 그래서 단순히 “네 힘”이 아니라 “이 네 힘”이라고 했다. 지시대명사 “이”는 다른 무엇을 대변한 것이다. 바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절대 패배할 수 없다”는 온전한 믿음이 바로 “이 네 힘”이라는 것이다.

큰 믿음이란?

기드온이 소명을 받고부터 미디안에게 대승을 거두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되살펴보라. 계속해서 인간의 상식 체계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상식은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하고 자기 능력으로 통제가 가능한 범위이다. 또 자연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법칙의 한계를 말한다. 요컨대 상식은 눈에 보이는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상식에만 매이는 자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다. 믿음이 없어 자기 상식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행태다.

반면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

거다. 쉽게 말해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소원하여 하나님만 의지하여 이뤄내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다고 믿음이 자기 계획을 크게 부풀려 하나님의 힘만 빌려 이루려는 열심과 치성을 뜻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이 자신의 삶과 인생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기 위해선 상식을 깨트리는 작업을 통할 수밖에 없었다.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는 대상이 있게 마련이다. 신자가 하나님과 상호 교통하는 바탕 위에서만 믿음이 생기고 자라며 열매 맺는다. 신자가 일방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그분과의 인격적 대면과 실생활에서의 그분의 체험적 동행을 통해야만 한다.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객관적 진리와 하나님이 신자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실제로 간접한 주관적 체험, 둘만 먹고 자란다.

그러나 의지와 담력과 용기는 혼자서 훈련해도 키울 수 있다.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대상과 상호 교통이 없이 그런 것들을 아무리 키워봐야 믿음 자체가 자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으로 이끄는 실제 삶에서 신자가 날마다 동행하며 연단되어져야만 믿음이 자란다. 또 그렇게 실제 체험에서 자란 믿음이 있어야만 의지와 담력과 용기도 함께 자랄 수 있다.

말하자면 예수 믿는다고 그 일상적인 품성 자체가 긍정적, 낙관적, 적극적, 능동적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일을 순종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된다. 그것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신자가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기 시작해야만 차츰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주실 뿐이다.

기드온의 삶에서 우리가 본받고 배울 것은 그의 큰 믿음이나 용기 있는 행동이 결코 아니다. 그는 믿음도 약했고 용기는 더더욱 없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을 통해 아주 크게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당신께서 그를 보내었다는 두 가지 절대적 진리다. 그의 실제 삶에서, 그가 아주 굳게 믿었던 약하게 믿었던 간에, 그 두 진리는 확실하게 드러났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앞서 행하신 인도에 주춤주춤하면서도 어쨌든 따르기만 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사실 기드온보다 더 소심하고 연약하며 비겁할 수 있다. 추수할 때마다 미디안이 와서 강탈해 가는데 어찌 숨어서 타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식구들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빚쟁이가 월급날마다 회사 정문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면 뒷문으로도망치지 않을 자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럼에도 신자는 정문으로 당당히 나가서 빚쟁이에게 빚부터 갚아야 한다.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선한 일이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생활비도 모자라는 판국에 빚부터 갚아버리면 도저히 살아갈 길이 막막해 보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상식적인 판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당장에 수십 배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거나 기대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단지 하나님이 굶어 죽이실 리는 없다는 사실만은 믿어야 한다. 설령 만에 하나 굶어 죽여도 나름대로 그분의 고귀한 뜻을 천국에 가면 알 수 있으리라는 기대 내지 확신이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움직이시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이다. 그분은 우리의 어떤 절망의 나락에서도 함께 하고 계시며 그 어떤 어

려운 상황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분이 연출하고 계심을 아는 것이다. 또 그런 고난을 통해 그분은 우리를 더 강건하고 성숙하게 하여 결국은 정금같이 빚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런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그분의 궁극적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까지 알기에 기꺼이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하고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다.

분명 기드온은 믿음의 큰 용사가 아니라 그 반대였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음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는 용기, 담력, 의지에서 하나 내세울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에게서 확실하게 배울 것이 하나 있다. 하나님께서 시킨 일만은 자신의 어떤 두려움도 무릅쓰고, 속으로는 벌벌 떨면서도, 일단은 순종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묻고 또 묻고 표징을 여러 번 구해가면서도 즉, 자기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최소한 억누르려고 노력하면서 순종은 했다. 그가 가진 아주 미약한 의지와 담력과 용기를, 정말 젖 먹던 힘까지, 다 쥐어 짜내어서 오직 순종하려고 전적으로 헌신했다.

바로 그것이 큰 믿음의 실체다. 또 큰 용사로 바뀌는 길이다. 하나님의 큰일을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자격 요건이다. 요컨대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의 뜻대로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기드온은 그런 면에선 우리보다 담력이 작아도 훨씬 더 큰 용사였던 것만은 틀림없다. 우리는 그만큼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는가?

믿음 위에 자기 실력도 쌓아라.

- 신자가 싸워야 할 전투에 대한 오해

“예수님은 우리가 예상한 곳에 오시는 일은 거의 없다.
주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항상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하나님께 진실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것이다.”

- 오스왈드 챔버스

“신앙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가고자 하는 영혼의
용감한 행동이다.”

- 윌리엄 뉴턴 클라크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삼상 17:45-47)

도깨비 방망이 신앙

신자란 하나님이 모든 인류 역사뿐 아니라 개인의 일상사까지 세밀하게 주관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자다. 자기는 너무나 연약하고 불완전하며 무능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기에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와 삶과 인생 전체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자다. 신자가 그분께 더 많이, 아니 전부를 내려놓을수록 그분의 권능은 신자의 삶을 통해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마련이다.

문제는 신자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착각한다.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램프를 슬슬 문지르면 나타나는 거인처럼 신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되었다. 신자가 기도라는 도깨비 방망이를 흔들면 하나님은 ‘똑딱’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이뤄주어야 한다고 기대한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뜨겁고도 간절하게 하느냐로 믿음이 좋고 나쁨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또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많이 받을수록 교회 내에서 더 신령한 자로 대접받는다. 나아가 그런 자랑을 늘어놓은 것이 성도 간에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며 그렇지 못한 신자는 열등한 신앙으로 취급당한다.

물론 하나님은 신자가 진정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 정말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섭리와 권능으로 신자의 간절한 소원을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이뤄주신다. 그러나 신자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손을 완전히 놓고 있어도 신자가 기도한 대로 이뤄준다는 보장은 절대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잘하느냐만 믿음의 전부가 되어버린다. 또 신자는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만 하면 이뤄낼 수 있는 슈퍼맨이 된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지 않겠는가?

기도란 신자의 호흡이다. 쉬지 말고 무엇이든 기도해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 신자의 소원을 조정하고 협력하여 궁극적이고도 영원한 선으로 이끄는 방향으로만 기도에 응답하신다. 신자가 기도한 대로와는 완전히 다르게 응답이 되는 수가 있다. 심지어 전혀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되었든 내용적으로는 신자의 모든 상황에 가장 유익하게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이다.

쉽게 말해 신자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은 하시되 당신의 때와 방법과 내용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자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도 밝혀졌다. 자기 소원을 가지고 기도는 하되 자신이 원하는 때와 방법과 모습으로 응답되어야 한다는 고집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가 가진 모든 계획과 뜻마저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뜻과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것을 이루려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한다. 단지 꼭 그대로만 되어야 한다는 억지(?)는 부리지 말라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현실의 일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자기 소원도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기도한 것과 어떻게 조화되어 나타나는지는 반드시 헤아려 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자기를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끌더라도 순종하되 그 인도하심을 자기가 기도했던 내용과 연결시켜 분석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신자 쪽에서 자기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조정 작업을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
자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본질적인 의미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신앙이 마치 도깨비 똑딱하는 신앙으로 변질 된 것은 성경의 진술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그럴지라도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풀어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켜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조장하는 경우마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소년 다윗이 장사 골리앗을 물리친 내용이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를 이겼다. 성경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해주신 것 같다. 나아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겼으니 하나님이 문제만 해결해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수십 배의 축복을 더해준 것 같다. 신자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를 ‘똑딱 신앙’과 ‘대박 신앙’의 합체로 오해할 만하다.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는 신앙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천하무적 여포와 골리앗

삼국지의 여포는 대단한 장수였다. 관우, 장비, 유비 세 사람과 상대해서도 하나도 꺾이지 않다가 조자룡까지 가세하자 할 수 없이 퇴각했다. 일대일의 전투에서 그를 당해낼 장수는 아무도 없었다. 말하자면 골리앗은 삼국지의 여포 같은 장수였다. 성경에 언급한 대로 따져보면 그의 키는 2m 93cm, 몸을 두른 갑옷의 무게는 57 kg, 낫 단창의 창날만 7kg이 되었다.(삼상17:4-7)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 사울도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컸음(키가 약 2m - 삼상10:23)에도 그의 상대가 안 되었으니 이스라엘 중에는

어느 누구도 맞설 자가 없었다.

그런 골리앗을 군대에 갈 나이도 안 된 소년이 이겼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투에 임했더니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기적 같은 승리를 얻게 해 준 것으로 이해할 만도 하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도저히 해결책이 안 보이는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신자는 믿음으로 무조건 밀고 나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생생한 예로 제시된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똑딱하고 대박이 터진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러나 조금만 이성적으로 따져도 너무 말이 안 되는 해석이 아닌가? 우선 다윗은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혼신의 힘을 다해 전투에 임했다. 실제 전투는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했다. 물론 그 배경에서 승패를 확실하게 보장한 분이 하나님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런데 이길 확률이라고는 제로였던 싸움을 하나님이 개입하여 완벽한 승리로 바꾼 것이 절대 아니다. 요컨대 실제 전투도 다윗이 했고 다윗의 실력도 온전히 작용됐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적에 힘입은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실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나 다름없다. 다윗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실력을 이미 갖추었다.

고대의 전투는 최고 장수들이 나와 먼저 한번 붙은 후에 전 군대가 나와 싸운다. 대표끼리의 싸움으로 아예 전쟁의 승패까지 결정되곤 했다. 골리앗도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 내려.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삼상17:8,9)고 이스라엘에게 도전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 심지어 할례 없는 자가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했어도 싸울 생각을 못하고 40일이 지나도록 집에서 꼼짝않고 아무도 응전하지 못했다. 그런 판국에 겨우 양치기 소년인 다윗이 실력으로 이겼다고 하니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가?

당시 다윗의 나이는 겨우 열 서넛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여덟 아들이 있었고 다윗은 막내였는데 셋째 아들까지 징집되었다. 남자가 이십 세가 되면 군대에 갔기 때문에 막내인 다윗의 나이를 역산해 보면 많아야 그 정도였을 것이다. 사울이 마련해준 갑옷과 창과 방패는 너무 커서 다 버리고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맨몸으로 나서야만 할 정도였다. 그래서 겨우 물매 돌 다섯 개만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는데 다윗이 자기 실력으로 이겼다니 도대체 무슨 뜻인가?

당대 최고의 장수 네 명과도 맞서 싸울 정도로 천하무적이었던 삼국지의 여포에게도 결정적인 약점은 하나 있었다. 바로 미녀에게 맥을 못 चु는 것이었다. 그 사실을 알아챈 한나라의 충신 왕윤은 초선이라는 절세미녀를 이용해 여포와 그 대장 동탁 사이를 이간시켰고 결국에는 조조에게 패배하게 만들었다.

골리앗도 마찬가지였다. 갑옷 입고 창 들고 하는 정식 싸움으로 그와 맞서서는 아무도 이길 수 없었다. 아마 여포가 골리앗과 동시대에 살았어도 상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골리앗에게도 결정적인 약점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갑옷으로 무장하지 않은 얼굴 부분이었다.

골리앗은 그런 면에서 삼국지의 여포보다는 사실은 그리스 신화의 아킬레스와 더 유사하다. 아킬레스의 엄마 테티스가 신비의 물로 그의 전신을 목욕시켜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갑옷으로 무장한 것처럼 만들었다. 한마디로 그는 불사(不死)의 장수가 된 것

이다. 그러나 발뒤꿈치를 손으로 붙들고 목욕시키는 바람에 그 부분만은 신비의 물이 묻지 않아 치명적인 약점으로 남게 된 것이다. 완전 무장한 무려 3미터에 가까운 거구 골리앗에게도 갑옷으로 덮이지 않는 얼굴이 아킬레스의 발뒤꿈치처럼 공격당할 수 있는 유일한 약점이었다. 소년 다윗은 골리앗의 그 약점을 한 눈에 알아보고는 물매 돌로 급소에 정확하게 타격을 가했던 것이다.

다윗의 실력

다윗이 아직 어려서 그런 신기(神技)에 가까운 돌팔매 실력을 도저히 갖추 수 없었다거나, 골리앗의 치명적 약점을 눈치 챌 만큼 지혜롭지 못했을 것이라고 선불리 판단해선 안 된다. 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이 작용한 것이지 다윗의 실력은 아니었다고 고집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만약에 다윗의 실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그의 믿음과 담대함을 보고 이루신 기적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는가? 다윗은 아무리 힘든 일도 앞장서서 자기를 희생하며 봉사할 만큼 담대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큰일도 일으켜 주실 줄 확신하는 아이여야 한다. 겨우 열서넛 살의 소년에게는 조금 무리한 요구이자 기대가 아니겠는가? 또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어른들과 형님들마저 아이가 올 곳이 못된다고 야단을 치는 데도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싸우러 나간 것이어야 한다. 자기가 가진 유일한 무기인 돌을 젓 먹던 힘까지 쥐어짜서 던진 후에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렸다. 소년이 던진 돌인지라 맥없이 날아가고 있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천사가 그 돌에 로켓 같은 힘과 속력을 붙여서 골리앗의 면상에

정확하게 쏘히게 해주었어야 한다. 이것이 대다수 신자들이 여태껏 상상해온 믿음의 전투의 모습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키질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삼상17:34-37)

다윗은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의 습격을 무수히 받았지만 그때마다 물리치고 양 떼를 구했다고 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는가? 하나님이 레이저 빔 같은 것으로 울타리를 쳐서 아예 맹수의 접근을 차단시켰는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해주었다고 말했으니 맹수가 양을 잡아먹으려는 순간 갑자기 맹수가 죽거나 물러가는 기적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지금 맹수가 새끼를 움키면 다윗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새끼를 구했다고 했다. 소년이 막대기로만 사자와 곰을 상대할 수는 없다. 양치는 막대기가 아니라 물매 돌로 쳤던 것이다. 그것도 맹수의 급소를 단 방에 맞혀야만 했다. 말하자면 다윗은 양을 치면서 물매돌 던지는 데는 프로급 선수가 되었다. 요즘으로 치면 올림픽 경기에서 양궁이나 사격 금메달리스트의 솜씨를 가지게 된 것이다. 맹수들은 단 번에 급소를 치지 못하면 더 사나워지고 날

썰진다. 그야말로 귀신같은 솜씨라야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 있다.

사자와 곰(우리 생각보다 훨씬 재빠름) 같은 맹수를 단 방에 맞추는 솜씨라면 인간의 급소는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다. 그것도 무거운 무장을 한 거인이 어기적거리는 것은 어쩌면 눈감고도 맞힐 것이다. 골리앗이 볼 땐 정말 한 주먹도 안 되어 혹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소년이 이스라엘의 대표 장수로 나섰다. 칼과 창과 갑옷과 방패를 전혀 갖추지 않은 채 나섰으니 아예 무시했을 것이다. 다른 말로 얼굴을 방어할 태세는 전혀 갖추지 않고 고개를 오히려 뺏뺏이 쳐들고 걸어 나왔을 것이다. 그런 약점을 다윗이 발견 못할 리 없고 또 한 방에 못 맞힐 리도 없었다. 이 싸움은 시작하기 전부터 승부가 사실상 다윗 쪽으로 결정나있었다. 다윗은 전적으로 자기 실력으로 이겼던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

그럼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고 한 다윗의 고백은 무슨 뜻인가? 그가 실력으로 이겼다면 여호와를 믿는 믿음은 없었다는 뜻인가? 또 이 전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전혀 없거나 아주 미약하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하거니와 다윗이 자기 실력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만은 분명하다. 이스라엘에선 다윗 외에는 어느 누가 나서도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처음 보는 순간 사자나 곰보다 느린데다 얼굴에 보호막이 없는 것을 한눈에 알아채고는 충분히 이길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도 들었다.

말하자면 다윗이 “무조건 믿음으로 담대히 싸우러 나가라. 그럼 내가 이기게 해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순간 들은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다 보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도움으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만용(?)을 부린 것도 아니었다. 모든 객관적 상황을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하여 자원한 싸움이 었다.

그럼에도 다윗은 만에 하나 첫 돌이 급소에 명중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도 알았다. 사자와 곰은 네 발로 기는 짐승이라 첫발이 실패해도 더 포악해지기는 해도 얼굴의 급소를 가리며 공격해 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 발을 연발로 맞추다보면 결국에는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 특별히 전투에 익숙한 골리앗이 상황을 알아채고는 곧바로 방패로 얼굴을 가리며 다가오면 소년 다윗은 빼도 못 추릴 만큼 순식간에 전황은 역전되어 버린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오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삼상17:40,48,49)

다윗은 전투하기 전에 시냇가에 가서 맹수들과의 싸움에서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살려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랐다. 가장 손 안에 쥐기 좋고 던지기에 적합하면서도 맞으면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돌이었다.

돌을 다섯 개 고른 이유로 간혹 성경주석가들이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서 죽었더라”(삼상21:22)는 구절과 연결시켜 해석하기도 한다. 즉 다윗이 아예 골리앗의 동생 네 명까지 합쳐 모두 다섯 명을 상대할 것을 각오했다는 것이다. 이는 무리한 해석이다. 우선 다윗이 그 당시에 골리앗의 동생이 네 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적다. 설령 그 전투 현장에 같이 있었고 동참했다 해도 앞에서 말한 대로 일단 얼굴을 향해 돌을 던진다는 사실을 눈치 채면 다섯 형제 모두가 그 즉시 방패로 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아마도 다윗은 맹수와 싸우는 훈련 덕분에 연발 소총처럼 아주 재빠르게 계속 던질 수 있는 실력을 가졌던 것 같다.

정작 문제는 다윗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돌을 던지기는 생전 처음이라는 점이었다. 아무리 적국의 장수지만 어른이자 엄청난 거인을 상대해야 한다는 부담감 또한 어린 그로선 대단히 컸을 것이다. 시냇가에서 돌을 고를 때의 그의 심경을 추측해보면 참으로 복잡다단했지 않았겠는가? 살인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혹시라도 실패할 지도 모른다는 염려와 또 그렇게 되면 자기는 바로 창에 찔려 죽어야 한다는 두려움도 들었을 것이다. 그로선 정말이 일로 자기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것까지 각오했어야 했다.

다윗으로선 훈련 받은 정식 군인이 전투에 나서는 것과는 사정이 전혀 달랐다. 형들의 안부만 알아보고 부친이 준 치즈를 전하러 왔다가 사전 준비 훈련 각오 전혀 없이 열떨결에 일생일대의 고비를 맞닥뜨린 셈이다. 비록 그가 한 눈에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얻었지만 막상 출진을 앞두고는 심장이 뛰고 안절부절 했을 것이다.

아마도 돌을 쥌는 사이에 마음속으로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

드렸을 것이다. 우선 한 방으로 급소에 정통으로 맞히게 해주고, 혹시라도 첫발이 실수해도 둘째와 셋째 돌을 던지기 전에 골리앗이 미처 방어태세를 갖추지 못하게 해주고, 또 비록 적국의 장수지만 살인을 해야 하는 부담감과 죄책감을 씻어주시고, 최악의 경우 싸움에 지더라도 이스라엘의 할례 받은 자녀답게 당당하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전투는 그가 예측했고 기도한대로 결말이 났다. 하나님은 분명 함께 하였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이다.

그럼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역사한 것은 다윗의 충심어린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것뿐인가? 첫 돌팔매가 실수하지 않고 정통으로 맞히도록 해 주신 것인가? 그래서 전투는 당신의 것이라고 다윗더러 고백하게 했는가? 그래서 신자가 간절히 기도한 후에 나가 싸우는 전투는 전부 다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인가?

다윗의 기도대로 전투의 모든 상황을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간섭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혹시 첫 발이 실패해도 다섯 개의 돌을 연속해서 던질 정도의 실력이라면 두세 번째의 돌로도 사망시키거나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싸움의 승패는 다윗이 큰 실수만 하지 않는 한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정작 하나님이 하신 더 중요한 일은 이 싸움의 승패보다는 다윗으로 그런 실력을 갖추도록 해준 것이었다. 이 싸움이 있기 훨씬 이전에 다윗이 양치기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 전투에 대비해 사자나 곰을 보내어 훈련시켰다는 뜻이다. 사실상 이 전투는 다윗이 말아야만 하도록, 그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상대 못하도록,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다. 그의 승리를 하나님이 미리 보장해 놓았다.

다윗이 자기 실력을 십분 발휘해 이겼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 또한 십분 발휘된 것이다. 이처럼 인간 신자의 실력과 하나님의 섭리는 단 한 치의 상충과 모순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권능이자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의 본질이다.

그야말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는 다윗이 고백한 그대로 되었다.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기적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신자가 겪는 모든 싸움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이다. 심지어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실력까지 평소에 쌓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다.

믿음이 만능이 아니다.

대부분의 신자가 ‘믿음’을 오직 자기 내면에 형성된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탁하고자 하는 열정의 세기로만 이해한다. 나아가 현실의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 받을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만약 어떤 문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면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열심이 아직 최고조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간주한다. 그래서 그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를 최대한 절정으로 끌어 올리려 애를 쓰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자가 겪고 있는 문제를 당신을 얼마나 잘 믿는지 못 믿는지 심사해서 그 믿는 상태가 100% 완벽한 수준에 다다라야만 해결해 주시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과 신자 간에는 오직 믿음 외에는, 아무리 믿음이 신자가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핵심이라고 해도,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또 그 믿음이 문제

해결의 공로이자 조건이 되어버리지 않는가? 아니 믿음이 무엇이든 이를 수 있는 만능의 수단이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 작동될 여지가 없다. 이를테면 믿음이 좋은 신자가 바로 신(神)처럼 되어버리지 않겠는가?

믿음이란 상대를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것이다. 더 세계 믿으려고, 더 의지하려고 노력한다면 엄밀히 말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솔직히 신자가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한다는 자체만으로 하나님에 대해 거의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 아니 아예 하지도 못한다.

그럼에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100% 완벽한 믿음 즉, 어떤 의심과 불만과 불안과 염려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 도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가 진실 된 마음과 간절한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하신다.

바로 그래서 기도응답의 근거도 신자가 갖고 있는 믿음의 세기가 아니다. 바꿔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서 다윗이 100% 순전하고도 가장 강한 믿음이라서 골리앗을 이기게 해 준 것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물론 다윗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요나단은 몰라도.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을 그렇게 단순히 수량화(數量化)시켜서 볼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

역으로 따져 다른 사람의 믿음이 다윗에 비해 너무나 못 미치기에 골리앗에게 졌거나 상대조차 못해 본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른 군사들은 단순히 전투 능력이 모자랐을 뿐이다. 아무리 궁리해도 일대일로는 그와 상대해 이길 재간이 전혀 없었다. 물론 이스라엘 중에 누구라도 어차피 실력으로 안 될 것은 뻔하지만 하나님만 믿고 생명을 버리더라도 담대히 나섰더라면 하나님이 골리앗이 걸어오다 돌부리에 넘어지게 해서라도 이기게 해줄 수는 있

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도 잘 사용하지 않는 아주 비상하고도 예외적인 방법이다. 특별히 이번 경우는 다윗을 따로 훈련시켜 예비해 놓았다. 그런 만화 같은(?) 극적인 사건이 필요 없다. 요컨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부터 올바르게 온전하게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라는 말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매번 기적적인, 더 정확하게는 신자기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는 방법만 동원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신자는 현실적으로 실력을 쌓지 않아 올바르게 성숙되지 않을 우려가 훨씬 크다. 지금껏 해왔던 대로 잘못된 믿음만 열심히 키우면 된다. “민~습~니다!!”를 얼마나 강하고도 자주 고백할 수 있느냐가 만사형통의 열쇠가 된다. 하나님은 신자더러 믿음을 그렇게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신자가 기도하는대로 응답하는 방식은 여간 해선 쓰지 않는다. 그런데도 신자는 무작정 뜨겁게 밀어붙이는 식이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우리 기대대로 신자 쪽의 믿음이 세어야만 하나님이 응답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하나님만의 다른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뜻이 된다.

하나님은 아주 비상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하신다. 비상한 방법의 응답이 극히 드물다면 신자로선 마땅히 그 응답의 방식과 시기를 그분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 대신에 그 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분의 뜻과 계획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대부분의 신자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안 되고 당신의 뜻에 맞는 기도라야 응답이 된다는 원리 정도는 잘 알고 있다. 이상하게도 그 원리를 매번 잊거나 일부러 외면하려 든다. 오직 빨리 응답 받는 데만 모든 신경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는 그리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기적적 자동적 응답이 아니라면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당연히 자신의 믿음을 키워 그 보상으로 응답을 받아내려 해선 안 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그에 맞추어 자신을 준비 헌신 실현해 나가는 쪽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일을 너무 거창하고 신비스럽게 간주할 필요가 없다. 신령하고 초자연적인 역사에만 그분의 뜻이 있다고 여길 필요는 더더욱 없다. 그분의 뜻과 계획이란 결국 신자 본인이다. 신자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과 그 동안 이뤄진 경과를 곰곰이 비교하며 묵상해보면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신자를 인도하신다면 자신에게 과거와 현재에 실제로 일어난 일 가운데 그분의 뜻이 어떤 모습으로든 반영되어 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는가?

다윗의 경우 기도원에서 금식기도를 수십일 간 한 적 없다. 당시에는 새벽기도를 매일 할 수도 없었다. 모세 오경을 알아도 얼마나 알았겠는가? 단순히 암송하는 수준이라도 되었겠는가? 오늘날의 교인들끼리 평가하는 식의 믿음으로 치면 너무나 연약한 수준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골리앗을 보는 순간 곧바로 치명적인 약점을 알아챘다. 바꿔 말해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계획을 깨달았다. 바로 이 싸움을 위해 양치는 동안 맹수를 그렇게 자주 마주치게 해서 자기로 물매 돌 던지기의 최고 고수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말이다. 다윗의 믿음의 훈련과 성장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손을 잡고 동행했던 일에서만 이뤄졌다. 당시에는 성경도, 예배당도, 찬양 예배나 기도 모임도 없었으니까 더더욱 그랬다. 그럼에도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가 되었지 않는가?

믿음의 본질

믿음이란 신자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의 상태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또 그 마음 상태를 끌어올린다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믿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상대를 잘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당연히 그분을 잘 알아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영원하시고 변개가 없이 신실하시다, 사랑과 긍휼에 다함이 없다, 같은 일반적 속성들을 더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들은 종교적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려면 가장 먼저, 그리고 항상 범사에서 그분의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살펴 그분의 관점에서만 판단해야 하고, 또 무엇보다 그 판단한 대로 행동해야 한다.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상태가 믿음을 이루는 필요조건이라면 그분의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은 믿음이 믿음으로서 완성되는 충분조건이다. 신자 쪽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지간한 신자라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럼에도 자꾸만 그 필요조건만 키우려 드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대신에 충분조건까지 채워야만 믿음이 실제 삶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믿음이란 정지된 순간에 나타나는 마음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다. 말씀과 기도에 능해 신자의 내면의 상태만 충만하게 고양 시킨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다. 항상 유동적으로 변화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알아서 그 바탕 위에서 그분과의 일상적인 관계를 꾸준히 신실하게 이어나가는 작업이다. 하나님과 신자가 함께 손잡고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여정 그 자체가 믿음이다. 신자는 그 관계가 중단 없이 장애 없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어지도록 실제 삶의 모든 부분에서 반응해야 한다. 또 그것이 모든 것을 그분께 내려놓는다는 참 의미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미디안의 양치기로 40년을 보내게 한 후에야 민족의 구원자로 세웠다. 하나님으로선 모세를 바로와 맞상대하고 또 출애굽한 그 수많은 무리를 광야로 인도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었다. 말하자면 모세를 애굽과 광야 양쪽에서 최고전문가로 훈련 준비시킬 필요가 있었다.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만 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어느 누구도 바로를 맞상대할 수 없다. 또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광야에 대해 모두가 무지할 수밖에 없다.

정작 모세 본인에겐 초반과 중반의 황금 같은 80년의 인생이 완전한 실패로 여겨졌을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에게는 전혀 실패가 아니었지 않는가? 모세는 소명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 실제로 바로와 열 번이나 맞대결하여 승리하고 홍해의 기적을 거쳐 동쪽을 광야로 이끌고 나온 한참 후에야 비로소 그분의 계획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 자신의 지난 80년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큰 승리를 위한 준비와 훈련의 기간이었음을 깨닫고 그분께 감사 찬양했을 것이다.

모세가 그런 큰 승리를 맛보게 된 근거도 자신의 믿음을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의 상태를 절정에 끌어 올렸기 때문이 아니었다. 가끔은 그런 때도 있었겠지만 80년 내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만으로 가득 찬 세월을 보냈을 것이다.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의 기본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 80년간 자기 인생에 대한 당신의 뜻을 알고자 계속해서 씨름했을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과는 도저히 비교도 안 되는 열심과 권능으로 모세를 단 한 시도 떠나지 않고 붙들고 계셨다. 모세는 눈치를 전혀 채지 못한 상태에서 그를 당신만의 계획과 뜻을 위해 온갖 고난의 훈련을 통해 한 걸음씩 준비시켰다. 애굽 왕자로 최고의 인간적 실력을 갖추게 했고 광야에서 생존하고 여행하는 전문가로 만들었다. 겉으로만 보면 그가 바로와 맞대면 한 것이나 광야를 통과한 것도 모세 자신의 실력이 십분 발휘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었고 그분의 은혜가 십분 발휘된 것이다. 모세의 실력과 하나님의 섭리, 그 둘 사이에 바늘구멍 같은 틈새도 없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다윗의 경우도, 특별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마찬가지였다. 양치기를 하는 동안 수시로 나타나는 맹수로 인해 온갖 고초를 겪었다. 어쨌면 하나님에 대해 원망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물매 돌 던지는 분야에선 최고의 명사수가 되었다. 골리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동안 허락하신 연단의 뜻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채었다. 비록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신비로운 섭리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역으로 말해 신자라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다윗이 수시로 사자와 곰을 만났던 고초는 성경 전체에 가장 드라마틱한 승리를 위한 훈련과 준비였다. 신자의 현재의 고난도 미래에 확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큰 승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할 과정이다. 그 과

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승리를 맛보지 못한다. 다윗이 오랜 훈련으로 몰매 돌 던지는 선수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도 없었다.

따라서 신자는 문자 그대로 고난 중에 소망을 키우며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 지금 당장에는 도무지 추측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이미 자기를 향해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자신만 주님 안에 온전히 바로 서있다면 그분의 계획이 실현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설렘과 흥분으로 그분의 완벽한 승리를 대비할 줄 알아야 한다.

다윗으로선 자기 실력으로도 충분히 이길 자신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전투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탁했다. 나아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확신하기에 자기 생명까지 기꺼이 바치기로 헌신했다. 단순히 열심히 믿으면 신자는 가만히 있어도 그분이 다 알아서 대박을 터트려주기를 기대하는 식의 믿음은 그에게 눈곱만치도 없었다.

신자가 단순히 강한 믿음으로 나가면 전쟁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전쟁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련해 놓으셨기에 승리는 이미 나의 것이라고 확신하고 결연히 나아가는 신자에게만 승리를 주신다. 또 그것이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며 “그분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아간다.”는 참된 의미다. 단 지난 세월의 어려운 여건들과 여러 인간적 실패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주권에 맞추어 분별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줄 아는 믿음을 갖춘 자에게 한해서 말이다.

필요한 것은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라.

- 신자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오해

“진솔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느끼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 존 칼빈

“많은 신자가 좀 더 깊은 믿음을 갖기 원한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바울은 아무리 깊고 큰 믿음을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한다. 만약 사랑이 없으면 영적 능력을 다른 사람의 유익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려 들 것이다.”

- 나일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빠른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壽)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富)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왕상3:4-15)

기도 응답의 두 가지 비결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신자가 평생을 두고 해답을 구하는 중요한 신앙 과제 중의 하나일 것이다.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구한 것은 물론이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을 받은 본문은 가장 응답을 잘 받은 기도의 예로서 가르쳐져 왔다.

그 비결로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우선 권력, 재물, 명예 같은 세속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에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첫째 원인으로 꼽는다. 또 솔로몬이 아까지 않고 일천 번제를 드린 그 헌신되고도 신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한다. 둘 다 원론적으로는 틀린 것이 없다. 그러나 충분하고도 정확한 해석은 아니다.

흔히 솔로몬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을 도덕적으로 선한 기도를 했다는 점을 든다. 형이하학적인 물질의 풍요 대신에 형이상학적인 자신의 내면의 성장을 위해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다. 어떤 진술이 진리로서 합당하려면 반드시 역으로도 검증을 받아야 한다. 쉽게 말해 $1+1=2$ 가 진리가 되려면 $2-1=1$ 이 옳다는 것도 입증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적용하면 신자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쉽게 다, 다른 현실적 축복까지 보태어 들어주시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우리 성품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도 잘 이뤄지지 않았지 않는가? 또 그런 기도를 했다고 현실적인 축복을 추가로 받은 적도 없지 않는가? (사실은 신자들이 자기 성품을

거룩하게 바뀌달라는 기도는 거의 하지 않지만 했다고 쳐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응답하면서 현실적 복을 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검증해본 결과 만족한 답이 나오지 않으므로 솔로몬의 이 기도에 대한 지금까지의 해석이 보편적인 신앙원리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신자가 정말로 100% 순수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조차 사실상 의문이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에 모든 사람이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방법은 절대 없다. 오직 하나님과 신자와의 일대일의 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개 된다. 그것도 신자 쪽의 조건보다, 아무리 경건하고 순수해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면서 말이다.

거기다 일천 번제만 드리고 나면 무슨 기도를 해도 대박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아예 말이 안 된다. 그럼 이천, 삼천... 만 번의 번제를 드리면 그에 비례해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치가 되지 않는가? 다른 종교에선 몰라도 기독교에선 정녕 아니다.

솔로몬이 드린 일천 번제가 회수로, 즉 최고의 정성을 바쳐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드린 제사가 사실은 아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대하1:6) 희생 제물의 숫자가 일천이었다는 뜻이다. 회수가 일천이라는 명백한 언급은 성경에 없다. 회수로 일천이라면 하루에 세 번을 드려도 근 일 년이 걸린다. 매일 한 번이라면 삼 년이다.

진정으로 드러진 번제라면 하나님은 회수와 관계없이 기쁘게 받으신다. 번제는 마땅히 숨겨진 다른 의도가 없이 순수하게 자신

의 전부를 드리는 제사여야 한다. 특별히 속죄가 번제의 주목적이기에 반드시 자발적 회개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만 번제와 기도 응답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뜻이다. 기도 응답은 신자의 조건, 자격, 공로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을 뿐이다.

어떤 경우가 되었던 고상한(?) 기도를 하면 응답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다른 것까지 함께 응답받을 수 있다고 단순하게 가르쳐져선 안 된다. 신자들로 의로운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응답 잘 되는 특정한 방식의 기도가 있다고 말하는 순간 신자로 하여금 시쳇말로 제사보다 젓밥에 대한 헛된 기대를 갖게 만들 우려가 발생긴다. 신자가 되어서도 인간의 탐욕은 절대 다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큰 응답을 받으려고 일부러 고상한 기도를 하거나 지극 정성을 바치려 든다면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구하는 기도라면 응답을, 그것도 크게 받을 수도 있지만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 항상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껏 가르쳐진 응답 잘 받는 기도 비결이란 아예 없다는 뜻이다. 요컨대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바는 다른 데에 있다는 것이다.

솔로몬의 처지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신 이유를 정확히 알려면 먼저 솔로몬이 왜 일천번제를 드렸고 또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만약 그가 기도 응답을 크게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일

천 번제를 드리면서 고상하고 선한 기도를 했다면 지금껏 가르쳐
저온 응답 잘 받는 기도의 두 비결은 당연히 진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당시 본인에게 그런 마음이 정작 없었는데도 후대 사람이
그렇다고 말한다면 도리어 우스운 꼴이 된다.

그는 다윗이 불륜의 상대였던 우리야와 정식으로 결혼하여 처
음 난 아들이다. 간음죄로 태어났던 아기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성전에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한 후에 얻은 아들이 솔로몬이었다. 그러나 서
열상 왕위를 계승할 처지가 전혀 아니었다. 왕위를 이을 때 나이
도 20살이 채 안된 젊은이였다. 왕에 즉위하기 직전에는 이복형인
아도니야의 반역사건을 겪었다. 한 마디로 왕권을 확고하게 세우
기에는 아직은 너무나 역부족인 상태였다.

그런데도 그는 왕에 즉위하자마자 다윗의 유언대로 통치에 장
애가 될 만한 위험인물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했다. 대규모 숙청이
란 항상 희생당한 자들의 가문에 뿌리 깊은 반감을 불러올 수 있
다. 그로선 백성과 함께 아주 큰 번제를 드림으로써 나라 전체의
단합된 모습을 하루 속히 대내외에 보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
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
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와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대하1:2,3)

그는 종교적으로는 여호와 신앙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정치적인
으로는 반발 세력을 무마하여 더 이상 나라의 동요가 없게 하려 번
제를 드렸던 것이다. 말하자면 당시 그로선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
하는 것만이 초미의 관심사였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그가 기도하고 응답 받은 배경은 꿈속이었다. 그만큼 어떻게 해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지를 두고 밤낮으로 노심초사 했다는 증거다. 그는 도덕적으로 선하고 영적으로 심오한 기도를 드렸다고보다,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이 된 것은 맞지만, 자기에게 가장 절실하고 화급한 과제를 두고 기도했던 것이다.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약점 많은 젊은 왕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신하들이 잘 복종하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통치를 해낼 수 있는 방도가 아니겠는가? 솔로몬은 자기의 처지를 정확하게 평가하였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것이다. 스스로 더 신령해지려거나 거룩해지려는 의도는 일차적으로 없었다.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도를 가장 기도답게 진솔하게 하면 된다. 기도의 본질은 인간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순순히 인정하는 것이다. 모든 능력과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것임을 확신하기에 그분에게 단순히 의뢰하는 것이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전부 부탁하면 된다.

응답 잘 받는 기도의 형식이나 내용이 따로 있다면 이미 그것 자체가 하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은 단지 신자가 기도했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긴 하되 반드시 그분의 뜻에 따라 오는 것이다.

한마디로 모든 기도예 모든 신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매뉴얼이 따로 없다는 뜻이다. 복잡한 전자기기를 새로 구입하면 반드시 매뉴얼을 참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아예 작동조차 못한다. 매뉴얼을 잘 활용하면 할수록 그 기기가 주는 모든 효력을 누릴 수 있다. 기도에는 그런 것이 따로 없다. 아니 있을 수가 없

다.

산소와 수소로 물을 만들려면?

물은 수소와 산소가 2: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실험실에서 그 비율로 두 분자를 섞는다고 해서 절대 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백금이라는 촉매(觸媒)가 중간에서 산소와 수소 두 분자를 매개하여 합성을 촉발하는 작용을 해주어야 한다. 흔히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촉매가 필요하다.

다른 말로 기도를 단순히 은혜 받는 수단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수단’이란 A라는 방식을 사용하면 반드시 a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도에 응답 잘 받는 비결이 따로 있어서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무조건 은혜가 따라온다는 법은 없다. 예컨대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대로 기도했다고 해서 누구나 은혜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신자가 어떤 식으로라도 기도부터 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길조차 없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다 잘 아실 텐데 꼭 기도를 해야 하는지 의아해 한다. 자칫 그럴듯한 생각 같지만 불신자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그 생각이 잘못된지 금방 알 수 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기도란 한 마디로 이 일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다. 불신자는 모든 일을 자기 하려고 들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 가도 기도하지 않는다. 신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하고 있다는 반증이지 않는가?

하나님은 신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당신의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 기도를 통해 신자로부터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에 대한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 단순히 당신의 권위를 높이려는 뜻이 아니다. 기도 때마다 그런 고백을 따로 하라는 것도 아니다. 기도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분은 신자와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고 또 신자의 진정한 믿음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도만 하면 부어주실 복을 잔뜩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이다. 요컨대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channel)이지 얻어낼 수 있는 수단(method)은 아니라는 것이다.

수소와 산소가 일정 비율로 있지 않으면 아예 물이 안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선 기도와 말씀은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나 수소와 산소로 물을 만들려면 백금이라는 촉매가 필요하듯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영적인 촉매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흔히 생각하듯이 기도의 순수함, 진정성, 열심, 정성, 심지어 믿음도 아니다. 물론 개인적 탐욕으로 구하지 않아야 하고 의심 없는 진정한 믿음이 기도의 가장 필수적인 전제이긴 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 없이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체로 이미 상당한 진정성은 내포되었다고 봐야 한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개인적 탐욕만 기도할 수도 없다. 또 당장 필요하거나 꼭 해결해야 할 문제를 거짓으로 아뢰 수는 결코 없다. 신자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때로 과장과 가식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말이다.

이런 것들 외에 반드시 하나 더 필요한데 바로 신자의 갈급함이다. 기도 응답을 잘 받는 특별한 비결이 따로 없지만 갈급함만

은 기도를 가장 기도답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요소다. 갈급하면 다른 모든 요소들 즉, 진정성과 열심과 정성과 믿음이 자동으로 수반될 것 아닌가? 솔로몬이 수준 높은 도덕적 기도를 했거나, 자신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순전히 타인을 위한 기도를 했거나, 나아가 물질과 권세와 장수(長壽) 같은 세속적 목표를 추구하지 않아서 기도가 크게 응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나아가 단순한 오해로 그치지 않고 자칫 신앙을 비뚤게 만드는 지름길이 된다. 작금 사실상 교회 안에 그런 오해로 인한 부작용이 만연되어 있다.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자기를 위해, 그것도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기도했다. 응답을 크게 받은 이유도 자기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구했는데 마침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그는 현실과 자신에 대해 냉정하고도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지녔던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은 제쳐두고 지혜부터 구한 것이 이미 지혜롭다는 반증이지 않는가? 실제로 정치적인 피의 숙청을 마친 뒤에 일천번제라는 종교적인 대화합의 장을 마련한 것을 보면 이미 그는 충분히 지혜로웠다. 그렇다면 자기가 이미 많이 갖고 있는 지혜를 다시 또 더 많이 달라고 한 셈이다.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 외에 그에게 필요한, 사실은 크게 필요치 않는, 다른 것들까지 주었을 것이다.

그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보라. 왕에게 돈이 필요하겠는가, 권력이 필요하겠는가? 그런 것에 전혀 아쉬울 것 없는 위치와 신분이다. 어리석고 탐욕스런 왕은 그래도 자기 것만 더 챙기려 들겠지만 그러면 곧바로 신하들과 백성들의 원성을 부르지 않는가? 역모나 혁명이 일어나 왕위가 오래 못 가는데도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꼴이다. 현명한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만 하면 그 전

부가 자기 것이나 다름없기에 따로 부귀를 구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아는 자다.

솔로몬이 누렸던 엄청난 재물과 장수의 복도 그가 지혜로웠기 때문에 자연히 따라오는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일반인도 지혜로운 자는 술 담배로 자기 몸을 망치는 우를 범하지 않으며, 자금 관리도 철저하게 하며, 성실히 일해서 부를 축척한다. 사용 가능한 자원과 능력에 한정된 일반인도 그럴진대 모든 것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왕이 조금만 지혜롭게 다스려도 나라는 금방 부강해지고 본인도 건강을 누릴 수 있다.

솔로몬이 독단적으로 스스로 노력해 얻은 결과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그 배경에는 모든 것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도 인간의 특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독단적 강제적으로 이루시는 법은 없다. 전지전능하신 주권으로 한 인간의 모든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전부 활용하셔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뤄내신다.

그리고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도 사실은 당신께서 이미 주어놓은 선물이다. 인간은 스스로 일을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 안에서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할 뿐이다. 따라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자기 일을 그분께 기도하면서 수행해나가면 그분과의 동역은 아주 잘 이뤄지고 그분의 주권적 섭리 또한 한층 더 크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법이다.

왜 천억 원을 달라고 기도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신자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데도 기도를 해야 하는 가

장 중요한 이유는 신자는 하나님의 일을 그분 대신에 해야 하는 소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신자 입장에서선 자신이 행할 일에 관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해나갈 수 없다. 하나님의 입장에서선 신자에게 당신의 뜻을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신자의 기도는 필수적이다.

그 이전에 신자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은 없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 안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신자에게 적극적으로 시키는 특정한 일이 따로 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시행하기 위해 서라도 신자의 기도를 우선적으로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신자에게 어떤 일을 시킨다는 것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뜻이 된다. 간혹 신자의 형편이 너무 딱해 하나님이 본의와 다르게 소극적으로 허용하는 일이 있다. 흔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마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다. 물론 하나님으로선 그것마저도 당신의 온전하고도 전체적인 계획 속에 다 포함시켜서 일관된 선으로 이루신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신자로선 하나님이 자신의 형편을 아무리 다 알고 있어도 범사를 두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에서 신자가 가장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어쩌면 알고도 짐짓 모르는 척 하는 것은 정작 따로 있다. 신자가 아무리 기도했다 해도 하나님으로선 당신의 뜻에 어긋나게 역사하는 법은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선 역설적이긴 해도 불신자가 신자보다 영적으로 더 똑똑한 것 같다. 그들이 소원하는 것들, 예컨대 큰돈을 버는 일, 출세해서 세상 권력 잡는 일, 자기를 무시한 상대에게 통쾌하게 앙갚음하는 일 등등은 하나님에게 빌어봤자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알기에 그들은 아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이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신앙 지식 하나 없이도 본성적으로 안다. 대신에 점쟁이를 찾아 간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닌 일반 잡신들은 자기 요구대로, 돈만 많이 내면 들어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따져서 신자들이 자신 있게 자기 소원을 무엇이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도 불신자들의 그런 심정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그 소원을 하나님이 그리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과 추측을 이미 하고 있다. 만약에 자기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합당하다고 확신한다면 왜 열심히 기도하지 않겠는가?

신자가 그런 확신만 선다면 년 간 수십억 원의 수입을 달라고 기도해도 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정직하며, 번 돈을 쓰는 용도도 의롭다면 얼마든지 수십억 아니 수천억 원을 달라고 당당하게 기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경우는 극히 드물긴 해도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그렇다는 말이다.

따라서 신자는 기도하기 전에 자기가 소망하는 내용부터 하나님 앞에 과연 당당한 기도 제목인지 미리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 당장에 상당수의 기도가 필요 없음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또 예수님의 권면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많이 사라질 것이다. 정말로 갈급해서 여러 번 아뢰는 것과 당당하게 요구할 자신감이 없어서 주절주절 핑계나 잔소리 늘어놓는 기도는 별개다. 주님이 금한 중언부언의 기도는 후자다.

가끔 십일조로 월간 천만 원을 바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하는 신자가 있다. 그 말은 수입이 일억이 되게 해달라는 뜻이다. 언뜻 십일조를 천만 원이나 하겠다니 대단한 믿음이요 헌신하는 일군 같다. 그러나 십일조로 천만 원을 바쳐도 자기 앞으로 구천 만원이나 떨어지니 얼마나 짝짝한 장사인가? 십일조를 더 하겠다는 명분을 동원해 자신의 수입을 늘리려는 탐욕일 뿐이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 현실에서 형통하고 그 여분으로 종교적 실적도 쌓아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려는 그 심중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지 못하실 리 없지 않는가? 신앙에서 그런 식의 꿩 먹고 알 먹고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당신 외에 두 주인을, 그것도 돈을 섬기는 믿음이다. 그분의 질투, 아니 불같은 저주의 대상이 될 뿐이다.

월간 일억 원의 수입이라도 당당하게 기도하라는 것은 그만큼 갈급한지 따져보라는 뜻이다. 정말로 절실하게 그 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예컨대 아프리카에 에이즈 치료 병원이나 선교센터를 세우는 일같이, 꼭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절실하다면 자연히 그 일만 붙들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게 된다. 나머지 모든 일은 다 포기해도 좋다는 뜻이다. 심지어 생명마저 잃더라도 오직 그 하나만 이뤄지길 소원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생명과도 바꿀 절실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두고 일천 번제를 드려야 하지, 자기 소망 이루기 위해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하나님의 응답해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 126:4-6)

갈급한 기도에는 반드시 눈물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일만큼 절실한 것이 따로 있었겠는가? 다른 모든 일이 어떻게 되던 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가장 시급했다. 포로귀환이야말로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심지어 목숨이 달아나더라도 이루어야 할 한 가지 일이었다. 어차피 죽기는 마찬가지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땅 바벨론에서 생애를 마치는 죽기보다 싫었던 것이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십시오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출32:31,32)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며 먹고 마시는 배역 죄를 저질렀다. 진노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자 모세는 정말 눈물을 뿌리면서 차라리 자기를 지옥에 보내는 한이 있어도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다. 모세에게 동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었다. 동시에 온갖 풍상을 겪으며 살만큼 산 80 노인으로서 일생일대의 개인적 소원이기도 했다. 그로선 그것 외에 말년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다. 자기 삶과 인생의 전부였다. 진정으로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동족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 싶었다.

솔로몬이 거창한 일이 아닌 자기 내면의 지혜만 구했다고 해서 뜨겁지 않고 미지근한 기도는 결코 아니었다. 내용적으로는 모세의 이 기도와 하나 다를 바 없었다. 상황이 위급한 것과 평상적인 일이라는 차이만 있었다. 지도자가 가장 절실하게 구해야 할 것은

어떤 형편에서건 백성들의 안락이다. 모세와 솔로몬은 각기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간구를 한 것이다. 그들은 둘 다 올바른 지도자였기에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별다른 비결이 없다. 비결을 찾는 것부터가 사실은 잘못이다. 단순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나 소원하는 것부터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기도하면 된다.

구태여 도덕적으로 고상하고 종교적으로 신령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는다는 생각이 앞서면 이미 제사보다 젓밥에 마음이 가있는 죄를 범한 셈이다. 솔직히 우리 대부분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거룩한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큼 의롭거나 믿음이 좋지도 않다.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 열심히 오래 동안 기도해도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 어떻게 미리 알아서 그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너무나 무리한 요구이자 자기 믿음을 과대 포장한 것이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면 매사를 망치듯이 신앙에도 스스로 힘을 집어 넣으면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쇠퇴하게 된다.

따라서 무엇이든 생각나는 대로, 심지어 자기 뜻과 계획을 고집하는 것 같더라도, 기도는 무조건 일단은 하고 보아야 한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보다는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베이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하다. 기도하는 비결을 배우려 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

“쉬지 말고”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라는 것이다. 결국 기도가 밥 먹고 누워 자는 일 같이 몸에 완전히 밴 습성이어야 한다. 자꾸 기도하다 보면 차츰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게 된다. 또 신자라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최소한도 싫어하는지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미리부터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자의 기도는 사실은 처음부터 자신 있게 하는 기도와 계속해서 주저하는 기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실제로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기도는 분명히 응답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만 반대로 아무래도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가? 그래서 신자 스스로 불필요한 기도를 정리해 나가면서 차츰 자기가 정말로 꼭 해야 할 기도 즉, 가장 갈급한 기도에만 집중하면 된다. 흔히 기도의 맥이 잡힌다고 말하는데 단순히 기도의 언변이 청산유수로 바뀐다는 뜻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 기도해 나가는 중에 차츰 자기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다급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직 젊은 탓도 있지만 자기 앞에 있었던 두 왕들에 비해 특별히 뛰어난 것이 없었다. 사울은 전투에 능했고, 다윗은 믿음이 견고하고 품성이 다정다감해서 부하들의 신임을 얻었다. 비록 모반이 실패로 끝났지만 배다른 형 압살롬마저 백성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틀림없이 그는 “지혜를 주지 않으면 나로선 이 많은 백성들을 도저히 다스릴 수 없습니다. 지혜를 주시지 않을 양이면 차라리 나는 왕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간구했을 것이다.

예수님도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다. 끈질긴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인내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갈급하다면 당연히 계속 기도하게 된다는 뜻이다. 꼭 이뤄져야만 할 소망이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면 어느 누가 끝까지 기도하지 않겠는가?

기도에 모두를 걸어라.

기독교의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끝맺는다.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다. 그 기도를 하게 된 경위와 응답이 이뤄지는 근거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었다는 표현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죄인이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신자를 다루시는 원리가 오직 십자가에 드러난 복음에 근거한 것이며, 그래서 기도의 응답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해 이뤄질 것임을 믿는다는 고백이다.

요컨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기도조차 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마다 그분의 동일한 은혜가 다시 풍성하게 부어질 것임을 믿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도하는 내용 전부와 그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죽음과 맞바꿈 하는 셈이다.

그런 만큼 신자는 기도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우선 기도하는 내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일임을, 그것도 자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확신해야 한다. 그 일을 이루시는 근거와 능력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 권세로부터 기인함을 믿어야 한다. 단순히 소원하는 것을 아뢰다가 응답이 되면 좋고 안 되어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식은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다. 끈

질기게 생명을 건 기도를 할 만큼 그 소원이 강렬하고 갈급해야 한다. 또 그런 기도라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맺을 의미와 가치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다. 소원을 중복해서 아뢰는 것마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갈급하면 자꾸만 아뢰게 된다. 괜히 필요 없는 가식과 미사여구를 덧붙이지 말고 또 틀에 박힌 형식적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외적으로 근사하고 장황한 기도가 응답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기도 자체가 벌써 수단으로 변한다. 나아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종교적 실력을 뽐내려들지 말라는 것이다. 갈급하지 않으면 자꾸 중언부언하며 기도하게 된다. 진짜로 갈급하다면 긴소리 잔소리 늘어놓을 여유가 어디 있겠는가?

너무 힘들어 기도조차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도 있지 않는가? 그저 “주님!”이라고, 그것도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그 이름만 부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은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하는 잘못을 범하여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고도 쫓겨났던 하갈의 신음 소리마저 하늘에서 감찰하시고 들어주셨지 않는가?(창16장)

신자는 솔로몬이 의로운 기도를 했기에 구하지 않은 것마저 풍성하게 더 받은 모습에 신앙적인 관심을 모으지 말아야 한다. 비천한 하갈이 정식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단지 힘들어 하는 모습을 이미 다 알고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만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래서 나를 앞으로 어떤 뜻과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지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에 비추어 묵상해야 한다.

기도란 그래서 한 마디로 “우리 영혼의 그분을 향한 목마른 갈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이다. 그 이상이나 그 이하를 추구하려 해선, 그것도 응답 받을 욕심부터 앞서서, 안 된다. 그분의 그분다우심을 온전히 인정하여 자신의 인생과 삶과 존재 전부를 그분께 완전히 의탁하는 것이 기도다.

신자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분만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면 할수록 자꾸만 그분의 사랑에 더 목말라진다. 자연히 무엇이든 자신에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가장 갈급한 부분부터 간구하게 된다. 또 그러면 그분께서 그분의 온전한 뜻 안에서 그 간구를 당신의 뜻에 맞는 갈급함으로 바꿔 주신다. 기도 응답을 잘 받는, 그것도 솔로몬처럼 대박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절대 따로 없다. 단순히 무엇이든 기도하여서 항상 기도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나머지 은혜의 비결은 모든 기도 중에 저절로 터득하게 될 것이다. 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뜻을 정확히 알고서 말이다.

가슴 대신에 오히려 머리로 믿으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당신을 돕기 위해 주변에 두신 것들을 당신
스스로 막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

- 제임스 R. 화이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만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

- 프랑크 제인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隨從) 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왕하 1:14-17)

머리부터 믿어야 한다.

흔히들 “머리로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어라”는 말을 많이 한다. 가슴으로 믿는다는 것은 신앙여정에서 감동과 체험과 열성과 진정성 등을 중시한다는 뜻일 것이다. 또 머리로 믿는 것은 이성으로 따지고 분석하여 합리적이어야만 믿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언뜻 보면 아주 옳은 말 같지만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렸다. 신앙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 성숙되어 능력 있는 믿음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겨선 안 된다.

그 말이 일차로 의미하는 바는 신앙에는 머리로 믿는 방식과 가슴으로 믿는 두 영역이 있는데 전자는 틀렸고 후자가 옳다는 것이다. 이 진술이 합당한지 살피려면 무엇보다 그 둘을 정확히 구분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당장 그 둘을 구별하여 정의부터 내리려 해도 머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머리로 믿지 말라고 하면 애초부터 불합리하지 않는가?

믿음이란 근본적으로 머리가 동원되지 않고는 생기지 않는다. 예컨대 사장이 부하 직원을 신뢰하려면 이모저모로 따져 보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 머리가 거의 전적으로 개입되어야 한다. 만약 가슴이 잘못 작용하면, 예컨대 직원의 외모와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라 실력은 따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연애 할 때 감정이 앞서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는 바람에 나중에 낭패를 보았다고들 말하지 않는가?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후에 손을 놓지 않고 지금도 세상만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특별히 성도 개인과 친밀한 인

격적 관계를 이어가신다. 신자로선 하나님의 자기 인생에 대한 뜻을 깨달아 실제 삶에서 그대로 따르는 것이 최우선적인 신앙 과제가 된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신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여 동행해주신다.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의 깨우쳐 주는 지혜에 따르면 자신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헌신할 수 있다.

문제는 하나님이 때때로 신자의 머리가 온전히 작동할 수 없거나, 하더라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후사정이 도무지 분별이 안 되기에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어서 기필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가슴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은 현실이 이성으로 납득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지만 말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먼저 순종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이다. 실제 체험에서 연단되었기에 어지간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 말이 너무 자주 강조되다 보니까 원래 의도한 바와는 다른 부작용을 일으켰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성이 차지하는 영역을 없애거나 아주 좁혀버렸다. 믿음은 결코 이성으로 파악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심한 경우는 성경을 지성적으로 분석하고 공부할 양이면 크게 잘못하고 있거나 심지어 잘못된 믿음인양 취급하기도 한다.

믿음이 이성과 반(反)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이성을 다 망라한 위에 초월할 뿐이다. 이성을 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믿음 안에서 이성이 해야 할 응분의 역할이 있다는 뜻이다. 나아가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인간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럼 어떤 결론에

이르는가? 신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자기 이성을 동원해 따지고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믿고 보라는 것이 오히려 말이 안 된다. 이성이 배제된 신앙은 자칫 미신과 맹신과 광신으로 이끌 뿐이다. 잘 모르는 것을 믿는 것은 미신이요, 무조건 눈감고 알고고도 앎고 믿는 것은 맹신이요, 정확한지도 모르고 극단적 열심만 보태면 광신이다. 믿음은 오히려 이해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이성으로 정확히 구분해서 각기 합당하고도 적절한 반응을 해야 한다.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을 그 이해하는 범위까지만 믿고 그치는 것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다. 가슴으로 믿는 부분이 미처 작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슴으로 믿는 것은 특별히 머리로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동원되어야 한다.

결국 올바르게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려면 가슴과 머리 둘 다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 사안을 두고 둘이 떨어져서 별개로 작동되어선 안 된다. 쉽고 간단한 일상사는 머리로만, 크고 오묘하며 신비한 일은 가슴으로만 믿으라는 법도 없다. 한 신자가 한 사건을 두고 둘 다 동시에 동원하여서 각각의 기능이 충분히 작동되고 또 완벽하게 조화되게끔 믿어야 한다.

신앙이란 절대자 하나님과 인간 신자 간의 상호 인격적인 대면이다. 완전한 하나님 그분과 완전한 인간의 두 인격체가 서로 만나 교제하고 동행하는 여정이다. 당연히 신자는 그분께 전인(全人)으로서 지정의와 영혼을 다 동원하여 순응하여야 한다. 머리를 빼고 가슴으로 믿으라는 말은 처음부터 아예 잘못되었다는 뜻이다.

신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되 그분이 이루시는 일을 이성적으로는 잘 분별하고, 감성적으로도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면 된다. 그리고 이성과 감성을 균형 있고도 일관되게 작동 시킴에는 적절하고도 끈기 있는 의지로 뒷받침해야 한다. 나아가 의지가 일관되게 작동되려면 그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깨끗하고도 견고하게 서있어야 한다.

신앙의 두 축

머리로 믿는다는 의미는 신자가 어떤 신앙적 행동과 말과 사고를 하든지 간에 왜,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언제, 어디서, 해야 하는지 온당하고도 합리적으로 인식한 바탕 위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부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그에 대한 신앙적 반응은 반드시 이성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해되지 않는 대상은 신자의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나 형성된 여건이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신자가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판단한 결과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도 자기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을 신자 스스로도 납득되지 않는 방식으로는 대처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야말로 미신, 맹신, 광신으로 흘러 버린다.

나아가 머리로 이해된 신앙은 반드시 가슴으로까지 내려와야 한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품성과 가치관부터 변화시켜야 한다. 신앙을 갖기 전과 비교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후에 발끝과 손끝까지 그 신앙이 내려가야 한다. 바뀐 가치관과 생각들이 손과 발을 통해 실제 삶에서 구현됨으로써 생활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과 달라져야 한다. 주위에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발휘해

야 한다. 믿음을 머릿속에만 남겨두면 믿음이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믿음을 가질 의미와 가치는 물론 필요도 없다. 단순히 종교적 지식이자 관념 내지 신념일 뿐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을 거쳐 손과 발의 끝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가슴으로만이 아니라 머리가 합당하게 작용하여야 한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약 2:17)이라고 했다. 행함이 없다고 구원을 받지 않았거나 믿음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어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22절)고 했지 않는가? 믿음이 머리 속에만 남아있지 않고 가슴을 거쳐 손발 끝으로 내려와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내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구원의 길을 묻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가르쳐주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라고 되물었다. 자기 이성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는 추가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였다.(요3:1-9)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간섭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인간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된다. 눈에 안 보이는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듯이 성령의 역사도 그러하다. 니고데모에게 이성적인 분별력이 모자란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듯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마저 깨닫지 못할 정도로 모든 인간은 영적 차원에서 전혀 무지하다.

원죄 하에 태어난 영적 소경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은 불가사의할 수밖에 없다. 그분의 보혈로 모든 죄가 깨끗이 씻기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일에는 인간 이성으로 분별하고 판단하여 결단하는 의지적 수고의 개입을 전혀 불허한다. 그렇다고 신통력이 있는 주사 한 방으로 인간의 지정을 완전히 마취시켜 본인도 모르게 “뽕”가게 해서 믿게 만든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사단에 미혹된 한 영혼을 당신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지정을 초월할 만큼 불가항력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또 그런 은혜의 역사가 아니고는 구원이 이뤄질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 인간의 수고와 공로와 자격이 하나도 힘을 쓰지 못한다는 뜻에서 인간 이성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는 하나님이 신자가 당신의 뜻을 이성적으로 깨닫는데 도움이 되도록 성령을 내주게 하셨다. 특별히 당신의 뜻을 완전하고도 절대적으로 계시해 놓은 성경을 읽을 때는 더더욱 그래야 한다.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저절로 깊은 성찰이 술술 생긴다는 뜻이 아니다. 이왕에 소지한 자신의 지정의가 하나님 중심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신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경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부분은 오히려 이성이 담당할 부분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인간이 처음 구원을 얻는 구체적 과정은 이성으로 인지, 이해, 분석하지 못한다. 그렇게 믿어지고 난 이후에는 예수를 믿는 신앙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성으로 알 수 있다. 또 알아야만 한다. 믿기 전에는 까닭 없이 예수가 밋다가 믿은 후로는 이유가 없이 예수가 좋아진다. 그럼 더더욱 그 좋아진 이유를 사후에라도

따져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를 믿기 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자신의 신분, 위치, 특권을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고도 경건하게 이어가야 한다.

비록 처음에는 가슴을 통해 예수를 믿었지만 그 이후에는 머리로 그 신앙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잘 유지해야 한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분이 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어떻게 하면 그분과 관계를 더 풍성하고도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분의 원리는 어떠한지, 반면에 세상은 그 원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신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당한지 탐구하고 묵상해야 한다. 나아가 인간의 고통과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죽음 이후의 영역은 어떠하며 인간은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등등 정말로 머리 우선적으로 알아야만 할 신앙 요소들은 너무나 많다.

물론 아무리 신자가 이성적으로 자신이 믿은 내용을 깨달을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역사하는 모습은 여전히 신비롭기만 하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 전부가 아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이 생긴다. 믿음은 그야말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일 수밖에 없다. 또 보지 못하고 바라는 것들이기에 더더욱 머리로 분석할 수 없다. 정말 그분의 약속이 이뤄질 소망을 키우고 인내 하면서 가슴으로 믿어야 한다.

따라서 구원 이후에도 신앙에는 가슴으로 믿어야 할 부분과 머리로 믿어야 할 부분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 그 둘이 완전히 격리된 채 서로 다른 영역에서 따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둘은 항상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머리로 먼저 믿게 된 신앙은 반드시 가슴까지 내려가야 하고, 또 가슴으로 믿는 신앙도 머리로

보완해 주어야만 더 견고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요컨대 신자는 오직 말씀과 기도의 두 축으로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말씀은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깨달아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그에 맞추어 머리로 분석하는 신앙이다. 기도는 현재 상황의 배후에서 눈에 안 보이지만 오묘하게 역사하는 그분의 섭리를 가슴으로 믿는 신앙이다. 어느 한 쪽도 등한시 할 수 없다. 그동안 너무 무시되어 왔던 (가슴뿐 아니라) 반드시 머리로 먼저 믿어야 하는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불신앙의 의미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마6:31-34)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말씀의 결론이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신자가 염려하는 문제를 이방인의 종교와 연관시키고 있다. 그것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걱정해서 오직 그것만 자기들 신께 비는 모습과 말이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방인들도, 기독교에서 볼 때는 불신자들도, 일종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들도 어떤 형태가 되었든 신(神)이라는 존재가 있으며, 그 신이 인간의 먹고 마시는 것을 주

관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다.

그럼 기독교 신앙과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고상한 신앙을 가졌고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만 구하는 저급한 신앙을 가진 것인가? 물론 그런 차원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결과적 모습을 비교한 것뿐이다. 그런 결과를 불러온 내면적인 차이부터 따져봐야 한다.

우선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 내일 일의 가장 큰 특성은 먹고 마신다는 저급한 차원이 아니라, 눈에 안 보 이기에 미리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불신자 신자를 막론하고 안 보이는 것은 자연히 염려 될 수밖에 없기에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붙들게 된다. 신을 믿는 자는 당연히 그 신에게 가장 먼저 빌 것이다.

따라서 신자가 내일의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기도해선 안 된다는 법은 없다. 예수님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지, 그런 것을 아예 구해선 안 된다고는 말씀하지 않았다. 당신께서 직접 가르치신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다.

그러나 신자가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신자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만 구하거나, 그것부터 먼저 구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한 것이다. 당신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먹고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는가?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다 아신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신자가 이방인과 다른 혹은 달라야만 하는 점이 바로 이것이다. 이방인도 먹고 마시는 것이 인간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뭔가

눈에 안 보이는 손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신이 자기들의 개인적 필요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말하자면 신과 자기들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아예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 신이 어떤 분인지, 자기들을 어떻게 대해주는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먹고 마실 것에 대한 염려만 생기고 또 어떡하든 그 염려를 없애달라고 신에게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

신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 신의 각 개인을 향한 계획과 목적도 있을 리 없다. 당연히 이방인은 신의 뜻과 계획대로 살지 못한다. 그 신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일은 전혀 간구하지 않고 또 간구할 줄도 모른다.

쉬운 예로 점쟁이를 찾아가는 자들이 인생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신들의 조종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은 믿거나 눈치 채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천지신명의 자기를 향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뜻대로 살겠다고 물어보는 자는 아무도 없다. 오직 건강, 진학, 취업, 사업, 결혼, 가정에서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만 해결 받으려고 한다. 먹고 마시는 것만 구할 뿐이다. 자기 기분대로만 살고 싶은데 혹시 신의 방해가 있으면 조심할 것이고 대신에 신의 인도가 있으면 더더욱 좋겠다는 뜻일 뿐이다. 인간이 돈으로 신을 부려 먹으려는 짓이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믿는 신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기에 아무리 간구해도 응답되지 않는다. 어찌다 자기들 소원대로 되는 것은 순전히 우연의 일치이거나 자신들의 노력에 의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줄을 전혀 모르니까 빌고 또 빌기만 한다. 또 더 많이 받기 위해 자꾸 더 많이 바친다. 그렇지만 아무리 간구해도 채워지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니까 염려가 끊일 리가 없다. 점쟁이 집 문턱은 닳고 복채는 갈수록 올라갈 따름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불신앙이란 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 신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무지(無知)가 불신앙이다. 보이지 않는 내일의 염려를 없애려면 정말 가슴으로 믿는 신앙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이방인으로선 머리로 믿는 신앙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지금 빌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그저 빌기만 할 뿐이다. 자연히 어떤 신이라도 다 수용하고 나아가 빌 수 있는 신들이 많을수록 더 좋다.

신자의 어리석음

정작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방인의 잘못을 꾸짖으려는 뜻이 아니라 신자에게 하셨다는 점이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더러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했다. 그럼 그렇게 하는 신자도 있다는 뜻이다. 보이지 않는 내일의 먹고 마실 것만 염려되어 그저 달라고 빌기만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흥미롭지 않은가? 보이지 않은 내일을 위해선 분명히 가슴으로 믿는 신앙이 필요하기에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만 하면 염려가 줄지 않는다고 말한 셈이다. 대신에 너희가 간구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기만 하면 보이지 않는 내일의 일도 염려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신자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자는 그분 쪽에서 자기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즉,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머리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다시 말하건대 신앙이 하나님의 존재함과 그분이 이 땅의 주인

임을 믿느냐 못 믿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다. 불신자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만 모를 뿐이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더 가슴으로 믿으려 든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내일의 먹고 마시는 염려에서 헤어 나올 수 없다. 힘든 일만 생기면 기도하고 또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염려가 없어지지 않는다. 신자도 가슴으로만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으라고만 가르친다. 그런 권면을 너무 많이 들어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제는 거의 맹목적으로 믿으려 든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무조건 자기 요구를 채워 달라는 때를 쓰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신자가 되어버렸다. 교회 안에도 이방인처럼 그저 가슴으로 빌기만 하는 신자가 많이 생길 줄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던 것이다. 바깥 말해 예수님도 믿음에는 오히려 머리를 동원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분명히 가르치셨던 것이다.

가슴으로 그분을 믿으려면 중요시되는 것은 당연히 체험이다.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받은 은혜가, 그것도 자신의 먹고 마시는 것이 풍요로워지는 응답이 없으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것은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다. 그런 믿음을 강조하는 쪽에선 기도 응답의 체험이 적으면 믿음도 약한 것처럼 간주된다. 자연히 성경 진리를 이성으로 따져 그 약속을 언제 어디서 어떤 경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게 붙드는 측면은 약해진다. 눈에 안 보이는 내일의 일이 염려될수록 더더욱 그분이 어떤 분인지 머리로 알아야 함을 알지 못한다. 믿음에 머리를 전혀 안 쓴 필연적인 결말이다.

가슴으로만 믿다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 신자가 이미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는지, 그래서 무슨 특권을 소유하고 있는

지 미처 알지 못한다.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가 세상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맺어져 있음을 제대로 모른다.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가시적으로 그것도 중단 없이 겪어야만 겨우 그분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눈치 챈다. 가슴으로 체험하지 않고는 머리의 깨우침마저 없다. 머리는 기껏 가슴으로 겪은 체험을 기억하고 회상해 내는 역할로만 동원된다.

심지어 성경을 보는 태도마저 무조건 믿고 보는 식으로 바뀐다. 살펴 본대로 진짜 불신앙은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이었지 않는가? 그런데도 성경의 앞뒤를 이성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불신앙으로 간주하니 이만한 신앙상의 오류도 없다.

성경마저 가슴으로 읽는 신앙

본문의 엘리사와 게하시의 불 병거 사건은 성경을 왜곡된 가슴 신앙으로만 읽는 가장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신자가 이 기사를 볼 때에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불 병거와 불 말이 나타난 것으로 간단히 이해하고 치운다.

그러나 불 병거와 불 말은 그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 있었다. 엘리사는 단지 “저(사환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고, 또 아람 군대들의 눈은 반대로 어둡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이다. 그가 “아람의 대군이 쳐들어와 성을 에워쌌고 게하시마저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염려하고 있으니 어서 빨리 불 병거와 불 말을 보내주어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미 와 있는 불 병거와 불 말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는 게하시야말로 내일의 먹고 마실 것만 염려하는

바로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다.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재증명(不在證明)이 결코 될 수 없다. 명색이 신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니까 그분이 명료하게 보이지 않으면 자꾸만 아예 안 계신 양 간주하려 든다.

그에 비해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믿고”가 아니라) 있었다. 물론 그가 평소에 “믿음으로” 자기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했기에 그런 “앎”을 가질 수 있었다. 또 그 결과 이번 위기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지켜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그의 담대한 믿음의 행함에는 머리 신앙이 상당한, 아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 반대다. 급한 일이 생겨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만 불 병거와 불 말이 출동 준비하는 줄 안다. 그리고 그 출동을 어떻게 하든 빨리 재촉하려고 가슴으로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신자의 기도가 없으면 당신의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맞다. 그러나 기도로 그분의 섭리와 주권적 통치마저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분은 세상만사를 특별히 신자에 관한 일을 오직 당신만의 계획과 일정에 따라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하심이 출발하는 곳은 언제나 신자가 기도하기 훨씬 이전의 눈에 안 보이는 곳이다. 기도하기 전부터 즉, 영계에서 역사하고 있었으므로 신자에게는 당연히 그 은혜가 기도하는 순간까지 감춰진 것처럼 이해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신자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주권적 통치가 자기 기도한 내용과 연관되어져 눈에 보이게 된다. 또 기도로 그분

의 오묘한 역사가 신자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힘을 얻어 염려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계획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된다. 나아가 신자로 하여금 그분의 일군이 되고자 하는 열심과 소원도 품게 만들어 준다. 아직 기도한 제목들이 현실적으로 기도한 대로 전혀 응답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따라서 기도하는 중에 현실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도 마음의 염려가 없어지고 영혼의 평강을 회복하는 것 자체로 이미 기도 응답을 얻는 것이다. 또 바로 그런 기도 모습이 머리로 믿는 믿음이다. 아니 정확히 말해 가슴으로 믿으면서도 동시에 머리로 함께 믿는 올바른 신앙이다. 눈물 콧물 흘리며 큰소리로 울부짖으며 기도해야만, 끈질기게 아주 오랫동안 기도해야만, 기도한 것은 다 이뤄질 것으로 미리 믿어야만, 소원이란 소원 하나 빠지 않고 다 이뤄야만, 큰 믿음으로 자기 소원을 크게 불러서 뜨겁게 기도해야만 등등 가슴 신앙만 강조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한마디로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는 신자는 그분의 불 병거와 불 말이 항상 자기를 호위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심이 없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급한 일이 닥쳐야 움직이는 자기 같은 게으름뱅이인줄 착각한다. 그러고는 감성을 동원해 쥐어짜듯이 뜨겁게 기도했다는 한 가지 이유로 자신은 가슴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좋은 신자인양 착각한다. 구원 후에는 오히려 머리로 그분을 잘 믿어야만 즉,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만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른다. 아니 관심조차 없다. 오직 문제와 고난을 빨리 해결 받는 데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또 그러려면 가슴으로 뜨겁게 믿어야만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항상 먼저 가 계신다. 그 진리를 확신하는 것은 머리 신앙이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해지는 것이 가슴 신앙이다. 또 먼저 가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머리 신앙이고 그 발견된 하나님께 온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가슴 신앙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 잘 알기에 그곳만 찾아서 그분의 일에 동참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머리 신앙이다. 자신의 형편과 주위 여건이 어떠한든 상관없이 담대함과 기꺼움으로 찾아낸 곳으로 가서 동행하는 것은 가슴 신앙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8-20)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확고히 약속했지 않는가? 예수님이 세상 끝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다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겨우 대적을 무찌를 수 있는 불 병거와 불 말 뿐이겠는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

시겠느냐. ...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8:31,32,35, 37-39)

우리를 대적하는 곤고, 환난, 핍박, 기근, 위험, 적신, 칼 같은 모든 것에서 지켜 주신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 위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고 했다. 그것도 지켜주신다는 말씀보다 앞서 약속했다. 지켜 주시는 것은 대적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게 만드는 최소의 방어책일 뿐이다.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시며 대속하신 당신의 자녀들이 대적에게 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계실 리는 절대 없지 않는가? 그분에게는 신자를 지켜주는 일은 너무나 기본이다.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것은 신자가 당신의 일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의 관심은 장래에 신자가 행해야 할 일에 가있는데 우리의 초점은 오직 그분이 현재 위험에서 자기를 지켜주는지 여부에만 가있다.

그래서 성경은 “현재 일이나 장래 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게 유효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현재 일이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장래 일이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아도, 다른 말로 가슴으로 믿는 믿음으로도 수용하기 힘들어 할 때에도,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믿음은 먹고 마시는 것만 비는 이방인들의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주님이 세상에 직접 오신

까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로 머리로 알게 하고 가슴으로 반응하게 하려는 뜻이었지 않는가?

사랑이란 본질적으로 방어만 해주는 것을 훨씬 뛰어 넘는다. 오히려 공격적인 의미를 지닌다. 받는 것만으로는 사랑이 아니다. 주는 것, 그것도 오직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신자들이 좋은 것을 그분께 바쳐서라면 이미 사랑이 아니다. 오로지 당신께서 자녀에게 먼저 주고 싶어야 참 사랑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 전에, 아니 알기도 전에 심지어 죄악에 빠져 당신과 원수 상태에 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찾아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잘못된 주일 대표기도

주일 대예배 때에 대표기도를 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잘못이 하나 있다. 완전히 잘못되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뭔가 부족한 것만은 틀림없다. 바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신자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또 이미 그곳에 함께 계시는 분한테 또 다시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면 이상하지 않는가?

그 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변함없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맞는 말이다. 혹시라도 우리가 가진 의심과 불만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차라리 솔직히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아니면 죄 지은 일이 많아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지 모른다는 염려가 앞선 것인가? 그렇다면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무슨 뜻으로 죽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신앙일 뿐이다. 십자가 앞에 완전히 항복하여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비록 죄에 빠져 있어도, 오히려 그럴수록 그분은 절대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신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더더욱 그렇다.

간혹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미 임재해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알고 믿지만 좀 더 강하고 풍성한 모습으로 임재해 달라는 뜻의 기도라고 말한다. 물론 그 충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 또한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일단 어디라도 임재하면 하나님 당신의 전부가 임재하는 것이니 일부만 임재하는 법은 없다. 말하자면 어떤 곳에는 불 병거와 불 말로 함께 해주지만 다른 곳에는 그저 군사 한두 명으로 임재해 주는 법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일 뿐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나 은혜가 상황과 사람과 시기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지 않는다. 영원토록 스스로 자존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 작은 것은 없고 그분의 임재에 약한 임재란 없다. 언제 어디서나 전지전능하시며 완전하시다. 그 권능과 은혜에 부족함이 있도록 임재하는 법은 절대로 없다. 아니 그분이 약해지거나 강해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법이다.

주일 대예배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미 임재해 있다. 따로 더 강력하게 임재해 달라는 간구도 원칙적으로는 틀린 기도다. 단지 인간이 그분의 임재를 감지하고 인식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지 그분은 그분이실 뿐이다. 신자에 따라 머리로 이해되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지는 크기만 다르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엘리사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불 병거와 불 말을 보게 해달라고 해야 맞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테니 불 병거와 불 말을 특별히

주일인 오늘 따로 많이 보내달라는 것은 틀린 간구라는 말이다.

물론 하나님 쪽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처럼 특별한 부흥이 필요하여서 당신의 계획과 일정에 따라 특별한 장소의, 특별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모습으로, 특별한 목적을 갖고 특별히 강하게 임재 하시기도 한다. 우리의 이해 수준으로는 하나님이 때와 장소에 따라 임재하는 세기가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분명 있다. 필요하다면 엘리사의 기도로 아람 군대의 눈을 열었다 닫았다 했듯이 불신자의 눈에도 확연히 보이는 가시적 방식으로 스스로를 현재(顯在-드러내 보여서 임재 함)하신다. 요컨대 강하고 약해지는 것은 신자들의 준비되고 헌신된 자세에 따라서 성령이 구체적으로 신자와 교회에 역사하는 모습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어떤 경우가 되었든 인간더러 느끼고 인식하게 하는 방식이 특별한 것이지 하나님 그분이 더 강해진 것은 아니다. 다른 말로 주로 신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간혹 기도와 무관하게도 이뤄짐, 사람들의 눈을 더 활짝 열어주어 그 특별한 방식을 더 강하게 인식하도록 해준 것뿐이다.

따라서 신앙의 절실한 과제는 엄밀히 따져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여부가 아니다. 신자가 그 임재를 제대로 정확하게 볼 줄 아느냐 모르느냐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다는 것이다. 그분을 알지 못한다면 이미 임재해 있는 그분을 보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으키는 오순절 같이 특별히 가시적인 임재가 아니고선 말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호3:6)

신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분의 임재를 더 가깝고도 강하게 체험하게 되고 자연히 그분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 신앙은 그분을 더 많이 알아나가는 싸움으로 평생을 두고 머리에서부터 그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아무리 체험이 많아도 가슴으로 믿어 머리에까지 이르지 못하면 반쪽 믿음일 뿐이다. 머리로 성경 진리에 비추어 정확하게 재해석하지 않는 체험은 신자로 신비주의, 체험주의, 은사주의의 극단으로 쉽게 변질시킬 수 있다. 심해지면 이방인의 사악한 우상숭배 불신앙으로 타락될 수 있다.

실제로 구원 이후에는 머리로 믿어 가슴으로 내려가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맹목적으로 가슴으로 믿으라는 뜻이 아니다. 예수님 육신적으로 이 땅에 계셨을 당시의 신자들처럼 주님을 직접 뵈지 못하니까 더더욱 성경을 파고 또 파서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붙들라는 것이다.

아울러 머리의 믿음이 손발까지 가서 실현될 때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가슴에 충만케 채워진다. 또 그런 가슴의 은혜로 인해 머리속의 진리가 완전한 확신에 거하게 된다. 한 마디로 신앙은 가슴과 머리에서 한 순간의 멈춤도 없이 계속 순환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신자는 평생토록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하는 법이다.

당신이 이미 창대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가?

- 신자가 겪는 고난에 대한 오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 오스왈드 샌더스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릴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투자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 어윈 루처

“수아 사람 발뺌이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8:1-7)

신자가 가진 가장 근본적이고도 귀중한 특권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라곤 자기 외엔 아무도 없었음에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인간적 열심을 넘어서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성경은 그 후손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로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약속”과 함께 “예배”도 열거한 것이다.(롬9:4) 오늘날의 신자도 주일날 교회의 공적 예배뿐 아니라 개인적 사유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은 너무나 큰 은혜요 세상 사람이 결코 누리지 못하는 축복이다.

그런데 개인적 예배 시에 인도자가 축하하며 기도하는 말로 가장 자주 인용하는 성경구절이 하나 있다. 또 액자로 만든 그 구절은 개업예배 선물로 특별히 인기가 높으며 신자들 가정에도 많이 걸어 놓았다. 신자들이 아예 입에 달고 다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덕담처럼 건네니까 불신자들도 알고 외울 정도가 되었다. 바로 본문의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것이다.

이 구절이 이렇게 애용(?) 받는 이유는 틀림없이 비록 개업할 초기는 아직 손님이 적을지 몰라도 곧 사업이 크게 번창할 것을 소망하거나 믿는다는 뜻일 것이다. 일반 가정에서 이 액자를 걸어 놓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못 받고 있지만 앞으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교회에 성실히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주시리라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 구절이 뜻하는 바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사탄을 케이오 시킨 욥

욥기는 아무 이유 없이 너무나 큰 환난을, 그것도 졸지에 당한 욥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영적으로 갈등한 내용이 주제다. 그 고난의 원인이 사실은 하늘에서 사단과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걸고 내기를 했기 때문인지라 그로선 도무지 알 길이 없었던 것이다.

사탄은 먼저 그의 아들을 포함한 모든 소유물이 없어지면 욥이 믿음을 버릴 것이라고 장담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뿐 아니라 자식마저 몽땅 잃었어도 욥이 믿음을 버리기는커녕 불평도 하지 않았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찌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욥1:21,22)

이 고백은 욥의 믿음이 아주 견고했다는 점을 나타낼 뿐 아니라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모든 것을 다 잃고도 욥의 믿음의 자세에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는 결코 소유물 즉,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때문에 그분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이미 살펴본 대로 고난이 생긴 직접 계기가 인간으로선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계에서의 사건이 발단 된 것으로 욥의 믿음과는 아예 연관되지 않았다. 말하자면 열심히 믿으면 복을 받고 그 반대면 벌을 받는다는 기복사상은 욥기의 주제가 아니라는 점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에게 다시 도전했다. 소유물과 자식은 욥과는 직접 연관이 없지만 정작 본인에게 큰 고통이 임하면 믿음을 버릴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사탄이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만드는 것도 허락했다.

이처럼 사단은 사람을 해치고 심지어 생명마저 빼앗을 힘은 있으나 모든 일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지 못한다. 사단에게는 능력만 있지 권세는 없다. 우주만물을 다스리는 절대적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이 사탄과 결코 협력 내지 동역하지 않는다.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궁극적으로 벗어날 수는 절대 없다. 욥이 겪은 그 끔찍한 환난도 하나님이 사단과 내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만의 절대적 주권과 거룩한 통치 가운데서 이뤄졌을 뿐이다.

이번에는 욥의 아내마저 그더러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비방했을 정도로 병든 욥신의 몰골은 처참했다. 욥은 또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욕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2:10)라고 말하며 입술로도 범죄 하지 아니했다. 하늘에서 벌어진 하나님과 사탄의 두 번에 걸친 힘겨루기는 사탄의 일방적 패배로 끝났다.

간과해선 안 될 사항은 하나님은 전혀 직접 간섭하지 않았고 순전히 욥의 믿음으로만 이겼다. 결과적으로 욥이 사탄을 무참하게 케이오 시킨 셈이다. 그것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말이다. 바뀌 말해 오늘날의 신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이 땅에서 겪는 어떤 극심한 환난을 통해서도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초자연적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큰 일꾼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뤄지게 함은 너무나 쉽고도 당연하다. 신자가 이런 영적 진리와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도 이런 진리는 무지한 채 오직 고난만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떼쓰는 일 말고는 믿음을 동원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최고 좋은 증거라고 가르침을 받았으니 더 큰 문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실은 욥과 하나님의 씨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다. 욥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가 평생을 두고 반드시 한 번은 부딪치고 꼭 풀어야 할 신앙상의 난제다. 엄청난 불행을 그것도 졸지에 당한 욥으로선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꼭 알고 싶었던 것이다.

욥기는 42장으로 이뤄졌는데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는 처음 2장으로 간단하게 그친다. 영계의 일이라 설명해도 신자가 어차피 모르긴 하지만 너무 싱겁기까지 하다. 나머지 40장에 걸쳐서 “이유 없는 환난”에 대한 길고 긴 논쟁을 다루고 있다. 이유 없는 환난이란 표현 자체가 믿음이 좋은 자에게도 극심한 환난이 언제 어디서든 생길 수 있다는 뜻을 함의(含意)하고 있다. 욥기가 첫 1,2장에서 세상 어느 누구도 겪지 못할 만한 큰 불행을 당했어도 욥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강조한 이유도 믿음과 환난이 필연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밝힌 후에 나머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욥기는 반드시 이 전제를 바탕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전제와 상충되는 해석이라면 잘못된 해석이라는 뜻도 된다. 욥 본인의 변증, 그의 세 친구와 엘리후와의 논쟁, 마지막에 욥을 대면한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성도에게 생긴 이유 없는 환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각각의 관점을 피력한 것임을 절대 잊어서

안 된다. 말하자면 아무리 신앙적으로 옳고 경건한 말썸처럼 보이더라도 일부 구절만 따로 떼어 부분적으로 해석 강조하거나, 이 전제에서 파생 연관된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해석을 시도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성경에 기복신앙은 없다.

먼저 본문에 드러난 욥의 친구 발닷의 논지부터 살펴보자. 한 마디로 욥이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이다. 욥이 아무리 겉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지만 하나님만이 아는 숨겨진 죄가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 형편없는 처지로 전락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나중에는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발닷은 "네 자녀들이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라고 했다. 욥이 아들들이 잔치를 벌인 후에 그들이 혹시라도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범하였을까"(1:5) 염려하여 번제를 대신 드려준 일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말하자면 "너도 모르는 네 아들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주고 또 너에게도 대신 환난을 내렸을 것이 틀림없다?"고 다그친 것이다. 어쩌면 발닷은 그런 큰 환난을 당하고도 하나님께 전혀 불평하지 않는 친구 욥의 믿음을 가식적이라고 간주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문제의 성경 구절은 "지금 네 꼴을 보라 얼마나 미약한가? 내가 자랑하던 그 믿음은 어디 갔느냐? 혹시 나중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실 지도 모르니 지금부터라도 늦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라"는 의미다. 욥의 딱한 처지를 걱정하는 친구로서의 진심

어린 충고나 위로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비난, 야단, 심지어 조롱의 의미도 강했다.

그의 이런 논지는 성경이 환난에 대해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과 완전히 배치된다. 성경은 열심과 정성을 하나님께 바치면 반대급부로 하나님이 성공을 보장해준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시편 기자들은 한 결 같이 환난 중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왜 들리지 않는다고 울부짖었다. 그럼 그들이 전부 믿음이 약하고 죄를 지은 자들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자신의 참담한 심경을 고백했지 않는가?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했던 것이다. 오죽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의인이 핍박을 더 받는지 직접 따져보라고 하나님께 덤벼졌는가? 성경에서 찾을 것도 없다. 우리 주위에도 믿음과 현실이 상충해 보이는 실례가 너무 많다 못해 그것이 더 일반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가?

예수님도 분명 자기를 따르려는 자들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마 8:20)고 경고했다. 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요6:53)고 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요6:65)고 덧붙였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어서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요6:66)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주님이 열심히 믿으면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물러갈 바보가 어디 있겠는가?

성경은 일관되게 기복신앙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과 발맞이 그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아예 무시한 채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이 구절을 애지중지 하고 있다. 인생의 좌우명이나 사업상의 지표 처럼 삼고 있다. 그 속마음에 열심히 믿어 크게 창대해지겠다는 소원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믿음이라는 그럴듯한 용어로 포장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마저 인간적 의지적 노력으로 스스로 쟁취해내려는 교만이다.

정작 잘못된 이런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사역자들에게 있다. 개업예배나 심방 때에 설교할 본문으로 너무나 자주 인용한다. 성경 진리에 무지해 기복신앙을 퍼트리겠다는 의도이거나, 신자들의 열성을 독려해 교회에 충성시키려는 계교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잘 믿는 자에게 현실적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내용도 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이 완전한 진리가 되려면 언제, 어디, 어떤 경우, 누구에게나 그 말씀대로 항상 실증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당장에 욕이 당한 것처럼 이유 없는 환난이 있고 또 오늘날의 신자도 하박국과 같은 동일한 갈등을 겪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주에서 자존하시는 유일한 존재다. 쉽게 말해 당신 스스로에게만 영향을 받으신다. 당신의 전적 주권에 따라서 복이나 벌을 주시지 신자 쪽의 공로, 자격, 능력, 상황, 열심, 정성, 심지어 믿음과도 관계없다. 단적으로 비유해 문자 그대로 옛장수 마음대로다. 오직 하나님 당신의 뜻에 따라 현실적 형통과 환난을 나눠줄 뿐이다. 예컨대 쌍둥이 중에서 형 에서를 제치고 동생 야곱으로 장자 삼은 것은 당신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이유 말고는 인간 이성애 부합한 어떤 합리적 설명도 성경은 제시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물론 그 절대적 주권 안에 신자의 죄에 대한 징계와 믿음에 대한 보상도 분명 포함된다. 그러나 그 때와 방식이 우리의 기대나 예상과는 너무 달라 실제 현실에선 그 연관성을 구분하기가 거의 힘들다. 오죽하면 하나님도 나의 생각과 길이 너희의 것과 다르며 겉으로 재앙처럼 보여도 신자를 향한 본심은 평안이라고 강조했을까? 따라서 신자의 믿음과 하나님의 상벌의 관계를 영적으로 온전히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이 구절을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진리로 취급해선 안 된다.

바꿔 말해 신자는 세상에서 무조건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거나, 잘 믿으면 현실적 축복이 당연히 따라 온다는 진술은 둘 다 틀렸다는 것이다. 대신에 예수님을 닮아 그분 뜻대로 거룩하게 살 때에는 세상의 악한 흐름을 거슬러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세속적 형통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룸에 도움이 된다면 현실적 풍요를 누리게도 해준다. 바울이 말한 대로 신자가 궁핍에 처하거나 부요를 누리거나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뤄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이다.

또 단순히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해선 더더욱 안 된다. 무엇보다 신자가 누리는 복의 의미부터 정확하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잘 믿더라도 현실적 환난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주지시켜서 연약한 신자가 그릇된 기대를 갖지 않게 해야 한다. 작금의 성공 지향적 번영신학이나 낙관적 의지의 능력을 과신하는 긍정신학에 여러 문제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신자에게도 당신의 주권으로 환난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하나만으로도 결정적인 하자가 된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따로 떼어 보면 자칫 다 옳은 말로 보일 수

있다. 기복 신앙을 가진 발닷도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라고 했다. 절대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의인이 환난을 겪는 가운데도 그분의 공의가 드러나는 법이다. 그 공의가 신자가 환난을 받는 모습이어선 안 된다는 법은 없다.

그리고 아무리 은혜롭고 절대적 진리로 여겨지는 본문 같은 성경 구절도 앞뒤 문맥과 연결하지 않고, 또 욱기의 주제와 성경 전체의 일관된 사상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전혀 다른 뜻이 되어 버린다. 발닷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인간 상식에 합당한 모습으로만 나타나야 한다고 해석하게 된다.

만약에 목사가 옳은 것을 옳다고 가르치지만, 틀린 것을 틀렸다고 가르치지 않으면 반쪽 진리만 가르친 셈이다.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로 하여금 반쪽 진리만 붙드는 불구자 신자로 자라게 하는 셈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혹시라도 신자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보다는 고의로 불구로 만들어 교회와 목사에게 양순한 일꾼으로 만들려는 뜻은 아닐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욕이 모년에 받은 축복

그런데도 욱이 모년에 이전보다 두 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여전히 이 구절은 많은 신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신앙 양심상 크게 꺼릴 것 없이 “욕을 보라.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창대케 된다는 말씀 그대로 되지 않느냐?”는 식이다.

욕은 정말 보통 사람이 평생에도 다 겪지 못할 엄청난 환난을 순식간에 당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체는 시종일관 큰 기복이 없었다. 처음에는 잘못 믿거나 믿음이 약하다가 나중에

믿음이 처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진 것이 아니다. 우리 중에 욕이 당한 환난처럼 극심한 고통을 겪고도 욕처럼 두 번이나 고백할 수 있는 자는 거의 없다. 그는 처음부터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 견고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졌었다.

정작 그가 갈등하며 괴로워했던 두 가지 사항은 그런 믿음의 세기 성장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였다. 우선 육신적 고통이 너무 심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과 또 그 극심한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본적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의 반론을 보라.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10:7) 그러자 당장 친구 소발에게서 “네 말이 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적에 깨끗하다 하는구나”(11:4)라는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욕은 “나도 너희 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12:3)라고 변증했다. 잘 믿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 정도는 자기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10:4)라고 친구들의 주장이 반쪽 진리임을 지적했다. 의인도 얼마든지 환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에게 “너희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다 쓸 데 없는 의인이라”(13:4)고까지 반발했다. 말하자면 반쪽 진리만 가르치면서 사실 그대로 반쪽 진리라고 밝히지 않거나, 나머지 반의 진리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며 아무 쓸모없는 신

앙이라고 한 것이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며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13:13,20-24)

그의 말을 쉽게 풀면 이렇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도대체 아무 죄도 없는 나에게 이러시는 이유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 혹시 죄가 있다 해도 정말 이런 극한적인 고통을 받을 정도입니까? 아니면 아예 나를 원수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 적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내 믿음은 정말로 순전했음을 하나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유조차 말씀하지 않는 까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욥의 생각의 변화

물론 이런 논쟁의 와중에서도 욥의 생각이, 믿음이 아니라, 조금 변하는 징조는 보인다.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23:10) 자기에게 허락한 환난의 구체적 원인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자신의 믿음을 더 성숙한 단계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짐작한 것이다.

그는 죄 지으면 벌 받고 선행하면 상 받는다는 친구들의 단순한 논리를 처음부터 결코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비록 자신의 의심과 불만이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틀렸음을 오히려 더 확신하게 되었다. 친구들의 주장이 틀렸다면 그 반대되는 자신의 의심이 더욱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통해 자신의 의심을 씻어주고 믿음도 올바르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 것이다. 환난에, 특별히 자기가 겪고 있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경우에도 인과응보의 고리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에 인간이 보기에 구체적 원인이 있어서 그에 상응한 필연적 결과가 따라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먹기 바로 직전까지 그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곳을 알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라고 한탄했다. 이 극심한 고통에 대한 이유라도 속 시원하게 말을 해주면 좋으련만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미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리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이라도 자기를 결국 유익으로 이끌 것이라는 점만은 인정하게 된 것이다.

욥기는 모세오경과 함께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다. 그 시대적 배경은 근 4천 년 전이었다. 그 때 이미 욥의 세 친구들의 신앙이 틀렸다고 하나님이 판결 내렸다. 참으로 놀랍지 않는가?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들이 창시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인간에게 이유 없는 고통이 생긴다는 것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4천 년 전의 욥기를 통해 모든 세대에서 최대로 성행했고 지금도 한창 성업(?) 중인 이단인 기복신앙은 처음부터 아예 틀렸다고 선언하고서 논술을 진행하고 있지 않는가? 기복신앙 따위는 기독교에선 아예 논쟁거리도 안 된다는 뜻이다. 그야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너무나 확실한 내증(內證)이다. 신자와 기독교는 하나님이 욥기를 성경으로 남겨주셨음에 정말로 감사해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컨대 욥의 믿음은 오늘날 만연되고 있는 기복신앙, 변영신학, 긍정신학과는 아예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도 세 친구는 그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복 주신다고 끈질기게 타일렀다. 반면에 성경은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고 분명하게 전제하고 모든 고난의 해답을 처음부터 오직 절대자 하나님에게 돌렸다. 그런데도 오늘날에도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가르침이 기독교에서 왜 더 성행하는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목회자나 신자 공(共)히 하나님을 알기보다 그분이 주는 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 말고 합당한 설명은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쟁론할 자 아무도 없다.

친구들과는 아무리 논쟁을 해도 욥이 갖고 있던 근본적 의문 즉, 욥기의 핵심 과제인 고통에 대한 이유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욥으로선 자기가 겪고 있는 환난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은 또 그것을 밝혀 주어야만 한다고 버텼다. 결국 제 삼의 인물인 엘리후가 홀연히 등장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욥을 향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말한다고 야단부터 쳤다. 환난의 이유를 끝까지 알아야겠다고 따지는 것 자체가 자기는 고난을 받을 아무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과 같다는 뜻이

다. 뒤집어 말해 이유 없는 자에게 고난을 주는 하나님이 나쁘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옳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주장한 셈이다.

비유컨대 아이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부모가 야단칠 수 있다. 아이는 이해되지 않는 성인으로서의 선악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먼 장래를 내다보며 훈련시킬 목적으로 일부러 어려움을 허용할 수 있다. 어린 자식으로선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거나 심지어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 결국 자기를 야단치거나 어렵게 만든 부모만 잘못했다고 착각하고 원망하게 된다. 엘리후가 옳을 견책하는 뜻이 옳이 바로 그런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네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찜이뇨. ...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에 누가 감히 뵈올 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33:12,13, 34:29)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의 목적과 이유를 비밀로 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오직 당신의 전적인 주권으로 하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간이 끝까지 그것을 알고 덤비는 것은 그분의 잘잘못을 가리려 하는 것과 같다.

만약 하나님이 평안을 주었다면 이유를 따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환난도 마찬가지로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환난이라면 신자로선 당연히 감수하면서 그분의 선한 뜻이 드러나도록 믿음과 소망을 품고 기다려야 한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환난의 이유를 따지려 든다면 그분이 주신 평안의 이유도 따져야 한다. 나

아가 아무 이유 없이 평안을 준다면 오히려 받지 않겠다고 거부해야 신자로서 공평한 태도다.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네 위의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네가 범 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35:5-7)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당신의 주권으로 할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하신다. 세상의 어떤 것도 그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오직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신다. 아무리 욕 같이 신실한 신자라도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고, 하지 않고자 하는 일을 시킬 수도 결코 없다. 당신의 영광은 당신께서 스스로 세우시고 유지하신다. 인간의 어떤 경건한 행위로도 그분의 계획과 뜻이 없이는 그분의 역사를 이뤄낼 수 없다. 신자는 그분의 자신을 향한 계획과 뜻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만 누릴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 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네 상에 차린 것은 살진 것이 되었으리라.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네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찌니라.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곤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36:15-19)

의인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해 주시되 더 넓은 곳으로 옮겨 주신다고 했다. 의인이 도리어 “악인이 받을 벌을” 가득 받지만 “대속함을 얻은 일이 큰즉”이라고 했다. 원인 모를 곤고함이 의인에게 많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형통하는 악인은 도무지 받지도 알지도 못하는 더 큰 유익을 의인에게 주려는 것이다. 그런데도 신자가 자꾸 불평과 불만으로 차있다면 스스로 그릇되게 하는 짓이며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유익마저 막게 된다.

그래서 엘리후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37:23,24)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공의를 굽게 하는 법이 없기에 인간은 오직 경외함으로만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절대로 완전하고 선하다는 것이다. 신자에게 반드시 협력하여 선으로 작용하게 하신다. 원인 모를 환난도 그분의 완전한 공의에 근거한다. 인간 이성으로선 선한 면이라고는 단 하나 없으며 고통만 안겨주는 불행이라든가 하나님의 영광은 숨겨져 있다. 심지어 하나님이 신자의 생명마저 당장 앗아가도 당신의 공의와 사랑은 단 한 치의 오류가 없으며 신자에게도 유익이다.

설령 하나님이 사탄더러 욕을 죽이라고 한들 당신의 영광에는 전혀 손상이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탄에게 다른 것은 다 해코지를 해도 그의 생명만은 손대지 말라고 했지 않는가? 참 믿음은 하나님은 항상 무조건 옳으며 신자인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어떤 경우가 닥쳐도, 비록 육신적으로는 불안할지라도, 오직 그분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며 사는 것이다.

묵묵부답의 욥.

엘리후의 견책이 끝난 직후 드디어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서 나타났다. 욥에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직접 말씀하셨다. 이어서 설 틈을 전혀 주지 않고 자연계의 온갖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설명해 보라고 추궁했다. 말하자면 욥이 하나님에게 자기가 당한 고난의 원인이라도 알자고 따지니, 하나님도 역으로 욥더러 세상만사에 대한 원인을 아는 대로 대보라고 되물은 셈이다.

“네는 눈에 훤히 보이는 자연 현상의 원인도 도무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아니 그런 것들에 대해선 전혀 따지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을 알려고 드는데 그럴 자격이 너에게 있느냐? 또 내가 설명을 해준들 과연 네가 알 것 같으냐?” 하나님의 너무나도 타당하고 오묘한 반박이지 않는가?

실제로 하나님이 욥에게 한 질문 중에는 인간의 희로애락에 관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인간보다 열등한 동식물계와 비와 바람과 눈 같은 무생물에 관한 것뿐이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고 주관하여 다스리신다. 또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지 않아도 그 만드신 가운데 당신의 신성이 확연히 드러나 있을 뿐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의 운행이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다.

말하자면 지금 욥더러 네가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에까지 논쟁을 벌일 자격이나 자질이 있으려면 인간보다 훨씬 못한 피조세계의 사리(事理)들부터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질문은 아예 꺼내지도 않는 것이 인간으로서, 아니 신자로서 더 합당하고 논리적이며 온전한 믿음의 태도가 아

니냐는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창조한 후에 부여하신 근본 소명은 당신을 대신하여 이 땅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다스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바람에 피조세계도 함께 벌을 받았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창3:17,18) 이 땅은 원죄의 저주 아래 있고 또 인간들의 계속 짓고 있는 죄악으로 시련이 끊일 날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에겐 이유 없어 보이는 환난이 많은 것 같아도 사실은 그 궁극적 원인이 인간에게 있음을 욥에게 재차 인식시키려 하신 것이다. 즉, 욥 네가 감히 환난의 이유를 알자고 따지지만 과연 인간은 인간끼리라도 제대로 온전히 사랑한 적이 있느냐고 다시 상기 확인시키려 한 것이다.

“왜 서로 시기, 질투, 분노, 분쟁, 저주하여 살인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느냐? 아니 가족 안에서조차 온전한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를 이루지 못하지 않느냐?” 진실한 사랑으로 아름다운 가정하나 이루지 못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욥에게 물질도 전혀 이해 못하고, 인간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당신의 주권을 갖고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것이 과연 온당한 태도인지 정말로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점검해보라고 말한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으로 그치면 견책의 뜻만 남는다. 하나님이 인간 외부의 사안들만 열거하고 막상 인간 자체에 관해선 단 한 마디도 언급

하지 않았다. 인간만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당신의 특별한 관심으로 당신께서 직접 복과 화를 베풀 대상이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인간이 느끼는 희로애락, 특별히 고통도 다른 피조물이 갖지 못하는 인간만의 아주 특별한 축복이라는 뜻이다. 환난 가운데도 당신만의 뜻과 계획이 있기에 당신을 향한 소망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정금 같이 성숙시켜 주신다는 것이다. 나아가 인간의 영혼을 당신의 영으로 직접 다스려서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큰 은혜와 영광 가운데로 반드시 인도한다는 것이다.

약 이천 년 후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뜻의 말씀을 하셨다. “들풀의 영광도 솔로몬의 그것보다 절대 못하지 않으며 참새도 천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생물들이 염려 하나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당신 대신에 만물을 다스리라고 위임한 인간을 당신께서 먹이고 입히는 것은 너무나 지당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더더욱 얼마나 더 큰 사랑과 자비로 인도하시겠는가?”

때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 사탄더러 인간을 농락하도록 허용하지만 그 생명만은 절대 손도 못쓰게 제한하신다. 언젠가 당신께서 더 큰 구원으로 인도하실 뜻과 계획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연의 신묘한 이치를 하나님은 일일이 설명해주지 않고 만물 속에 다 숨겨 놓았듯이, 인간의 일에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피조물은 몰라도 인간이라면 더더욱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만 돌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서릿발 같은 추궁 앞에 읊은 드디어 지금껏 품고 있었던 불만 내지 의심을 완전히 버렸다. 환난의 이유라도 알아야겠다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도 교만한 일인 줄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는가? 처음 욥에게서 제기된 질문 즉, “이유 없는 고통”은 지금까지도 인간이 풀지 못하는 가장 형이상학적인 주제다. 그러나 욥은 끝내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얻지 못했다. 반면에 물질과 자연이라는 가장 형이하학적인 대상이 생존 활동하는 원리조차 인간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심오한 질문이라도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답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존재의 기원 일 뿐 아니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의미, 목적, 가치, 아니 그 전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선 인간은 바로 죽음이다. 인간으로선 오직 그분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만 세세토록 돌려야 한다.

욥기는 이미 근 4천 년 전에 기복신앙은 당연히 틀린 것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제한 어떤 철학, 사상, 종교도 무용지물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지면 관계로 여기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욥기 곳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보석같이 많이 숨겨져 있다. 당연히 욥으로선 이런 고백밖에 할 수 없었다.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주께서는 무소불능(無所不能) 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 하나이다.”(40:4,5 42:2,36)

만약 하나님이 실제로 하늘에서 사탄과 벌렸던 내기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면 욥이 온전히 수긍했을까? 완전한 행복은 전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너무나 사랑하는 자식들을 사탄의 노리개로 만든 것과 다름없으니 기절초풍했을 것이다. 이해는 아예 불가능하고 불평과 의심만 잔뜩 더 늘어났을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아예 그의 미천한 입을 봉해버리자 비로소 진짜로 겸비해져서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고 시인했다. “당신이 하신 일의 잘잘못은커녕 이유마저 따질 이유가 인간인 저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자체가 교만이자 너무나 큰 죄일 뿐입니다”라고 완전히 행복했다.

욥은 처음부터 창대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림에 당신의 완전한 사랑과 공의 말고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진리를 온전히 시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제대로 그 공의를 인정하여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는 무한한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는 약속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런 확신 가운데 항상 거함으로써 어떤 일이나, 심지어 욥 같은 환난이 닥쳐서 비록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신자가 그분의 숨겨진 뜻, 계획, 이유를 아예 따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욥처럼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그러나 그 따짐이 자신이 연단되어 정금 같이 나오는 목적에 근거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다른 의도가 있다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나아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신자가 아니라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뜻도 결코 아니다. 신자가 잠시 믿음에 혼선이 생겼거나 확실한 진리를 잠시 망각한 것을 두고 하나님은 탓하지 않으신다. 대신에 하나님은 신자가 완전한 믿음으로 자랄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 아니 당신께서 키워나가신다. 그것도 읊처럼 말도 안 되어 보이는 극심한 환난을 허락하면서까지 말이다.

바꿔 말해 하나님에게 신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받는 완전한 자녀일 뿐이다. 당신의 독생자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도 인간 쪽에서 그럴만한 자격 조건 능력 하나 없고 심지어 당신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해주셨는데, 조금 믿음이 흔들리거나 죄를 지었다고 그때그때 벌을 준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가? 신자는 하나님에게 당신의 핏 값으로 사는 순간부터 영원히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남는다. 바로 읊기 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너무나 많이 숨겨져 있다고 말한 까닭이다.

그리고선 오직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당신께서 신자를 빚어가신다. 물론 때로는 죄에 대한 징계와 선에 대한 축복도 유용한 수단으로 동원하시지만 매번 그런 것은 아니다. 한 마디로 읊이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해 처음에는 미약했다가 나중에는 그 죄를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아 창대해진 것이 아니다. 그는 처음부터 창대한 하나님의 자녀였다.

대신에 성경은 읊이 말년에 현실적으로도 창대케 된 직접적 원인을 친구를 위해 기도해주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42:10) 그는 자신의 윤리적 종교적 죄를 회개한 적이 없다. 하나님에게 환난의 이유를 알아야겠다고 덤빈 것을 철회했을 뿐이다. 나아가 환난이 끝이 나고 복을 받은 상태에서 기도한 것도 아니다. 친구

들의 현실적 상태가 나빠져서 그들이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다. 모년에 복을 받은 원인은 딱 하나다. 욥 본인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복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친구들의 그 미숙한 영적 상태가 안타까워서 대신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다.

믿음의 본질은 의외로 간단하다.

다른 종교는 몰라도 기독교에서만은 죄 안 짓고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와 비례해서 믿음이 좋아지고 복을 보장 받는다는 법은 없다. 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죄를 덜 짓고 참다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될 뿐이다. 그럼에도 신자가 스스로 노력해 선을 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에 당신께서 신자로 선을 행하게 하실 뿐이다.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전지전능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한 믿음 자체에는 변함이 없었다. 성경 전체에 욥만한 환난을 그것도 졸지에 당한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그는 입술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그의 믿음은 처음부터 창대했다.

그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의인이라도 이유 없는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그분의 도구가 된 것 뿐이었다. 오늘날 우리도 욥과 같은 극단적이고 예외적이며 비상식적인 일에 담대하고도 기꺼이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한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극심한 고난을 겪더라도 하늘에선 사탄이 하나님께 무참히 패배 당하는 일에 말이다.

현대 신자의 가장 큰 약점이자 딜레마가 무엇인가? 자신이 이

미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 은총, 주권, 섭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확신이 도무지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신자는 그 즉시로 읍처럼 창대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초신자 시절에는 미약했지만 종교적 실력이 늘어남에 따라 하나님이 창대케 해주실 것만 기대하고 있다. 예수님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갖고서 세상 끝 날까지 땅 끝까지 함께 해주심에 대해 전혀 실감을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다. 우리는 내 주위가 창대해져야 나도 창대하고 하나님도 창대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의 핏 값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써 이미 우리를 창대한 자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신자에게 주실 것은 다 주셨다. 신자의 주위가 창대하든 미약하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때려 죽여도 이미 창대해진 것이다.

많은 신자가 주위를 창대케 해주어야 자기가 창대케 된다고 알고, 믿고, 배워왔다. 또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주위가 창대케 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하다고 즉, 자신이 미약한 존재라고 착각한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창대케 해 주실 리는 없다. 이미 십자가로 완전히 창대케 된 위에 또 다시 그런 엉터리 창대함을 덧붙일 이유가 하나님에게는 전혀 없다는 말이다. 그분은 신자에게 유익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으신다. 읍에게 그 엄청난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뜻이었듯이, 우리에게도 그 비슷한 고통을 허락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완벽하게 행하실 뿐이다.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이다. 신자 혼자서 열심히 종교적 실력을 쌓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현실적 형통과 정신적 위로를 얻기 위한 노력을 신의 이름으로 경주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현실적 형통이나 정신적 위로라는 말 자체가 벌써 어떤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뜻한다. 이런 저런 개별적인 문제와 환난과 불안과 염려만 없애려는 것이다. 결국은 단편적, 순간적, 의지력이 강한 믿음만 필요해진다. 절대적이고도 창대한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나 변덕스럽고 미약한 인간의 정서와 의지에 바탕을 둔 인본주의적 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신앙은 어떤 면에서 너무나 간단하다. 절대적인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의 것을 하나 남김없이 바치는 의탁이다. 그분이 나를 향해 예비 해 놓으신 모든 것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끔 그분께 절대적이고도 완전한 드림이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겨도 오직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을 채우는 대신에 나의 믿음만 능주의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다.

믿음이 감히 감당치 못할 만큼 너무 거창하다고 여겨지는가? 그럼 진짜 신앙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줄여보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절대로 옳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항복한 나를 그분은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데에 전혀 의심이 없는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긴다면 진짜로 믿음만능주의에 오염된 찌끼가 아직 다 빠지지 않았다는 증거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겠다. 믿음이란 내가 먼저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믿고 사랑하는 측면이 도무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또 그런 앞의 바탕에서 모든 사고와 말과 행동을 합당하게 실제 삶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엡1:3-6)

